KIET 경제·산업 전망 2025-01(1)

ISSN 2983-0338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차례

요약 ····· 7

제1장 거시경제 전망 ····· 21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 21
2. 대내외 여건 전망 ····· 24
3. 2025년 국내 경제 전망 ····· 34
〈참고 1〉 한국의 대미국 수출구조 분석: 부가가치 수출 ····· 51
〈참고 2〉 한국의 대미국 수출구조 분석: 직접 수출 ····· 55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 61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61
2.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부문별 전망 ····· 75
3. 종합 및 시사점 ····· 93

표 차례

〈표 1-1〉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 25
〈표 1-2〉 세계 주요 권역별 및 국가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 26
〈표 1-3〉 국제유가 전망(EIA 기준) ····· 31
〈표 1-4〉 2025년 국제유가 전망 ····· 31
〈표 1-5〉 원/달러 환율 전망 ····· 33
〈표 1-6〉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34
〈표 1-7〉 민간소비 관련 지표 증감률 ····· 35
〈표 1-8〉 민간소비 전망 ····· 37
〈표 1-9〉 설비투자 추이 ····· 38
〈표 1-10〉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 39
〈표 1-11〉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 40
〈표 1-12〉 설비투자 전망 ····· 41
〈표 1-13〉 건설투자 추이 ····· 42
〈표 1-14〉 건설투자 전망 ····· 44
〈표 1-15〉 산업별 수출 증가율 ····· 48
〈표 1-16〉 가공 단계별 수입 ····· 48
〈표 1-17〉 수출입 전망 ····· 50
〈표 2-1〉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 62
〈표 2-2〉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 65
〈표 2-3〉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67
〈표 2-4〉 2025년 하반기 업종별 주요 이슈: 미국의 관세정책 ····· 70
〈표 2-5〉 2025년 하반기 업종별 주요 이슈: 중국의 영향력 확대 ····· 73
〈표 2-6〉 2025년 하반기 업종별 기타 이슈 ····· 74
〈표 2-7〉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 79
〈표 2-8〉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 83
〈표 2-9〉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 87
〈표 2-10〉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 91

〈표 2-11〉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전망 기상도 ····· 93
〈표 2-12〉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 96
〈표 2-13〉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물량, 원화 기준) ····· 97
〈표 2-14〉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 98
〈표 2-15〉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 99
〈표 2-16〉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 100
〈표 2-17〉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물량, 원화 기준) ····· 101

그림 차례

〈그림 1-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 22
〈그림 1-2〉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 23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추이 ····· 23
〈그림 1-4〉 OECD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분기별) ····· 24
〈그림 1-5〉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 24
〈그림 1-6〉 G20 경기선행지수와 OECD 산업생산 추이 ····· 25
〈그림 1-7〉 세계 주요국의 경제지표 및 체감지표 추이(월별) ····· 26
〈그림 1-8〉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실질GDP 성장률(분기별) ····· 27
〈그림 1-9〉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교역지표(분기별) ····· 28
〈그림 1-10〉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고용지표(분기별) ····· 29
〈그림 1-11〉 국제유가 추이 ····· 30
〈그림 1-12〉 원/달러, 달러 인덱스 추이 ····· 32
〈그림 1-13〉 소비지표 추이 ····· 36
〈그림 1-14〉 고용지표 추이 ····· 36
〈그림 1-15〉 소비자심리지수,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 37
〈그림 1-16〉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 39
〈그림 1-17〉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 40
〈그림 1-18〉 제조업 재고율과 자본재 수입 추이 ····· 41
〈그림 1-19〉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 43
〈그림 1-20〉 건물건설 인허가 및 착공 추이 ····· 43
〈그림 1-21〉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 44
〈그림 1-22〉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 45
〈그림 1-23〉 수출 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 46
〈그림 1-24〉 지역별 수출 증가율 ····· 47
〈그림 2-1〉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 76
〈그림 2-2〉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 81
〈그림 2-3〉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 86
〈그림 2-4〉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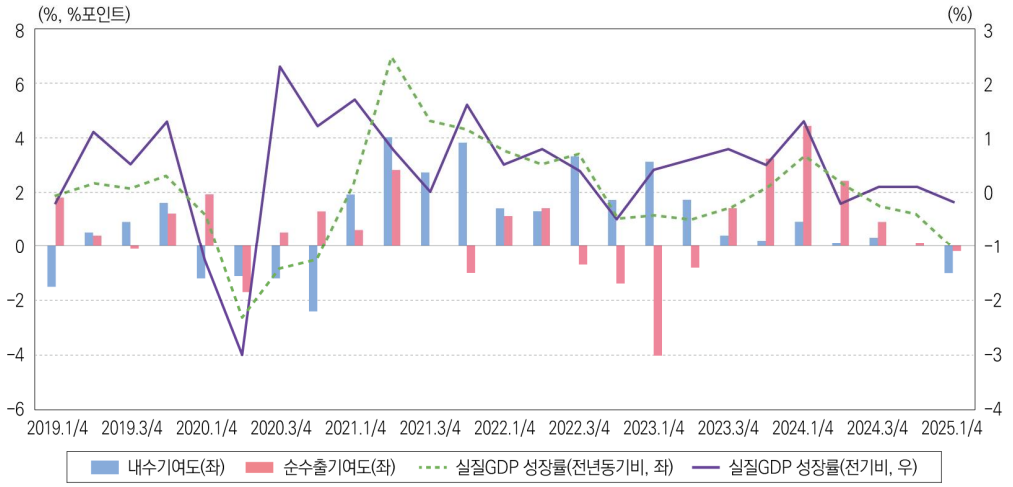
요 약

제1장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수출·투자·소비 동반 부진

○ 최근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이 주력 품목들의 가격 약세,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약화,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감소로 전환된 가운데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 등이 성장세를 제약하면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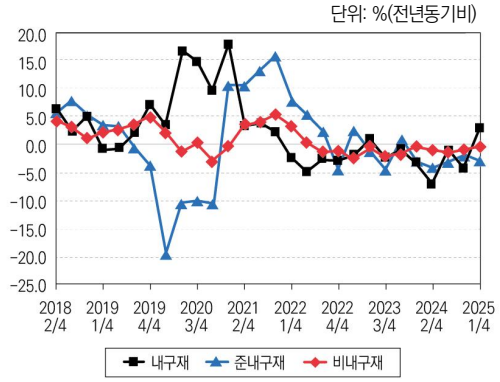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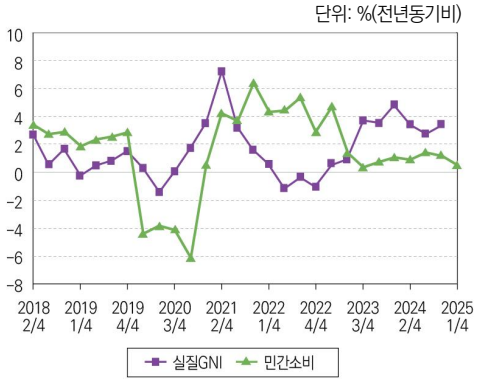
○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기 진입과 소득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

재화별 소매판매 증감률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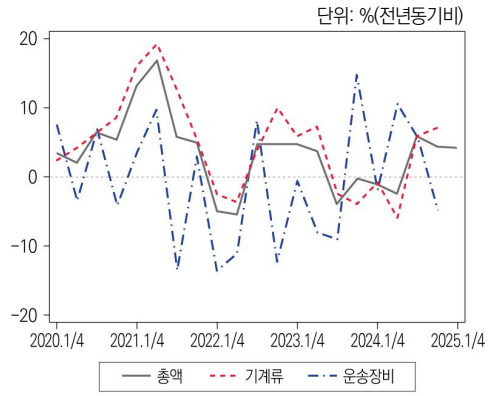
민간소비와 실질GNI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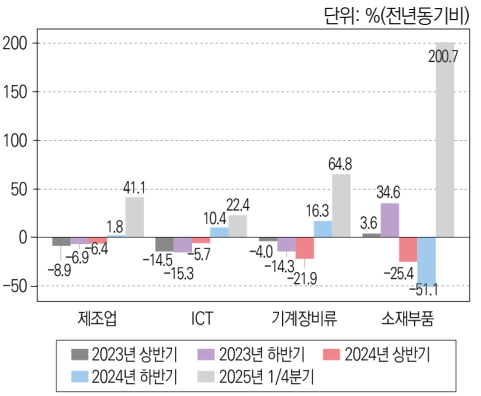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입자본재 가격 상승,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여파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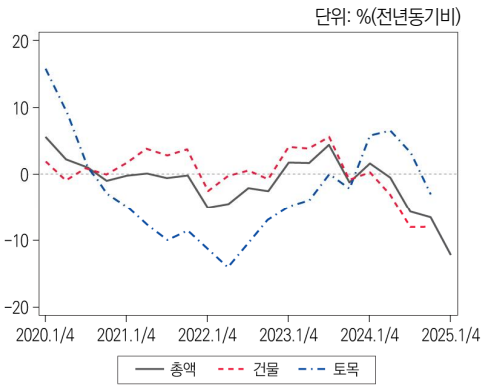
수요자별 기계수주액(선박 제외)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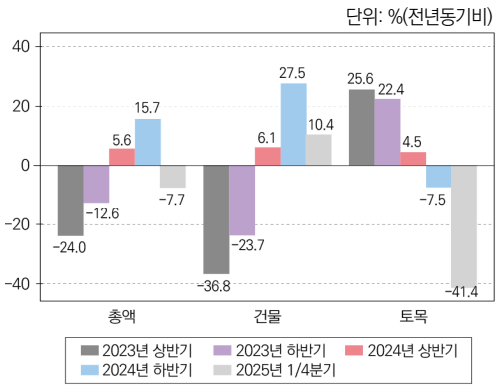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설비투자지수 증감률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 건설투자는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 부동산 PF 부실 등의 여파로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외환위기(1997~98년) 이후 전년동기비 가장 큰 폭으로 감소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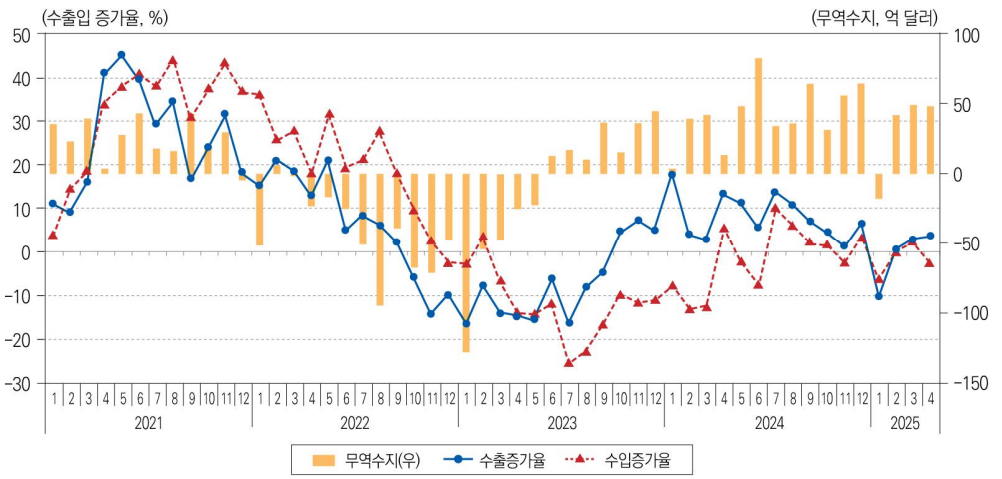
건설수주액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수출(통관 기준)은 반도체 및 IT 등의 증가에도 불구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의 가격 하락, 주요국들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약세,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3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전제) 2025년 세계 경제: G2(미·중) 무역분쟁과 정책 불확실성 증대로 성장률 둔화

○ 2025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 무역정책의 변화로 촉발된 과도기적 국면하에서 2024년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G2(미·중) 무역분쟁의 실물경기에 대한 파급 영향과 무역 및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강화 여부 등이 주요 변수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2023	2024			2025	2025 전망치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분기	IMF	UNDP	OECD
전 세계	2.9 (3.5)			2.8 (3.3)	-	2.3 (2.8)	2.3	(3.1)
선진권	(1.7)	-	-	(1.8)	-	(1.4)	1.0	-
미국	2.9	3.0	2.6	2.8	2.0	1.8	1.0	2.2
유로존	0.4	0.5	1.1	0.9	1.2	0.8	0.8	1.0
일본	1.5	-0.7	0.9	0.1	-	0.6	0.5	1.1
신흥권	(4.7)	-	-	(4.3)	-	(3.7)	4.1	-
중국	5.4	5.0	5.0	5.0	5.4	4.0	4.4	4.8
세계교역(재화)	-0.8			2.9	-	1.1	-	-

자료: IMF(2025.4월); UNDP(2025.4월); OECD(2025.3월).
주: 전 세계는 시장환율 적용 기준. 단, ( ) 안의 수치는 PPP 환율 기준.

□ (전제) 2025년 유가 및 환율: 유가 배럴당 67달러, 환율 1,412원 내외

○ 2025년 국제유가는 미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지속되는 데다, 비OPEC+ 산유국 중심의 원유 공급 확대 가능성에 따라 하향 안정화되면서 전년보다 상당폭 하락한 배럴당 67달러 정도가 예상

2025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83.3 (5.3)	76.0 (-10.8)	79.6 (-3.0)	72.4 (-13.0)	62.2 (-18.2)	67.3 (-15.5)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5년 상반기는 5월 22일 현재 기준.

○ 2025년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경기 둔화세 완화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가 예상되나, 수출 부진 지속, 한·미 금리차 확대 가능성 등 원화 약세 요인과 미국의 달러 약세 모멘텀 둔화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

2025년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원/달러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350.2 (4.2)	1,353.6 (4.6)	1,363.5 (4.4)	1,440.5 (6.7)	1,385.0 (0.6)	1,412.8 (3.6)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5년 상반기는 5월 22일 현재 기준.

□ 2025년 국내 경제: 연간 성장률 1% 내외 전망

○ 2025년 국내 경제는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신정부 출범과 추경 효과에도 불구 내수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간 1% 내외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2025년에는 대내외적으로 G2(미·중) 무역분쟁의 파급 효과와 무역 및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강화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내적으로는 소비 및 투자 등 경제심리 개선 여부,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피해 정도 등이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

□ 2025년 소비: 상저하고 흐름 예상, 전년 대비 1% 증가 전망

○ 민간소비는 물가 및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신정부 출범과 경기 부양책 등 소비 여건의 개선으로 전년 수준의 증가율(1.0%)이 예상되며, 소비심리의 회복 속도와 소득 증가세 둔화 영향 등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

□ 2025년 투자: 설비투자 1.8%, 건설투자 -4.7% 예상

○ 설비투자는 수입 자본재 가격 상승, 주요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에 따른 반도체 업황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년과 비슷한 증가율(1.8%)이 예상

○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 미분양 증가, 부진한 인허가·착공 실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상당폭 감소(-4.7%)할 것으로 예상

□ 2025년 수출입: 수출 -1.9%, 수입 -2.1%, 무역수지 524억 달러 전망

○ 수출(통관 기준)은 AI 관련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기, 조선, 바이오·헬스 등의 일부 견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 및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 세계 교역 감소 등에 따라 감소 전환이 예상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3	2024			2025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1.4	2.8	1.3	2.0	0.5	1.4	1.0
민간소비	1.8	1.0	1.3	1.1	0.7	1.3	1.0
설비투자	1.1	-1.8	5.1	1.6	3.6	0.2	1.8
건설투자	1.5	0.4	-6.1	-3.0	-7.6	-1.8	-4.7
통관 수출	6,322 (-7.5)	3,348 (9.1)	3,488 (7.2)	6,836 (8.1)	3,302 (-1.4)	3,404 (-2.4)	6,706 (-1.9)
통관 수입	6,426 (-12.1)	3,119 (-6.4)	3,199 (3.4)	6,318 (-1.7)	3,079 (-1.3)	3,104 (-3.0)	6,183 (-2.1)
무역수지	-104	229	289	518	223	301	524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5년 상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부정적 거시경제 여건, 정책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요국 IT 및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는 긍정적인 대외 요인

○ (세계 수요 여건) 2025년 하반기 세계 수요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회복 기조가 예상 대비 지연될 전망, 디지털 수요는 견조하고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기능성 소재·부품 수요도 다소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미 통상정책의 파급 영향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도 상당할 전망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주요 시장 수출 여건은 주요국 IT 및 인프라 투자, 재정지출 확대 등의 우호적 여건과 경기 회복 지연, 관세 및 경쟁 심화 등의 부정적 여건이 혼재할 전망

-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 부과(자동차, 철강) 및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른 수요 위축(기계, 화학, 섬유) 등이 수출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견조한 IT 및 바이오의약품 수요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 지속 등의 긍정적 여건 예상

- 유럽 시장에서는 교역 및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로 수요 위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재정지출 확대, 구매수요 누적(자동차), 일부 규제 개선(자동차, 바이오헬스), AI서버 투자 확대(정보통신기기) 등은 긍정적 요인

- 중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일반기계, 철강)에 따른 부정적 수출여건이 이어질 전망이나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세(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및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카메라모듈 등) 및 이구환신 보조금(자동차, 가전) 등은 우리 제품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

- 인도는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 신·증설 투자 확대(기계), 인프라 투자 지속(철강, 석유화학), 공급망 재편(디스플레이) 영향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 베트남도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한국기업의 베트남 생산 확대(가전) 영향으로 긍정적 수요가 예상되나, 미국 관세정

책에 따른 산업 위축, 보호무역조치의 강화 등의 수출 리스크도 존재

□ 국내 공급능력은 첨단·유망 분야 중심으로 소폭 확대가 예상되고 디지털·그린 전환 대응 투자도 계속될 전망, 수출 및 생산 비용 증가 대응 목적의 해외 생산 확대와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도 진행될 전망

○ (해외 생산 전망) 2025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정책 본격화 및 각국의 대응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 불확실한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현지 수요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국내 업체들의 해외 생산은 증가 예상

- 자동차는 신설된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신규 공장의 가동률이 빠르게 높아질 전망,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의 확대 추세는 지속될 전망

○ (국내 공급능력 및 투자) 대외환경 불확실성 및 업황 둔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투자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전기차, 첨단섬유,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유망 제품의 공급능력은 확대되고 AI·DX 전환, 중장기 그린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조선, 철강, 정유, 반도체 분야의 관련 투자는 지속될 전망

□ 13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주요 이슈: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은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주요국 규제 변화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관세정책) 하반기 본격화될 수 있는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은 우리 수출 전반의 큰 위협요인일 전망, 직접 수출 및 제3국 경유 수출의 감소 등 부정적인 직·간접적 영향 발생이 우려되나 수출 경쟁력을 통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발생도 예상

- 자동차, 철강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보다 직접적으로 산업의 수출 및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전망

- 대다수 산업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및 수요 둔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 대한국 중간재 수요 감소 등의 부정적인 간접효과 발생을 우려

○ (중국의 영향력 확대) 중국의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는 기간산업 및 첨단산

업을 아우르는 한국의 대다수 산업에 큰 위협요인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 중국의 자급률 상승 및 과잉생산은 국내 전통 주력산업의 대중 수출의존도 감소, 국내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나타날 전망

-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에서도 중국과의 경합도 증가할 전망, 이에 직접 경쟁 또는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확보 부담이 높아질 전망

○ (주요 이슈: 산업별) 이 외에도 주요국 전기차 수요 변화(자동차), 비관세 수입장벽 강화(일반기계), AI 확산(반도체, 가전), 인도시장의 성장(디스플레이), 친환경 정책 변화(이차전지) 등이 2025년 하반기 국내 13대 주력산업이 마주하게 될 주요 이슈일 것으로 예상

2. 2025년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상반기 부진한 실적, 하반기 관세 리스크 높아지며 연간 수출은 소폭 감소 전환 예상

○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IT,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수출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관세와 이에 따른 대외환경 불확실성 증가, 해외 생산 확대 등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동기비 2.3% 감소할 전망, 역기저효과 등으로 상반기 수출도 1.9% 감소함에 따라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 예상

- (기계산업군) 2024년에 이어 조선산업의 수출 성장은 지속되나 하반기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자동차와 기계 수출의 부진이 전년보다 확대될 전망, 이에 산업군 전체의 연간 수출은 전년(0.6%)의 소폭 증가에서 감소(-5.0%) 전환 예상

- (소재산업군) 저유가에 따른 단가 하락, 관세 및 글로벌 수요 둔화 영향으로 산업군 내 모든 산업의 수출이 연중 내내 부진할 전망, 산업군 전체 연간 수출의 감소폭도 전년(-1.2%) 대비 크게 확대될(-9.4%) 전망

- (IT신산업군) 2024년 29.4%의 큰 폭 증가를 기록한 IT신산업군의 수출은 AI 적용 확산 등의 긍정적인 글로벌 IT 수요 상황 속에서 고부가 반도체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바이오시밀러, ESS 등 유망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2025년에도 4.7%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단, 관세 리스크, 중국의 급성장 및 해외 생산의 확대는 수출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내수: 하반기 내수는 소비심리 개선 영향으로 하락폭 둔화가 예상되나 건설투자 부진과 국내외 성장 부진이 회복을 제약할 전망

- (기계산업군) 내수시장 공략 강화로 하반기에도 자동차(2.1%) 내수는 증가할 전망이나 부진한 건설 및 제조업 경기 영향으로 일반기계(-1.7%) 하반기 내수는 감소 전환 예상
- (소재산업군) 석유화학(-0.2%)의 하반기 내수 반등(+6.3%)이 예상되나, 철강(-4.7%)은 하반기(-0.1%)에도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섬유(0.7%)는 횡보세 예상
- (IT신산업군) 국내 IT 신제품 출시, 전기차 판매 개선 효과로 인해 하반기 정보통신기기(5.5%)와 이차전지(6.8%)의 내수 반등이 나타날 전망, 바이오헬스(2.2%)의 하반기(-3.0%) 내수는 기저효과로 감소하나 보건정책 지원 확대 영향 연간 내수는 지속 증가할 전망

□ 생산: 국내외 수요 부진 및 해외 생산 확대 영향으로 자동차,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생산 부진세 지속 예상

- (기계산업군)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4.4%) 및 일반기계(-3.5%) 생산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2년 연속 연간 생산은 감소할 전망, 조선(5.0%) 생산도 하반기(-5.8%) 감소가 예상되나 생산 정상화에 따라 연간으로는 생산 증가세 지속 예상
- (소재산업군) 수출 부진, 내수 회복의 지연에 따라 하반기에도 철강(-1.3%), 정유(-2.2%), 섬유(-1.4%) 등 대다수 산업 생산의 감소가 이어질 전망, 석유화학(-0.4%)은 하반기(3.5%) 소폭 개선 기대
- (IT신산업군) 하반기 생산은 상반기 대비 증가폭이 둔화되나 수출 증가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2.1%), 반도체(2.3%), 바이오헬스(3.1%)의 생산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나 해외 생산 확대 영향으로 가전(-0.5%)과 이차전지(-2.2%)는 하반기에도 생산이 지속 감소할 전망

□ 수입: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은 IT 제품의 수입 증가에도 기계·소재산업군의 내수 위축과 저가 수입 비중 확대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비 0.5% 감소할 전망, 연간 수입은 전년 대비 0.7% 감소 예상

- (기계산업군) 저가 전기차 수입 확대 영향으로 자동차 연간 수입은 소폭 감소하고 제조

업 경기의 미약한 개선에 따라 일반기계 수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기자재 국산화 영향으로 조선의 연간 수입은 증가 예상

- (소재산업군) 내수 위축 및 수입규제에 따라 철강 수입은 감소하고 단가 하락으로 정유 수입도 큰 폭 감소 예상, 내수 개선 영향 저가 수입재 확산으로 석유화학과 섬유 수입은 소폭의 증가세 지속 예상

- (IT신산업군) 하반기 소비심리 개선 영향 IT·가전 수입 증가와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반도체 수입의 지속 예상, 국내 내수 개선 영향으로 이차전지 수입 감소폭은 크게 둔화될 전망

3. 종합 및 시사점

□ 2025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종합

○ 2025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 및 자국 중심 정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IT 수요 개선이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과 수출 확대를 견인할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생산	
		하반기	연간	하반기	연간	하반기	연간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	🌧
	조선	☁	☼☼	☂☂	☂☂	☂	☼
	일반기계	☂	☂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	🌧
	정유	☂☂	☂☂	🌧	🌧	🌧	🌧
	석유화학	🌧	☂	☼	🌧	☁	🌧
	섬유	🌧	🌧	☁	☁	🌧	🌧
IT 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	☁
	가전	🌧	🌧	☁	☁	🌧	🌧
	반도체	☁	☼	☂☂	☂	☁	☁
	디스플레이	☁	🌧	🌧	☁	☁	☁
	이차전지	☂	🌧	☼	🌧	🌧	🌧
	바이오헬스	☼☼	☼☼	🌧	☁	☁	☼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내수와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4) 조선산업의 내수는 국적 선사가 국내 또는 해외 조선사에 발주하여 인수받는 물량(CGT)으로 국내 해운사의 선박 발주량이 많지 않고 일정하지 않으므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

전망, 바이오헬스와 조선산업도 하반기 일시적 둔화가 나타나겠지만 2025년 전체적으로 양호한 실적 달성은 무난할 전망

- 국내외 수요 부진, 수출 여건의 악화 및 해외 생산 확대 여파로 자동차, 기계, 철강, 정유, 가전, 이차전지 산업의 침체 국면 지속이 예상되고 석유화학은 하반기 업황 개선이 미약세에 그치며 업황 회복 시점은 2026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

제1장

거시경제 전망

제1장 거시경제 전망

1. 국내 실물경제 동향

□ 현 경기 판단: 수출·투자·소비 동반 부진

○ 국내 실물경기는 수출이 연초 주력 품목들의 가격 약세,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수요 약화, 전년동기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 등이 성장세를 제약하면서 부진

- 내수는 자동차 등 일부 내구재를 제외한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 등이 감소하면서 민간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설비투자가 특히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약간 둔화된 모습이고, 건설투자는 2024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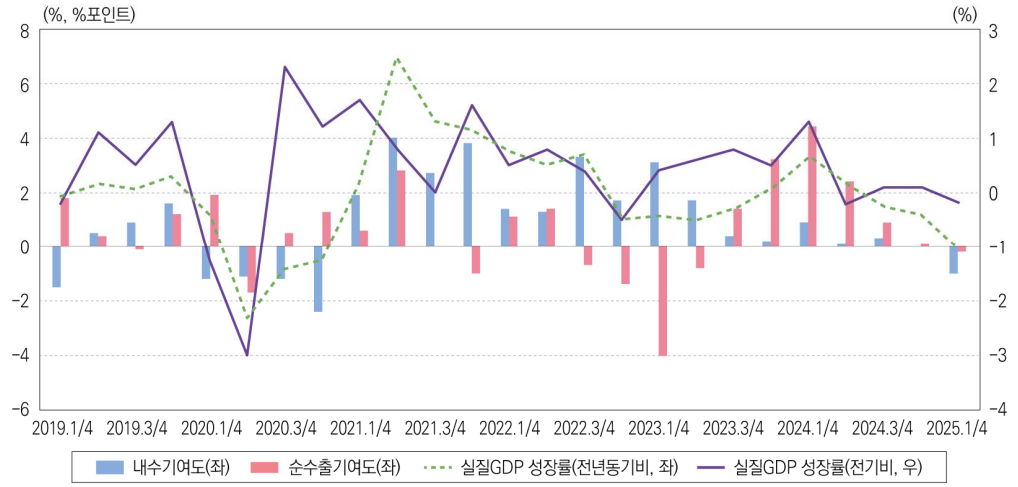
- 수출(통관 기준)은 반도체 및 IT 등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 연초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등의 가격 하락, 주요국들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약화, 전년동기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2023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1분기 -2.2%) 전환

  · GDP(전기비, %): (2024.1/4) 1.3 → (2/4) -0.2 → (3/4) 0.1 → (4/4) 0.1 → (2025.1/4) -0.2

  · GDP(전년동기비, 이하 동일, %): (2024.2/4) 2.3 → (3/4) 1.5 → (4/4) 1.2 → (2025.1/4) -0.1

  · 민간소비(%): (2024.1/4) 1.0 → (2/4) 0.9 → (3/4) 1.4 → (4/4) 1.2 → (2025.1/4) 0.5

〈그림 1-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 설비투자(%): (2024.1/4) -1.0 → (2/4) -2.5 → (3/4) 5.9 → (4/4) 4.5 → (2025.1/4) 4.2
- 건설투자(%): (2024.1/4) 1.6 → (2/4) -0.5 → (3/4) -5.7 → (4/4) -6.6 → (2025.1/4) -12.2
- 통관수출(%): (2024.1/4) 8.0 → (2/4) 10.1 → (3/4) 10.5 → (4/4) 4.2 → (2025.1/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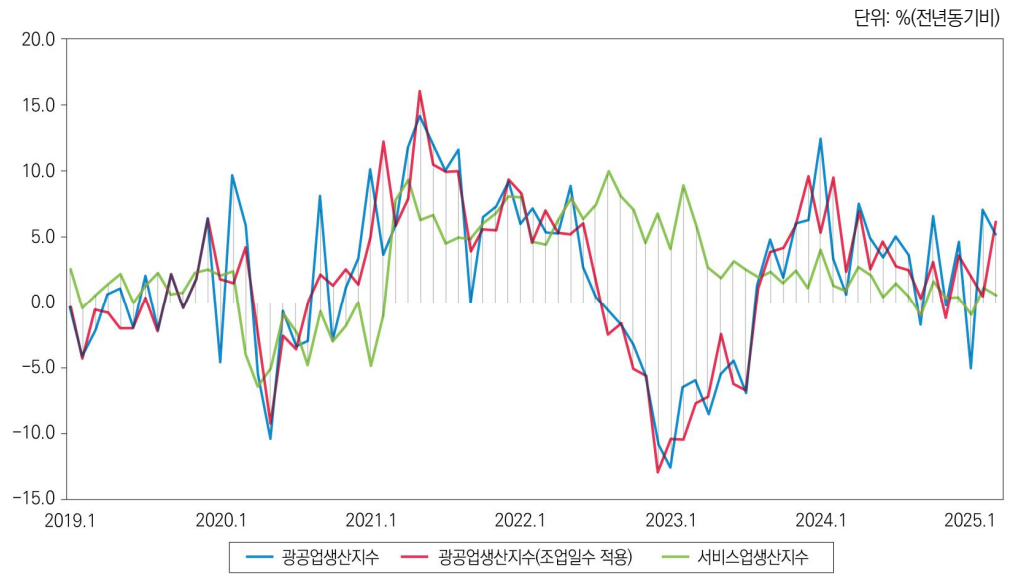
○ 전 산업 생산은 광공업 생산이 지난해 하반기에 상당폭의 등락을 보인 이후 2025년 2월부터 증가세가 이어지고,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들어 미약하나마 증가세가 이어지는 양상

- 광공업(전년동기비, %): (2024.10월) 6.6 → (11월) -0.2 → (12월) 4.7 → (2025.1월) -5.0 → (2월) 7.1 → (3월) 5.3
- 서비스(전년동기비, %): (2024.10월) 1.7 → (11월) 0.4 → (12월) 0.5 → (2025.1월) -0.9 → (2월) 1.2 → (3월) 0.7

○ 경기지표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올해 2월 이후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이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하락세를 보인 이후 올해 들어서도 아직 뚜렷한 추세 전환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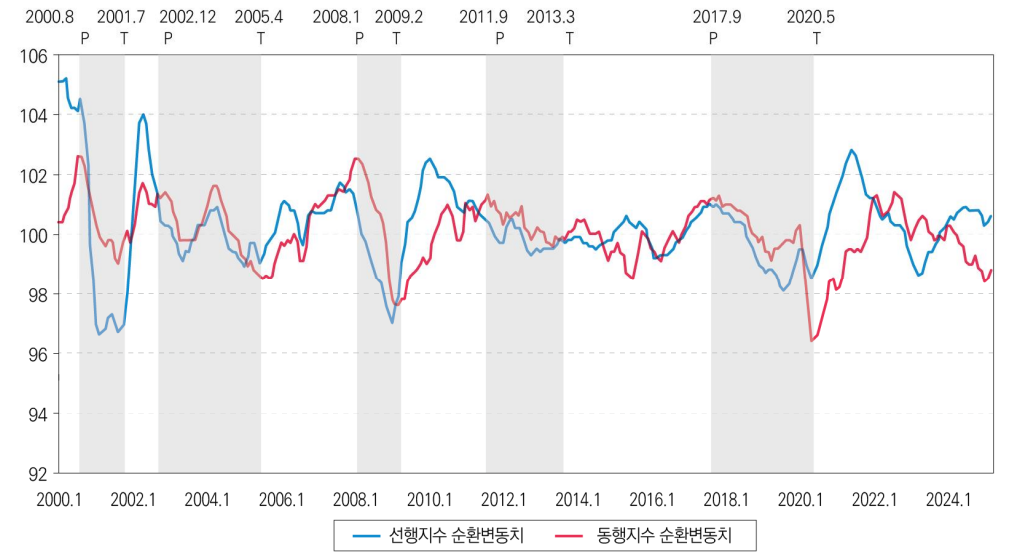
- 선행 순환변동치 전월차: (2024.10월) 0.0 → (11월) 0.0 → (12월) -0.1 → (2025.1월) -0.4 → (2월) 0.1 → (3월) 0.2
- 동행 순환변동치 전월차: (2024.10월) 0.3 → (11월) -0.4 → (12월) -0.1 → (2025.1월) -0.4 → (2월) 0.1 → (3월) 0.3

〈그림 1-2〉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3〉 경기종합지수 추이



자료: 통계청.

2. 대내외 여건 전망

(1) 세계 경제

□ 2025년 초 동향: 인플레의 더딘 둔화세와 실물경기의 완만한 회복

○ 세계 실물경기는 2024년 중 인플레의 더딘 둔화세와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고, 2025년 초까지도 회복세가 유지

- OECD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4년 상반기 연간 5%대 수준에서 하반기에 4%대로 하락한 이후 2025년 1분기 현재 아직 4%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024년 중 5~6%대에서 2025년 1분기 현재 4%대를 기록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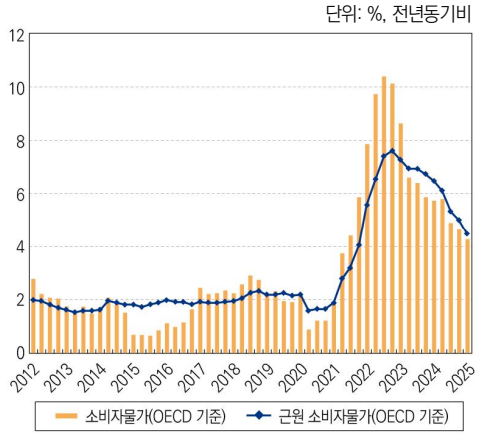
  · OECD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2023) 6.9% (2024.상) 5.8% (2024.하) 4.8% (2025.1분기) 4.3%

- 전 세계 산업생산은 주요국에서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진 영향으로 특히 선진권에서 미약한 흐름을 보인 이후 2024년 말부터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흥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

  · 선진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3) -1.0% (2024.상) -1.0% (2024.하) -0.3% (2025.1~2월)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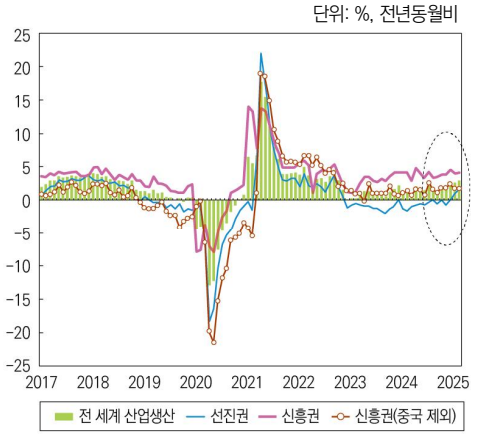
  · 신흥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3) 2.9% (2024.상) 3.9% (2024.하) 3.9% (2025.1~2월) 4.1%

〈그림 1-4〉 OECD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분기별)



자료: OECD.

〈그림 1-5〉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25년 전망: G2(미·중) 무역분쟁과 정책 불확실성 증대로 성장률 둔화

○ 2025년 세계 경제는 미국발(發) 무역정책의 변화로 촉발된 과도기적 국면하에서 2024년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G2(미·중) 무역분쟁의 실물경기에 대한 파급 영향과 무역 및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강화 여부 등이 주요 변수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과 내수 둔화 등 영향으로 일시적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인플레 재심화 여부 및 정책 대응 향방에 관심

- 유로존은 역내 실물경기의 미약한 흐름 속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와 주요국들의 재정지출 확대 등이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으며, 일본은 내·외수의 완만한 흐름 속에 일본은행(BOJ)의 완만한 금리 인상과 이시바 정부의 정책 대응이 주요 변수

- 중국은 부동산 침체 지속, 글로벌 보호무역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연간 4%대 초·중반 성장률이 예상

-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對)중국을 제외한 보편관세가 현 수준(10%)을 유지(4.9일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보복관세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2025년 세계 경제 성장세의 현저한 둔화가 불가피(IMF·UNDP 등)해 보이는 가운데 G2(미·중) 무역분쟁의 파급 영향과 무역 및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강화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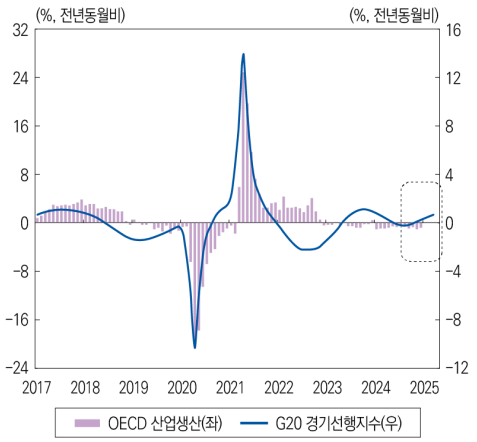
〈표 1-1〉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2023	2024			2025	2025 전망치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분기	IMF	UNDP	OECD
전 세계	2.9 (3.5)			2.8 (3.3)	-	2.3 (2.8)	2.3	(3.1)
선진권	(1.7)	-	-	(1.8)	-	(1.4)	1.0	-
미국	2.9	3.0	2.6	2.8	2.0	1.8	1.0	2.2
유로존	0.4	0.5	1.1	0.9	1.2	0.8	0.8	1.0
일본	1.4	-0.7	1.1	0.2	1.7	0.6	0.5	1.1
신흥권	(4.7)	-	-	(4.3)	-	(3.7)	4.1	-
중국	5.4	5.0	5.0	5.0	5.4	4.0	4.4	4.8
세계교역 (재화)	-0.8			2.9	-	1.1	-	-

자료: IMF(2025.4월); UNDP(2025.4월); OECD(2025.3월).
주: 전 세계는 시장환율 적용 기준. 단, ( ) 안의 수치는 PPP 환율 기준.

〈그림 1-6〉 G20 경기선행지수와 OECD 산업생산 추이



자료: OECD.

〈표 1-2〉 세계 주요 권역별 및 국가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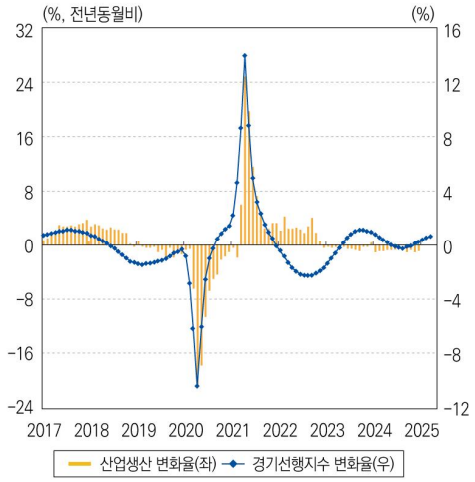
	경기선행지수[1](장기 추세=100)						전기비 변화율(%)						전년 동월비
	2023	2024				2025	2023	2024				2025	2025 3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G20개국	99.98	99.90	99.79	99.89	100.23	100.56	▲0.06	▲0.09	▲0.11	0.10	0.34	0.33	0.66
G7(선진권)	99.33	99.66	99.86	100.10	100.40	100.56	0.18	0.33	0.19	0.24	0.30	0.16	0.90
유럽 4개국[2]	99.48	99.77	100.06	100.22	100.30	100.60	0.28	0.30	0.29	0.16	0.08	0.30	0.83
아시아 5개국[2]	100.54	100.01	99.60	99.56	99.93	100.40	▲0.31	▲0.53	▲0.41	▲0.04	0.38	0.47	0.39
미국	99.22	99.62	99.74	100.05	100.55	100.68	0.19	0.40	0.12	0.31	0.51	0.12	1.06
독일	99.18	99.66	100.06	100.09	100.08	100.41	0.25	0.48	0.41	0.03	▲0.01	0.33	0.76
프랑스	99.38	99.39	99.22	99.32	99.72	100.26	0.12	0.01	▲0.16	0.10	0.39	0.55	0.88
영국	100.16	100.64	101.20	101.33	101.09	101.29	0.62	0.48	0.57	0.13	▲0.24	0.20	0.65
일본	99.99	100.06	100.16	100.06	99.87	99.78	▲0.11	0.07	0.10	▲0.10	▲0.19	▲0.09	▲0.27
브라질	101.18	101.81	102.11	102.21	101.71	101.43	0.92	0.63	0.31	0.10	▲0.50	▲0.28	▲0.38
중국	101.06	99.92	99.00	98.84	99.58	100.49	▲0.65	▲1.13	▲0.93	▲0.16	0.73	0.91	0.56
인도	99.82	100.06	100.23	100.28	100.21	100.10	0.18	0.24	0.18	0.04	▲0.06	▲0.12	0.04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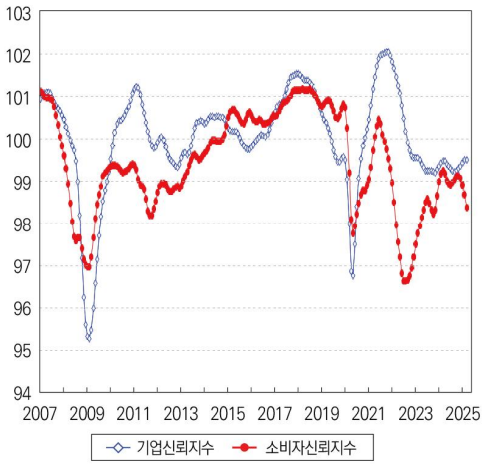
주: 1) 지수가 100 이상에서 상승(또는 하락) 시 경기 확장(또는 수축), 100 미만에서 상승(또는 하락) 시 경기 회복(또는 하강)을 의미.
2) 유럽 4개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아시아 5개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등.
3) ▲는 마이너스를 의미.

〈그림 1-7〉 세계 주요국의 경제지표 및 체감지표 추이(월별)

(a) G7(선진권)의 산업생산 및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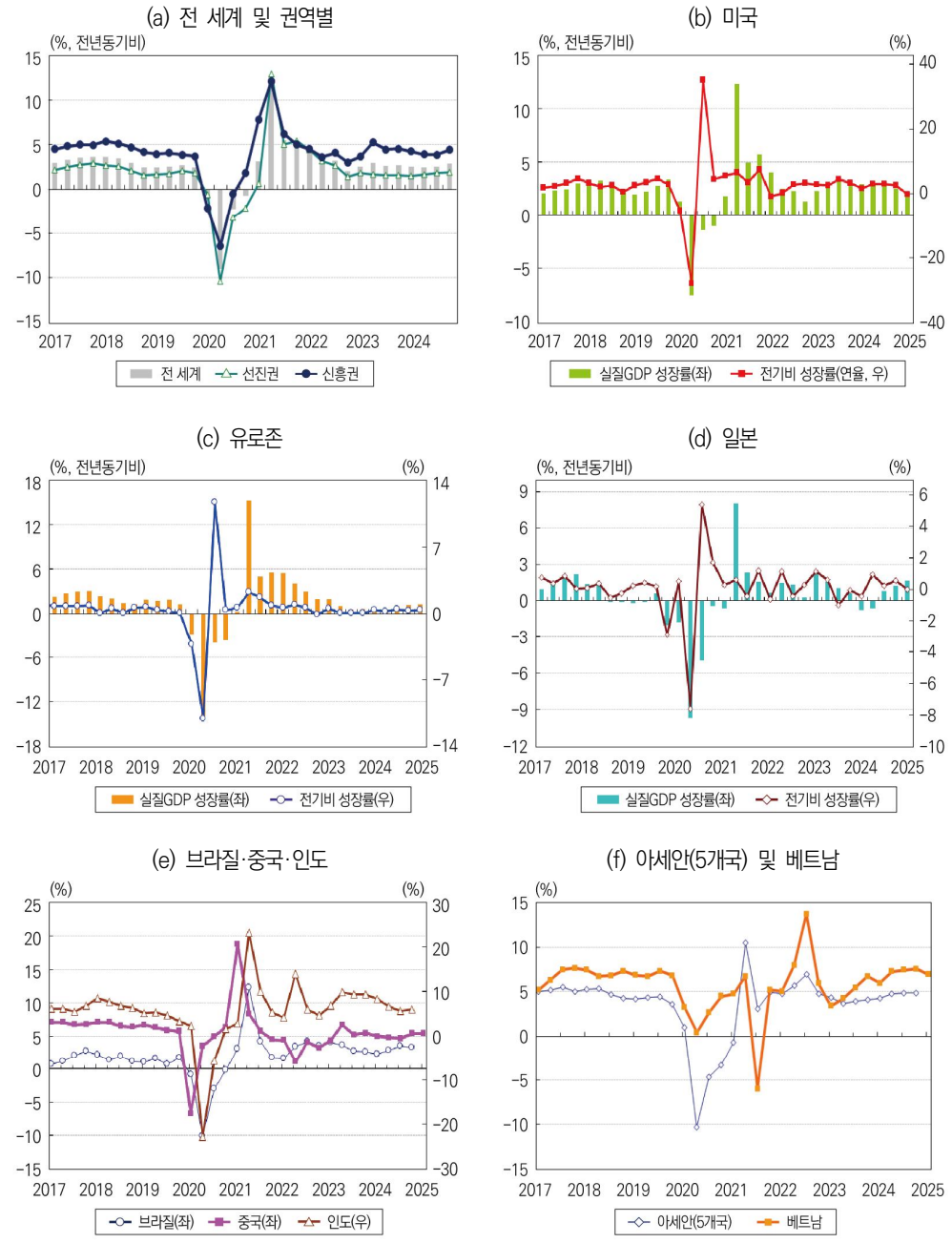


(b) OECD의 기업신뢰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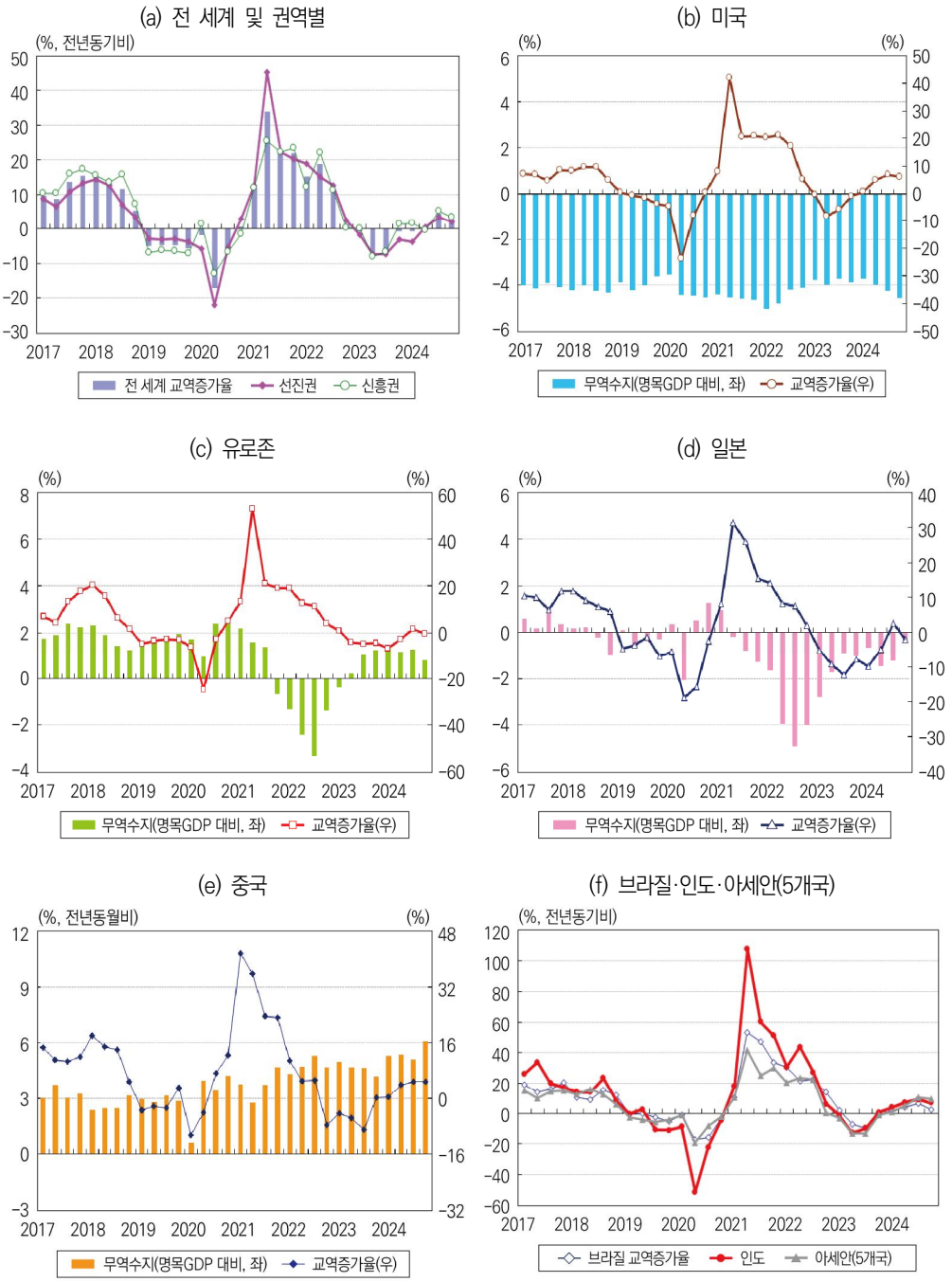
자료: OECD.

〈그림 1-8〉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실질GDP 성장률(분기별)



자료: World Bank GEM Database; OECD Data Explorer.

〈그림 1-9〉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교역지표(분기별)



자료: World Bank GEM Database.
주: 교역증가율은 통관기준 수출입 합계 기준.

〈그림 1-10〉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고용지표(분기별)

자료: World Bank GEM Database 등.
주: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2023년 이전과 2024년 이후(학생 제외) 기준이 다름.

(2) 유가: 배럴당 67달러 내외로 하락 예상

○ 2025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연초 OPEC+의 감산 연장, 재고 부족 등의 공급 제한 요인으로 상승한 이후에,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 및 산유국의 증산 발표 등으로 하락세 지속

- 연초 유가는 OPEC+의 감산 연장(1년),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 공급 축소 요인과 계절적 수요 증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 등 수요 확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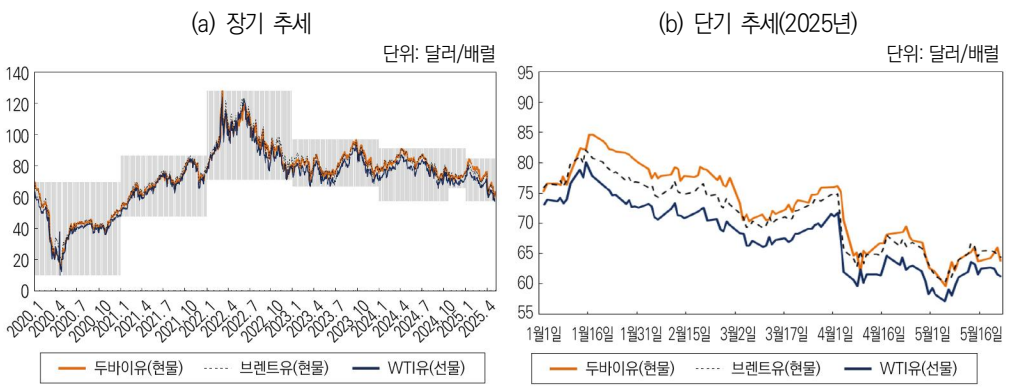
- 이후 미국의 대러(1.10일)·대이란(2.24일) 원유 제재에도 불구하고 산유국의 생산 증가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 러·우 휴전 협상 진전,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세로 전환

- 4월 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4.2일)로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OPEC+ 일부 국가의 조기 증산 발표(4.3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유가는 급락하여 4월 8일 기준 60달러 초반까지 하락

- 원유 공급 증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5월 5일 연중 최저치인 59.6달러를 기록하고, 이후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협상 진전에 따라 원유 수요 전망이 변화하면서 유가는 등락세

  · 미국의 관세 협상 개시(4.14일), 미·영 무역 협상 타결(5.7일), 미·중 무역 협상 타결(5.12일)

〈그림 1-11〉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주: 음영 부분은 연간 변동 범위(최솟값~최댓값)임.

○ 2025년 국제유가는 미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OPEC+ 산유국 중심의 원유 공급 확대 가능성에 따라 하향 안정화되면서 전년보다 상당폭 낮은 배럴당 67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

- 인도·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원유 수요의 감소세가 우려

- 미국·캐나다 등 비OPEC+ 산유국의 생산 확대와 OPEC+ 감산 완화 가능성 등 원유 공급 확대 요인도 유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 하반기에는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 및 산유국에 대한 제재 지속 여부, OPEC+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정책 등 불확실성이 유가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25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 평균 72.4달러(전년동기비 13.0% 하락), 하반기에는 62.2달러(전년동기비 18.2% 하락)로 예상하고, 연평균 67.3달러(전년 대비 15.5% 하락)로 전망

〈표 1-3〉 국제유가 전망(EIA 기준)

	2024					202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WTI유	81.8	76.4	70.7	71.9	76.6	60.9	58	57	56	61.8
브렌트유	84.7	80.0	74.7	75.8	80/6	65.0	62	61	60	65.9

〈표 1-4〉 2025년 국제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83.3 (5.3)	76.0 (-10.8)	79.6 (-3.0)	72.4 (-13.0)	62.2 (-18.2)	67.3 (-15.5)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5년 상반기는 5월 22일 현재 기준.

(3) 환율: 연평균 1,410원 내외로 상승 예상

○ 2025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지속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원화 약세 요인이 우세한 가운데 미 관세정책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4월 중순 이후 미국 무역 협상 진전 및 달러 약세 요인으로 하락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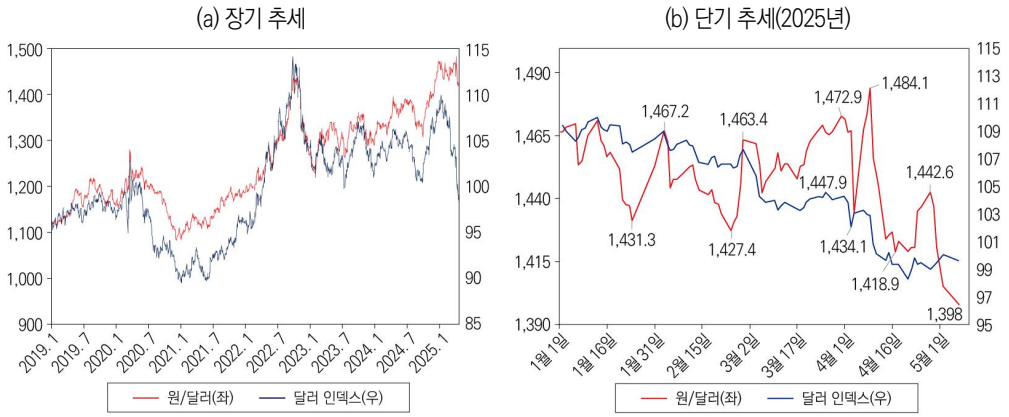
- 연초 환율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트럼프 랠리 등으로 고(高)수준에서 출발하였으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일시 하락

-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위험 기피 심리 확산,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미 정부의 관세 부과 발표 시점에 따라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

  • 미 정부의 주요 관세 부과 발표: 대중국 관세 발표(2.1일),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표(2.9일), 대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유예 및 대중국 추가 관세 인상(3.4일), '해방의 날' 관세 발표(4.2일), 보편관세 적용(4.5일), 보복관세 시행(4.9일)

  • 2025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 최고점: 1,484.1원(4.9일)

〈그림 1-12〉 원/달러,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ICE Data Services, 한국은행, Data Stream.

- 4월 초 헌법재판소의 판결(4.4일)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4월 중순 이후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 아시아 통화 강세 등 원화 강세 요인과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등에 의한 달러 약세 요인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 지속

○ 2025년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및 경기 둔화세 완화 등 원화 강세 요인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하락이 예상되나, 수출 부진 지속, 한·미 금리차 확대 가능성 등 원화 약세 요인과 미국의 달러 약세 모멘텀 둔화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수출 부진은 하반기에도 지속되겠으나, 6월 대선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및 경기 둔화세 완화는 하반기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다만,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가 약해진 상황에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시,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해외 자본유출 우려는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은 달러 약세 요인이나,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진전 등으로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어 하반기 달러 약세의 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

-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관세정책 방향과 주요국의 대응,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시기, 수출 회복 여부 및 국내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2025년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평균 1,440.5원(전년동기비 6.7% 상승), 하반기 1,385.0원(전년동기비 0.6% 상승), 연평균 1,412.8원(전년 대비 3.6% 상승) 내외로 예상

〈표 1-5〉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원/달러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350.2 (4.2)	1,376.8 (4.6)	1,363.5 (4.4)	1,440.5 (6.7)	1,385.0 (0.6)	1,412.8 (3.6)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5년 상반기는 5월 22일 현재 기준.

3. 2025년 국내 경제 전망

(1) 경제성장

○ 2025년 국내 경제는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데다, 신정부 출범과 추경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1% 내외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물가 및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신정부 출범과 경기 부양책 등 소비 여건의 개선으로 전년 수준의 증가율이 예상되며, 소비심리의 회복 속도와 소득 증가세 둔화 영향 등이 주요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

○ 설비투자는 국내외 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등의 영향에도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에 따른 반도체 업황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과 미분양 증가, 부진한 인허가·착공 실적 등의 여파로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부진이 지속될 전망

〈표 1-6〉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3	2024			2025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1.4	2.8	1.3	2.0	0.5	1.4	1.0
민간소비	1.8	1.0	1.3	1.1	0.7	1.3	1.0
설비투자	1.1	-1.8	5.1	1.6	3.6	0.2	1.8
건설투자	1.5	0.4	-6.1	-3.0	-7.6	-1.8	-4.7
통관 수출	6,322 (-7.5)	3,348 (9.1)	3,488 (7.2)	6,836 (8.1)	3,302 (-1.4)	3,404 (-2.4)	6,706 (-1.9)
통관 수입	6,426 (-12.1)	3,119 (-6.4)	3,199 (3.4)	6,318 (-1.7)	3,079 (-1.3)	3,104 (-3.0)	6,183 (-2.1)
무역수지	-104	229	289	518	223	301	524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5년 상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 수출(통관 기준)은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등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일부 수출을 견인하겠으나, 미·중 무역분쟁과 수출 경쟁 심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확대, 세계 교역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5년에는 대내외적으로 G2(미·중) 무역분쟁의 파급 효과와 무역 및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강화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이며, 특히 대내적으로는 소비 및 투자 등 경제 심리 개선 여부,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피해 정도 등도 추가 변수로 작용

- G2 무역 협상의 진전, 교역 환경의 개선, 신정부 출범과 적극적 경기부양책 등은 우리 경제의 상방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2)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 올해 들어 민간소비는 금리 인하기 진입과 소득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이 지속되면서 부진

- 민간소비는 2024년 4분기 전년동기비 1.2% 증가한 후, 2025년 1분기 전년동기비 0.5% 증가하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이고, 실질총소득(GNI)이 수입물가 하락과 교역조건 개선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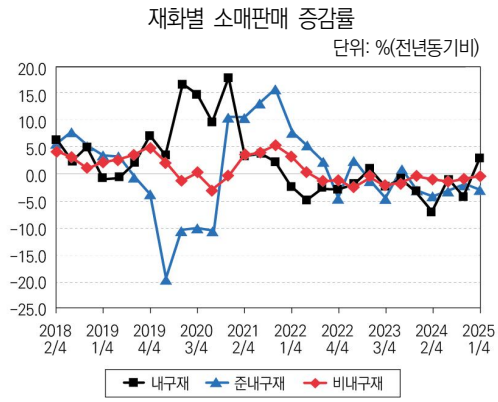
〈표 1-7〉 민간소비 관련 지표 증감률

단위: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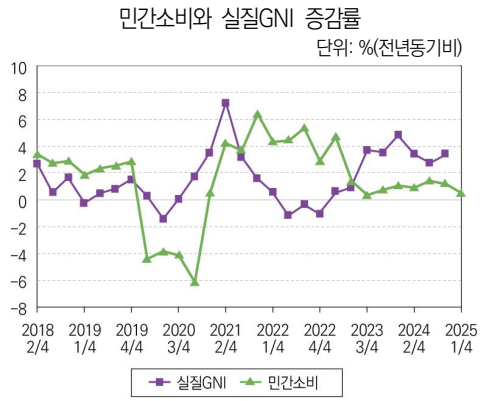
	2023	2024					2025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민간소비	1.8	1.0 (0.7)	0.9 (-0.2)	1.4 (0.5)	1.2 (0.2)	1.1	0.5 (-0.1)
소매판매액지수	-1.3	-1.6 (-2.2)	-3.1 (-0.3)	-1.5 (0.7)	-2.0 (-0.4)	-2.1	0.0 (0.7)
실질 GNI	2.2	4.8 (2.4)	3.4 (-1.4)	2.7 (1.4)	3.4 (1.3)	3.6	
평균소비성향	4.0	1.6 (2.6)	1.1 (-1.3)	-1.8 (-2.2)	-1.5 (-0.6)	-0.2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2) 평균소비성향(%)은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 1인 이상, 실질) 자료.
3)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그림 1-13〉 소비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자료: 한국은행.

- 소득교역조건은 수입물가의 낙폭 확대에도 불구 증가폭은 축소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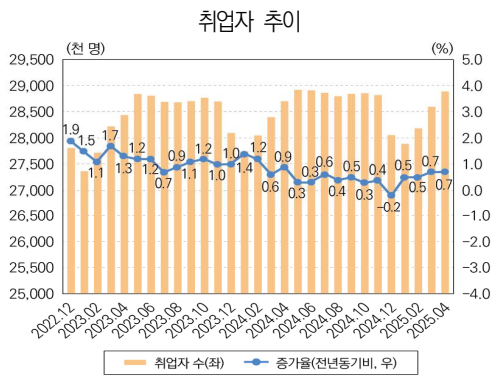
  • 수입물가 변화율(전년동기비, %, 달러 기준): (2024.3/4) -1.0 → (4/4) -3.1 → (2025.1/4) -4.2

  • 소득교역조건 변화율(전년동기비, %): (2024.3/4) 7.4 → (4/4) 8.1 → (2025.1/4)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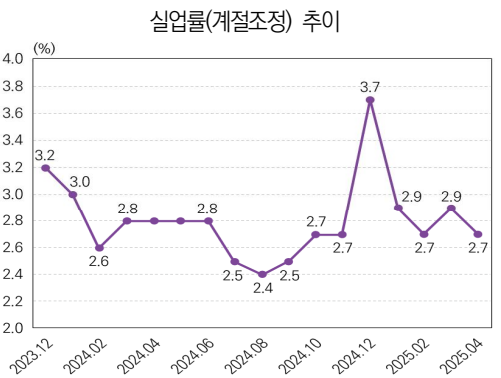
- 소매판매는 2025년 들어 내구재 판매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 전 산업 취업자 수는 올해 들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높은 상황이며, 실업률도 2% 후반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소폭 높은 수준 지속

〈그림 1-14〉 고용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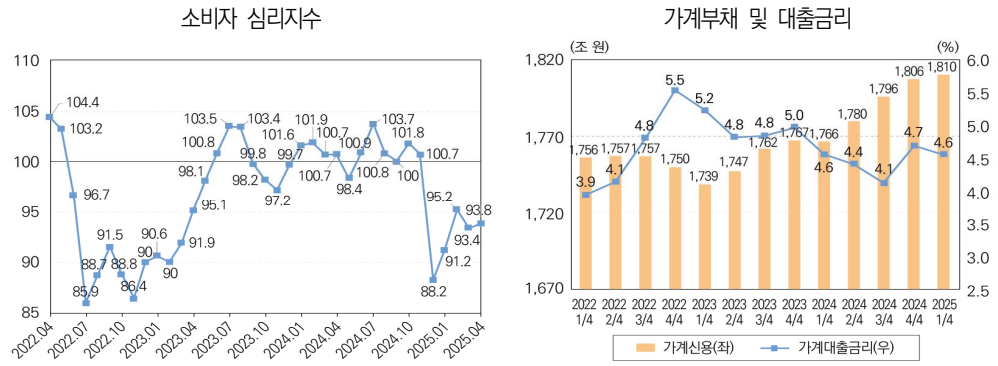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수는 2025년 1분기 기준 전년동기비 0.6% 증가한 15만 5,000명 수준(청년(15~29세) 취업자 수(-5.8%), 고령(60세 이상) 취업자 수(5.8%))

○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4년 12월(88.2)에 급락한 이후 2025년 1월에 반등하면서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100선을 하회하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가계대출금리는 4.6%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2.25일)로 인하여 2024년 4분기에 비해 0.1%포인트 하락

- 다만, 가계부채는 2024년 2분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는 모습

〈그림 1-15〉 소비자심리지수,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추이



자료: 통계청 소비자동향조사.

자료: 한국은행.

○ 2025년 민간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추가 금리 인하, 신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 등의 상방 요인에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체감 물가 상승, 소비심리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전년 수준의 증가세가 예상

-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과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이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3분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

〈표 1-8〉 민간소비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민간소비	1.0	1.3	1.1	0.7	1.3	1.0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5년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2) 설비투자

○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024년 3분기에 시작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 1분기에도 증가세가 유지

- 최근 수입 자본재 가격,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감소 전환하면서 전년동기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

〈표 1-9〉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2023	2024					2025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설비투자	1.1	-1.0 (-2.0)	-2.5 (-1.2)	5.9 (6.5)	4.5 (1.2)	1.6	4.2 (-2.1)
기계류	1.6	-0.8 (0.4)	-5.9 (-3.6)	5.9 (8.2)	7.1 (2.0)	1.5	-
운송장비	-1.0	-1.9 (-10.7)	10.5 (8.1)	5.8 (0.5)	-4.8 (-2.0)	2.3	-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5년 1분기는 속보치.
2) (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 설비투자지수(통계청)는 지난 1월에 일시 감소한 이후 2월에 다시 증가세를 회복하면서 2025년 1분기 증가세(5.5%)가 지난해(2.9%, 연간)보다 확대

-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계류는 2025년 3월에 일반기계류와 정밀기기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운송장비는 기타운송장비가 2월에 감소 전환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도 자동차가 2월과 3월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데 힘입어 1월부터 시작된 증가세를 유지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제조업 기계수주액은 2025년 1분기 소재부품(200.7%)이 급증하고, ICT(22.4%)와 기계장비류(64.8%)에서도 양호한 실적이 나타나면서 큰 폭으로 증가

- 설비투자 BSI는 3월부터 점차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치[1)]

〈표 1-10〉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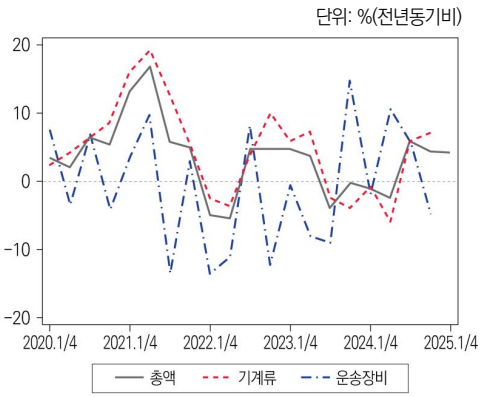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월	2월[1)]	3월[1)]
부문별	총지수	2.9	-1.4	-3.3	11.5	5.3	5.5	-6.7	8.0	14.1
	기계류	1.9	-1.4	-3.1	4.4	8.0	4.5	-10.9	8.3	16.0
	일반기계류	4.7	0.6	-5.7	11.2	14.6	8.3	-9.3	10.5	22.9
	전기 및 전자기기	-2.9	-0.1	5.7	-9.4	-6.4	-5.4	-16.1	-0.7	2.0
	정밀기기	1.0	-10.0	-4.9	7.9	11.6	9.6	-9.0	21.2	17.7
	기타기기	-4.4	-5.2	-3.8	-6.6	-1.8	-3.7	-11.0	-2.1	1.9
	운송장비	5.3	-0.1	-3.8	30.0	-1.8	8.3	8.5	6.9	9.2
	자동차	-6.6	-15.9	-13.9	13.5	-6.7	7.8	-5.6	14.1	11.8
	기타운송장비	31.3	45.7	22.4	62.5	7.7	6.2	40.3	-6.5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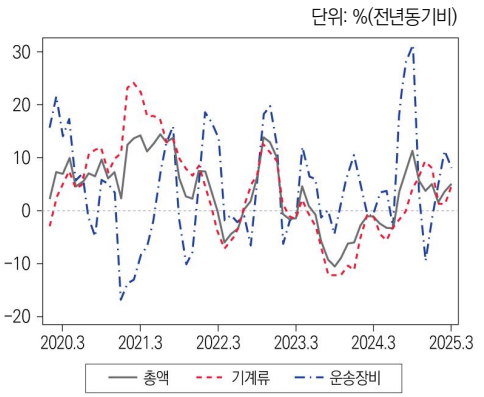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주: 1) 잠정치.

〈그림 1-16〉 설비투자 증감률 추이

(a) 설비투자(한국은행)



(b) 설비투자지수(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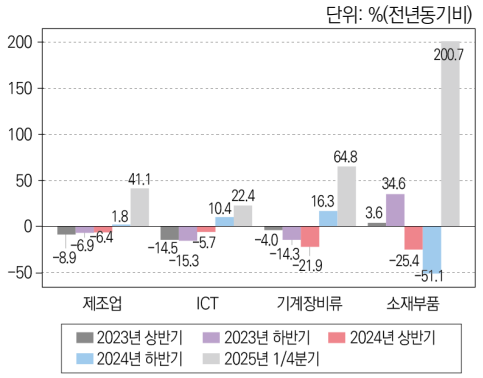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설비투자지수 증감률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25년 1분기 중 소재부품에서 석유정제(-6.3%p)와 1차금속(-7.2%p)에서 하락했지만, ICT(10.0%p)와 기계장비류에서 기타운송장비(15.9%p)가 상승함에 따라 전년동기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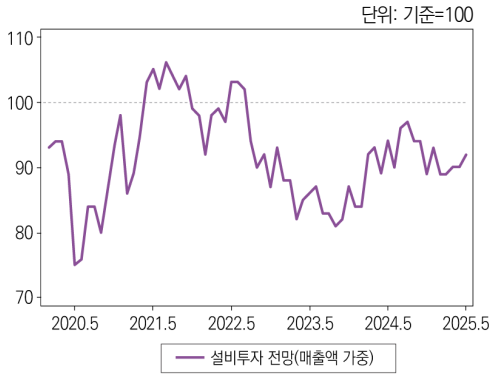
1) 2009년 1월~2019년 12월 기간 (매출액가중) 설비투자 BSI 평균은 96.2.

〈그림 1-17〉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a) 수요자별 기계수주액(선박 제외) 증감률



(b)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은 다음 달 전망치.

〈표 1-11〉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단위: %p

		2024					2025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월	2월[1]	3월[1]
제조업		3.5	4.8	4.4	1.9	3.1	1.8	-5.8	6.6	5.1
ICT		14.3	26.0	15.7	8.7	6.7	10.0	8.1	4.8	15.9
기계장비류	자동차	-2.8	-4.0	-0.8	-5.2	-1.2	1.0	-13.9	16.4	2.6
	기타운송장비	12.5	14.3	13.4	13.1	9.4	15.9	2.4	27.0	20.7
	일반기계	-0.1	-6.1	-1.2	2.1	5.1	0.9	-5.6	8.9	-0.1
소재부품	석유정제	1.9	3.9	0.7	6.9	-3.7	-6.3	-4.3	-5.2	-9.5
	화학제품	2.7	-2.0	4.4	3.9	4.3	0.0	-4.5	2.7	2.0
	1차금속	-2.6	0.6	-6.2	-3.2	-1.8	-7.2	-10.9	-5.5	-4.9
	섬유제품	-1.5	-6.8	0.4	-3.9	4.4	1.1	-6.0	9.9	0.4

자료: 통계청.
주: 1) 잠정치.
2)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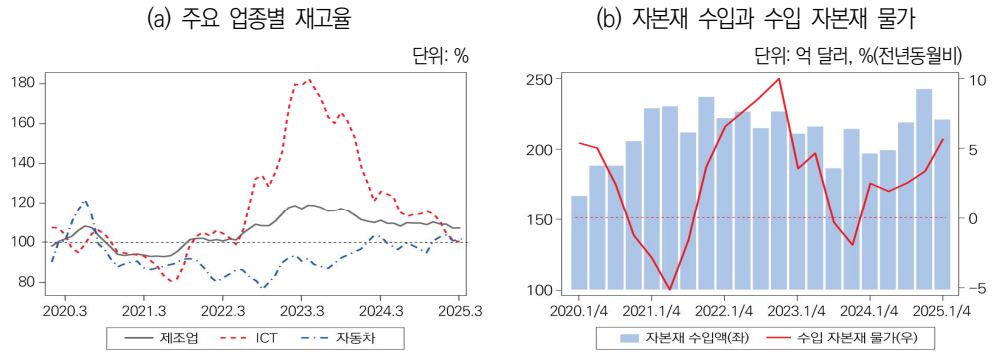
○ 제조업 재고율은 올해 1월 반도체 등 ICT 업종의 재고율이 반등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3월에 ICT 업종 재고율이 다시 크게 하락하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

- 제조업 재고율(전년동기비, %): (2024.12월) 103.5 → (2025.1월) 110.5 → (3월) 103.9
- ICT업종 재고율(전년동기비, %): (2024.12월) 85.4 → (2025.1월) 108.6 → (3월) 83.8

○ 수입 자본재 가격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등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2025년 3월 117.0)를 기록하고, 2025년 1분기 자본재 수입액은 2024년 하반기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12.1%)

- 수입 자본재 물가 증감률(전년동기비, %): (2025.1월) 5.1 → (2월) 5.2 → (3월) 6.9
- 자본재 수입액 증감률(전년동기비, %): (2025.1월) 0.5→ (2월) 10.9 → (3월) 25.2

〈그림 1-18〉 제조업 재고율과 자본재 수입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1) 재고율 =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2) 재고율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자본재 수입액은 달러 기준, 수입 자본재 물가는 원화 기준.

○ 2025년 설비투자는 수입 자본재 가격의 상승, 주요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의 영향에도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에 따른 반도체 업황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년과 비슷한 증가율이 예상[2)]

〈표 1-12〉 설비투자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설비투자	-1.8	5.1	1.6	3.6	0.2	1.8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5년 상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2) 주요 기업들의 2025년 1분기 콘퍼런스 콜에서의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언급.
- SK하이닉스: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중하지만 유연한 투자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고, 올해 전체 투자비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는 기존 투자 방향성을 유지할 계획".
- 삼성전자: "2025년 1분기 시설투자는 전 분기보다 5.8조 감소한 12조 원이고, 2분기에는 AI 서버향 수요 견조세와 함께 상호관세 유예에 따른 선행 구매 동향이 관측".

3) 건설투자

○ 건설투자는 누적된 선행지표 부진,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부실 등의 영향으로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지난해(-3.0%, 연간)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으로, 2025년 1분기 감소폭(-12.2%)은 1997~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

- 형태별로 보면, 토목건설은 2024년 4분기에 시작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건물건설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동반 부진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

- 건설기성액은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의 감소세가 확대됨에 따라 2025년 1분기에 전년동기비 20.7% 감소

  · 건설기성액(불변, 전년동기비, %): (2024.3/4) -9.1 → (4/4) -9.7 → (2025.1/4) -20.7

  * 건물건설(불변, 전년동기비, %): (2024.3/4) -12.1 → (4/4) -10.7 → (2025.1/4) -22.8

  * 토목건설(불변, 전년동기비, %): (2024.3/4) 1.7 → (4/4) -6.8 → (2025.1/4)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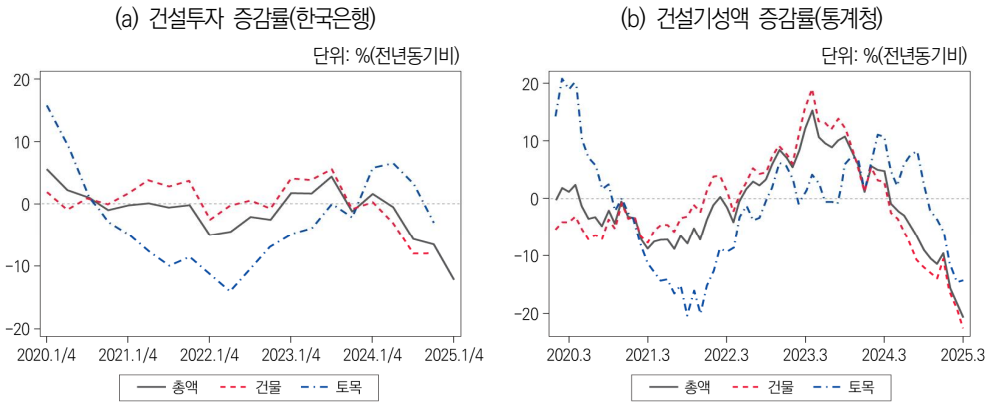
〈표 1-13〉 건설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2023	2024					2025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건설투자		1.5	1.6 (3.3)	-0.5 (-1.7)	-5.7 (-3.6)	-6.6 (-4.5)	-3.0	-12.2 (-3.2)
형태별	건물건설	3.1	0.2 (1.9)	-3.0 (-1.4)	-8.1 (-4.6)	-8.0 (-3.8)	-5.0	
	주거용 건물	4.4	-1.0 (3.0)	-4.8 (-1.0)	-8.8 (-5.6)	-11.2 (-7.4)	-6.6	
	비주거용 건물	1.8	1.5 (0.9)	-1.3 (-1.7)	-7.3 (-3.6)	-5.2 (-0.5)	-3.4	
	토목건설	-2.8	5.7 (7.5)	6.5 (-2.7)	3.3 (-0.8)	-3.0 (-6.2)	2.9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5년 1분기는 잠정치.
2) (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그림 1-19〉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건설기성액(불변)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 건물건설 허가 면적은 2024년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인 주거용과 공업용이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2025년 1분기에 큰 폭 감소(-23.4%)하고, 착공 면적도 2024년에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인 주거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감소(-69.0%)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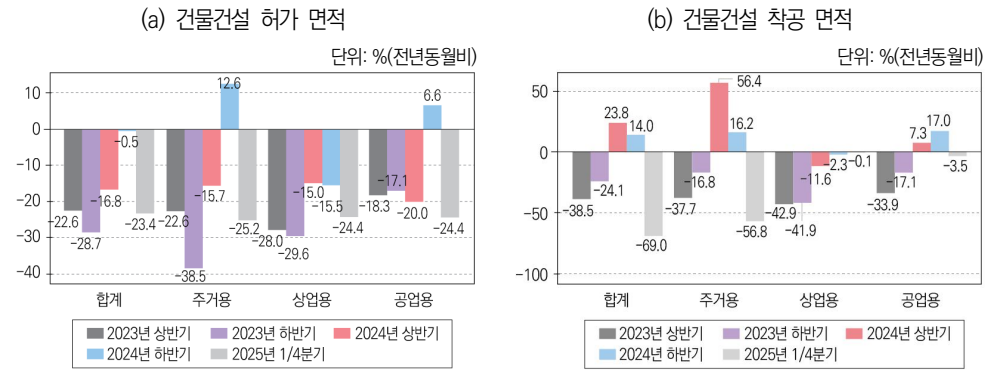
- 수도권 중심의 미분양 주택 증가는 향후 건물건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전국 미분양 주택 수(호, 전년동기비, %): (2025.1월) 13.9 → (2월) 8.0 → (3월) 6.1

* 수도권(호, 전년동기비, %): (2025.1월) 94.4 → (2월) 47.2 → (3월) 38.0

* 지방(호, 전년동기비, %): (2025.1월) 13.6 → (2월) 8.1 → (3월) 6.2

〈그림 1-20〉 건물건설 인허가 및 착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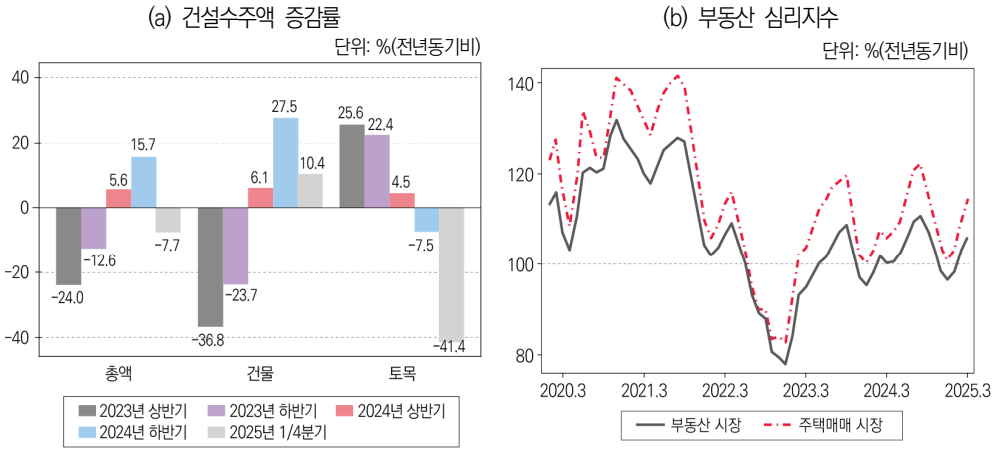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2025년 1분기에 토목건설이 큰 폭 감소하면서 전체 기준으로 감소 전환

- 다만, 2024년에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인 건설수주액과 최근의 부동산 심리지수 반등세는 하반기 건설투자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

〈그림 1-21〉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국토연구원.

○ 2025년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관련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 미분양 증가, 부진한 인허가·착공 실적 등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단,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건설경기 보강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약 8,000억 원 증액한 것은 향후 건설투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표 1-14〉 건설투자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0.4	-6.1	-3.0	-7.6	-1.8	-4.7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4) 수출입(통관 기준)

□ 2025년 초 동향: 수출 둔화세, 무역수지는 흑자 지속

○ 수출은 미국·중국 등 주요국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속에 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 관련 품목의 수출 감소 등 영향으로 2025년 들어서 둔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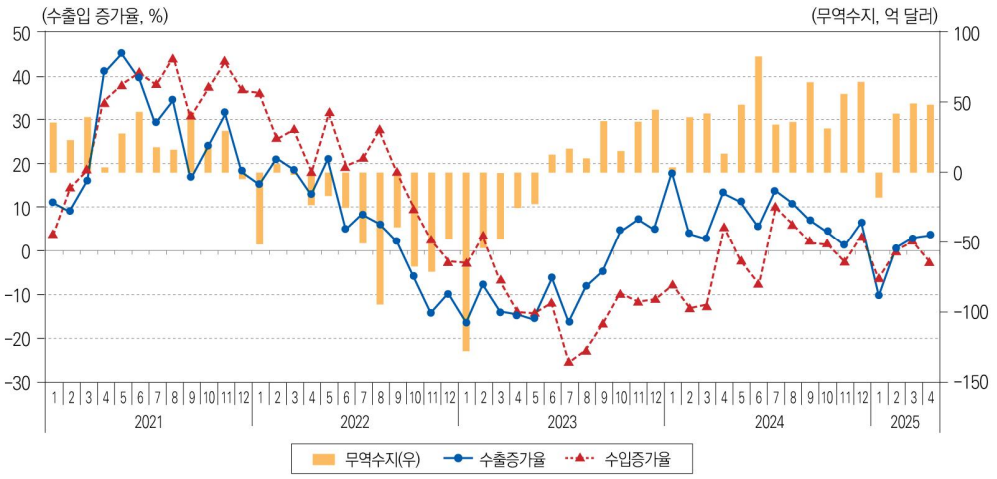
-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일반기계 등의 부진으로 1분기 수출은 2023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감소

- 수입은 원유,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수출 둔화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

  • 수출(전년동기비, %): (2023) -7.5 → (2024) 8.1, (2024.4/4) 4.2 → (2025.1/4) -2.2 → (4월) 3.7

  • 수입(전년동기비, %): (2023) -12.1 → (2024) -1.7, (2024.4/4) 0.9 → (2025.1/4) -1.4 → (4월) -2.7

〈그림 1-22〉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무역협회.

○ 수출금액을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물량 증가보다는 단가 약세가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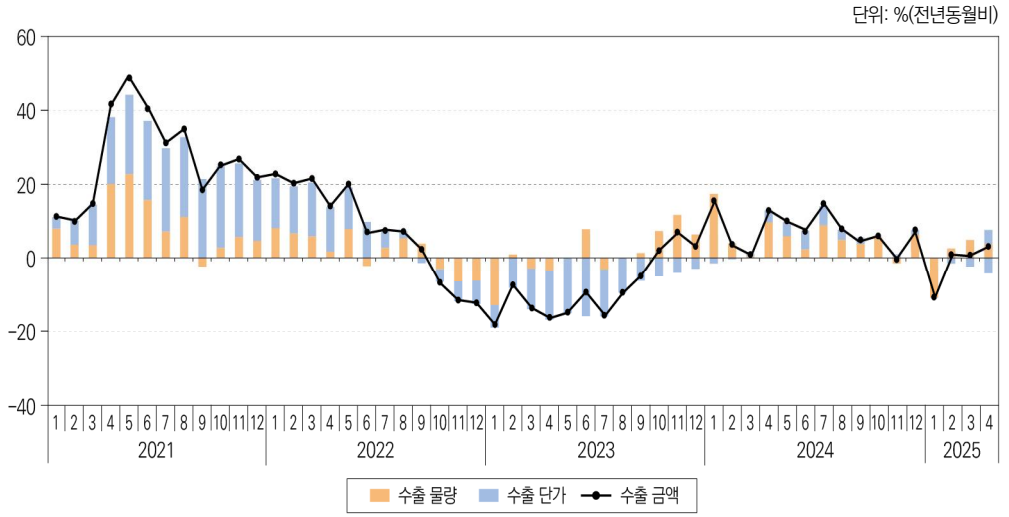
- 수출 물량이 1분기에 1.5% 감소한 것은 1월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전년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2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수출단가는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의 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2024.1분기 이후 4분기 만에 감소

・수출 물량(전년동기비, %): (2023) 1.0 → (2024) 5.5, (2024.4/4) 3.6 → (2025.1/4) -1.5 → (4월) 7.7

・수출 단가(전년동기비, %): (2023) -9.3 → (2024) 1.8, (2024.4/4) 0.8 → (2025.1/4) -1.4 → (4월) -4.2

・무역수지(억 달러): (2024.1/4) 85 → (2/4) 145 → (3/4) 136 → (4/4) 152 → (2025.1/4) 71

〈그림 1-23〉 수출 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수출단가지수는 수출금액지수를 수출물량지수로 나누어 산정.

○ 지역별 수출을 보면, 아세안(ASEAN)과 EU를 제외하고 다수 지역에 대한 수출이 감소

- 대미국 수출은 신공장 가동에 따른 전기차 수출 감소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자동차 수출이 부진한 모습이며, 일반기계도 수요 위축과 상호관세(최대 10%) 영향으로 감소

* (자동차) 2024년 대세계 수출(708억 달러) 대비 미국(347억 달러)의 비중은 49%이며, 이는 대미국 전체 수출(1,278억 달러)의 27%에 해당

* (일반기계) 2024년 대세계 수출(512억 달러) 대비 미국(151억 달러)의 비중은 29%이며, 이는 대미국 전체 수출에서 약 12%를 차지

- 대중국 수출은 글로벌 수요 부진 속에서 중국 내 반도체 분야의 경쟁 심화와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수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4월 들어 반도체가 반등하고,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은 두 자릿수의 수출 호조

  * 중국이 추진 중인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의 효과로 한국산 스마트폰, PC 등의 전방 IT 수요가 증가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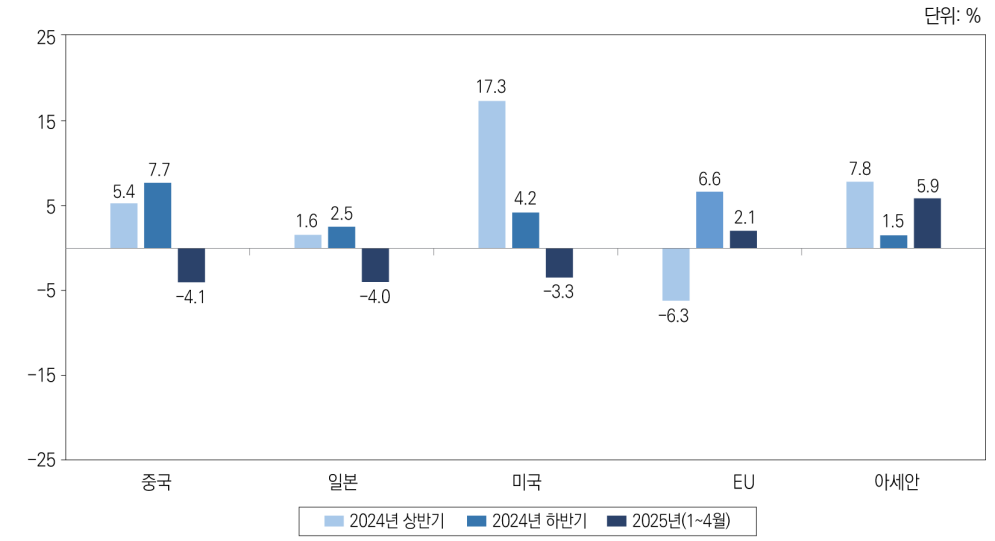
- 1~4월 누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410억 달러)이 중국(397억 달러)을 상회하는 모습이나, 4월 기준으로 대미국 수출이 전년동월비 6.8% 감소한 것과 달리 대중국 수출은 3.9% 증가하면서 국가별 수출 1위가 중국으로 전환

- 대EU 수출은 1~4월 누계로는 2.1% 증가에 그친 반면, 4월 기준으로 18.4% 증가

  * 테슬라 불매 운동의 여파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바이오시밀러 진출 확대에 힘입어 바이오헬스 수출도 크게 증가

-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인 반면에, 대일본 수출은 석유제품과 철강 등의 부진으로 감소

〈그림 1-24〉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무역협회.

〈표 1-15〉 산업별 수출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자동차	31.1	-0.1	-3.2	-4.9	-5.3	-1.4	-19.6	17.7	1.0	-3.8
자동차부품	-1.6	-1.8	-2.6	0.8	5.6	-8.3	-17.4	-4.2	-3.6	3.6
선박류	19.9	17.6	35.2	-4.3	-15.6	13.3	-2.2	-10.5	51.4	17.3
일반기계	4.6	-4.2	-0.4	-11.7	-7.4	-12.4	-21.4	-12.2	-3.4	-6.1
철강	-8.5	-5.4	-4.0	4.2	2.9	-6.8	-4.9	-4.2	-10.8	5.4
석유화학	-15.9	5.0	7.5	2.0	1.9	-7.1	-11.1	-0.4	-9.7	-11.8
석유제품	-17.3	-3.2	-3.0	-22.2	-11.6	-23.4	-28.2	-12.5	-28.7	-14.3
섬유	-11.3	-4.0	-4.1	-2.3	-4.4	-8.0	-16.0	-1.6	-6.0	-3.4
가전	-1.0	0.4	-3.6	-2.0	3.7	-9.7	-17.3	-4.3	-7.6	-4.6
무선통신기기	-10.2	11.1	36.5	9.9	16.0	8.0	-9.4	26.5	11.8	26.5
컴퓨터	-53.3	76.7	118.9	98.6	118.1	25.9	14.8	28.5	33.1	-15.3
반도체	-23.7	43.9	41.4	34.0	31.5	6.0	8.1	-3.0	11.9	17.2
디스플레이	-12.1	0.9	-2.4	-17.1	-3.3	-6.0	-16.0	-5.8	2.9	-7.6

자료: 무역협회.

〈표 1-16〉 가공 단계별 수입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2024			2025(1~4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수입	6,318	-1.7	100.0	2,059	-1.8	100.0
1차 산품	1,402	-4.2	22.2	427	-12.0	20.7
(원유)	853	-1.0	13.5	258	-13.0	12.5
중간재	3,213	-1.7	50.9	1,056	-0.9	51.3
자본재	858	3.6	13.6	299	12.8	14.5
소비재	817	-2.6	12.9	268	-1.2	13.0

자료: 무역협회.

○ 품목별로는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 수출이 양호한 실적을 보인 반면, 석유제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가전 등은 감소

- 반도체는 AI 수요 확대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수출 증가폭이 전년보다 축소
-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둔화되고,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완성차 생산량 축소 영향으로 부품 수요가 줄며 감소
- 석유화학은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의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출 실적이 부진하고, 석유제품도 유가 하락에 따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두 자릿수 감소율 지속
- 일반기계는 글로벌 제조업 수요가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지연되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철강은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단가 회복 지연으로 수출이 다소 부진
- 가전은 미국 내 소비 둔화와 가격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으로 대미국 수출이 감소하고,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감소 지속

○ 수입은 전년의 기저효과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의 증가에 힘입어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1차 산품 수입 감소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1.8% 감소

- 한편, 미국과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중간재 수입이 소폭 감소하였고, 내수 부진으로 인해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되면서 소비재 수입 역시 감소

□ 2025년 전망: 수출 -1.9%, 수입 -2.1%, 무역수지 524억 달러 전망

○ 수출(통관 기준)은 AI 관련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기, 조선, 바이오·헬스 등의 일부 견인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분쟁 및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 세계 교역 감소 등에 따라 감소 전환 예상

-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에서 미국 관세 및 미국 시장 수요 위축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과 공급과잉 등으로 석유화학·제품 등이 부진
- 지역별로는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2024년에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경신한 대미국 수출 부진이 두드러질 전망

- 유가는 세계 수요 둔화 우려로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되어 석유화학 부문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환율은 전년 대비 상승하면서 수출에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물량 측면에서는 미국발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확대로 세계 교역이 감소하며 둔화 예상

○ 수입은 환율의 전년 대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에 따른 1차 산품 수입 감소와 수출 부진에 따른 중간재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감소폭 확대 예상

- 전년 대비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하여 수입 물가는 하락하겠으나, 수출 업황 부진에 따라 중간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물량 요인에 기인한 수입 감소가 예상

○ 2025년 무역수지는 2024년보다 소폭 확대된 52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표 1-17〉 수출입 전망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비)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통관 기준 수출	6,322 (-7.5)	3,349 (9.1)	3,488 (7.3)	6,837 (8.1)	3,302 (-1.4)	3,404 (-2.4)	6,706 (-1.9)
통관 기준 수입	6,426 (-12.1)	3,121 (-6.3)	3,200 (3.5)	6,321 (-1.6)	3,079 (-1.3)	3,104 (-3.0)	6,183 (-2.1)
무역수지	-104	228	288	516	223	301	524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연구원.
주: 2025년 상반기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참고 1〉 한국의 대미국 수출구조 분석: 부가가치 수출 기준

□ 대미국 부가가치 수출 경유국,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국과 맞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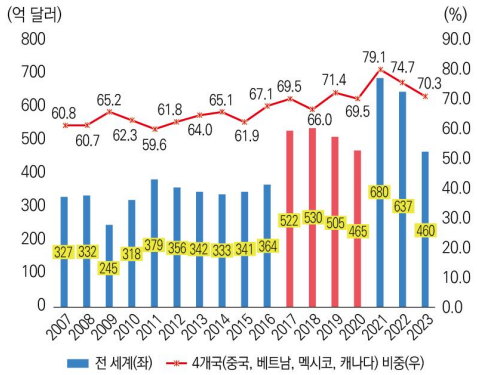
○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미국 부가가치 수출은 46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07년 327억 달러에서 2021년 680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후 다소 축소

- 부가가치 수출 규모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 큰 폭 증가한 데 이어, 바이든 행정부 첫해인 2021년에는 직접 수출 증가와 함께 더 큰 폭으로 증가

○ 2023년 현재 한국의 대미국 부가가치 수출에서 경유국 비중은 멕시코가 가장 높고 중국, 베트남, 캐나다 순이었으며, 이들 상위 4개국 비중이 70.3%를 차지

- 2007년과 비교 시 멕시코, 중국, 캐나다가 꾸준히 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베트남이 2007년 1.2% → 2023년 19.7%로 18.5%포인트나 급상승

한국의 대미국 부가가치 수출 규모



상위 경유국(중국·베트남·멕시코·캐나다)의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2007				2023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중국	10,880	33.2	1	멕시코	11,740	25.5
2	멕시코	7,249	22.1	2	중국	9,464	20.6
3	일본	1,724	5.3	3	베트남	9,057	19.7
4	캐나다	1,385	4.2	4	캐나다	2,090	4.5
5	대만	1,277	3.9	5	싱가포르	2,020	4.4
6	말레이시아	750	2.3	6	대만	1,764	3.8
7	독일	572	1.7	7	일본	1,525	3.3
8	베트남	398	1.2	8	독일	982	2.1
9	인도네시아	361	1.1	9	인도	643	1.4
10	싱가포르	332	1.0	10	아일랜드	485	1.1
상위 4개국 비중			64.9	상위 4개국 비중			70.3

자료: ADB MRIO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1) 우회 수출 규모(제조업+서비스업), 2) 붉은색 막대그래프는 트럼프 1기 행정부(2017.1.20.~2021.1.20)를 표시.

○ 2007~2023년 한국의 대미국 부가가치 수출에서 상위 4개 경유국(멕시코·중국·베트남·캐나다)의 비중 변화를 보면, 멕시코가 1위로 올라선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하락세

- **(멕시코)** 2007년 중국에 이은 2위로 2009년 29.1%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 하락하고, USMCA 발효(2020년)로 자동차 등 미국의 대멕시코 품목 관세율이 낮아진 2020년부터 재차 상승하면서 2023년 현재 25.5%로 1위 차지

- **(중국)** 2007년에 3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첫해인 2017년 34.0%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8년 미·중 무역분쟁 개시 후 대중국 제재가 강화되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2023년 현재 20.5%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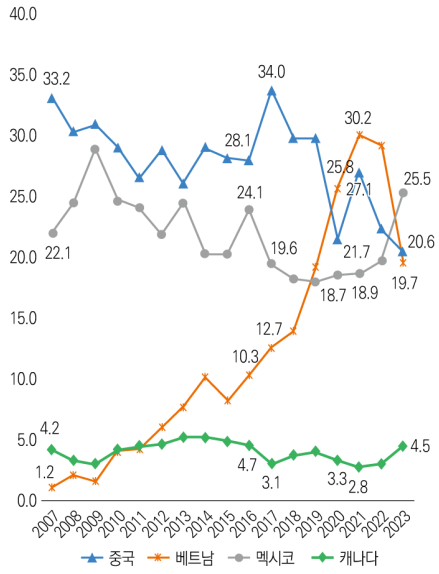
- **(베트남)** 2007년 1.2%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30.2%까지 상승하여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중국 경유 한국의 대미국 부가가치 수출이 정점을 기록한 2021년부터 미국이 대중국 및 베트남 제재를 순차적으로 강화하면서 2023년 19.7%까지 하락

○ 산업별로는 2023년 현재 '전기장비 및 광학장비'가 절반 이상(55.3%)인 약 235억 달러를 기록하고, 이어서 운송장비(71억 달러, 16.7%), 기타 제조업(28억 달러, 6.5%), 섬유제품(27억 달러, 6.5%), 기타 기계 및 장비(26억 달러, 6.1%)의 순서

- 2007년과 비교해 보면, 전기장비 및 광학장비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운송장비, 기타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등은 상승한 반면, 섬유제품은 하락

대미국 부가가치 수출 상위 4개 경유국의 비중

단위: %



한국의 대미국 부가가치 수출의 산업별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2007		2023		증감액 ('23-'07)	증감률 ('23-'0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업, 어업 및 임업	103	0.3	214	0.5	112	108.9
광업	51	0.2	1	0.0	-51	-98.5
식음료품/담배	355	1.1	904	2.1	549	154.7
섬유제품	4,367	13.7	2,743	6.5	1,624	-37.2
가죽 및 신발	718	2.3	796	1.9	78	10.8
목재 및 나무제품	32	0.1	23	0.1	-9	-28.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77	0.2	62	0.1	-15	-19.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169	0.5	232	0.5	63	37.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476	1.5	865	2.0	389	81.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355	1.1	123	0.3	-232	-65.4
비금속 광물제품	48	0.2	65	0.2	17	35.5
1차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374	1.2	456	1.1	81	21.7
기타 기계 및 장비	1,665	5.2	2,611	6.1	945	56.8
전기장비 및 광학장비	18,637	58.7	23,494	55.3	4,857	26.1
운송장비	2,748	8.6	7,105	16.7	4,357	158.6
기타 제조업	1,600	5.0	2,777	6.5	1,177	73.6
합계	31,776	100.0	42,471	100.0	10,695	33.7
제조업 비중	97		92		-4.7	-4.9

자료: ADB MRIO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표에서 합계는 ADB MRIO의 국가별 35개 산업 중 서비스업을 제외한 16개 제조업만의 합 .

○ 2007~2023년 기간 중 국별-산업별로 보면, 멕시코, 중국, 베트남에서 전기장비 및 광학장비 비중이 가장 높고, 캐나다는 운송장비 비중이 가장 높음.

- **(멕시코)** 전기장비 및 광학장비 비중이 가장 높고, 운송장비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
- **(중국)** 전기장비 및 광학장비 비중이 다소 줄어들고, 기타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
- **(베트남)** 2007년에 전무하다시피한 전기장비 및 광학장비 비중이 지속 확대되면서 2023년 현재 4개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캐나다)** 운송장비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

한국의 대미국 부가가치 수출 기준 상위 4개 경유국별-산업별 변화

단위: 백만 달러, %

	멕시코			중국			베트남			캐나다		
	2007	2023	증감 ('23-'07)	2007	2023	증감 ('23-'07)	2007	2023	증감 ('23-'07)	2007	2023	증감 ('23-'07)
농업, 어업 및 임업	14	109	95	4	2	-2	4	232	19	9	20	11
광업	11	0	-11	4	0	-4	0	0	-0	29	1	-28
식음료품/담배	17	96	79	48	31	-17	31	85	54	27	107	80
섬유제품	145	158	14	1,048	538	-510	282	1,112	829	51	52	-19
가죽 및 신발	4	18	14	514	131	-382	60	508	447	3	5	2
목재 및 나무제품	0	0	0	12	13	1	0	3	3	0	0	-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	9	6	4	24	20	0	2	2	4	4	-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4	11	6	3	1	-2	0	0	-0	12	33	2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0	250	240	133	135	2	1	1	1	40	71	3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15	39	24	186	36	-150	1	9	8	63	13	-51
비금속 광물제품	0	4	3	28	41	13	1	6	4	0	0	-0
1차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11	89	78	111	117	6	2	12	10	17	28	11
기타 기계 및 장비	122	417	295	670	870	200	0	97	96	92	270	178
전기장비 및 광학장비	5,908	6,146	238	7,255	6,101	-1,154	7	6,559	6,551	252	231	-21
운송장비	726	4,026	3,301	122	110	-12	0	101	101	524	1,019	494
기타 제조업	243	347	104	647	1,146	499	7	528	521	113	116	3
합계	7,232	11,719	4,486	10,790	9,297	-1,494	397	9,044	8,646	1,236	1,949	713
제조업 비중	99.8	99.8	0.0	99.2	98.2	-0.9	99.8	99.9	0.0	89.3	93.3	4.0

자료: ADB MRIO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표에서 합계는 ADB MRIO의 국가별 35개 산업 중 서비스업을 제외한 16개 제조업만의 합.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상위 국가 및 품목에 상응하여 국별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정책을 시행 중

○ 그 주요 대상이 한국의 대미국 부가가치 수출 경유국 및 주요 수출 품목(2023년 기준) 등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

- 한국은 완제품의 대미국 직접 수출 외에도 부가가치 수출마저 트럼프 관세정책 영향권
- 문제는 상호관세율이 높고 미국과의 무역분쟁 및 우회 수출 의심 국가로 규제 강화 대상인 중국, 베트남 등이 한국의 대미국 부가가치 수출 상위 경유국이라는 점
- 비록 이들 국가를 경유한 대미국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최근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

○ 트럼프 1기 때도 중국 등이 미국과의 무역분쟁 및 규제로 인해 한국의 대미국 부가가치 수출의 경유국 비중이 축소됐다는 점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할 필요

- 그럼에도 구조적으로는 대미국 부가가치 수출의 상위 경유국이 여전히 특정 국가들에 집중돼 있어 부가가치 수출의 거점 다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둘 필요

○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분쟁이 상수화되고 있고, 세계 주요 기관들의 글로벌 경기 침체 경고도 잇따르고 있어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를 가진 한국이 글로벌 통상 변화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욱 정교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판단

〈참고 2〉 한국의 대미국 수출구조 분석 : 직접 수출 기준[3)]

□ 수출 확대에 힘입어 최근 4년간 대미국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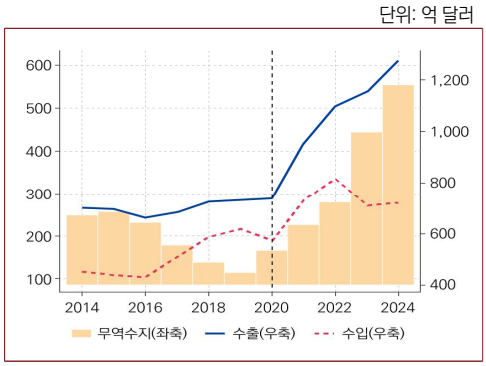
○ 2021년과 2022년에는 중간재가, 2023년과 2024년에는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기여

- 대미국 무역수지는 2015년 258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2020년에는 166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에는 280억 달러, 2024년에는 560억 달러까지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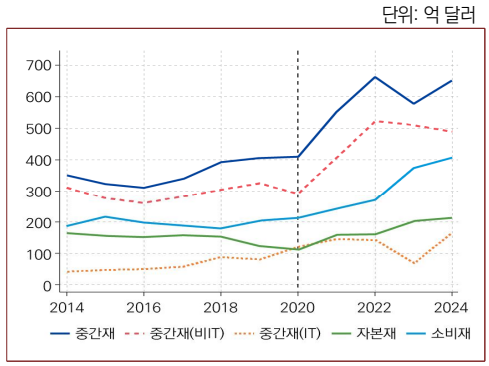
- 수입이 소폭 감소하고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미국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확대

  * 대미국 총수출(억 달러): (2020) 741 → (2022) 1,098 → (2024) 1,278

대미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대미국 재별 수출 추이



자료: 관세청.

주: UN의 BEC(Broad Economic Categorie) 분류 적용, IT는 산업부 MTI 기준 반도체(831)와 컴퓨터(813).

□ 최근 미국 제조업의 한국산 제품, 특히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4)]

○ 미국의 한국산 중간재·자본재에 대한 생산탄력성이 상승해 왔으며, 특히 자본재에서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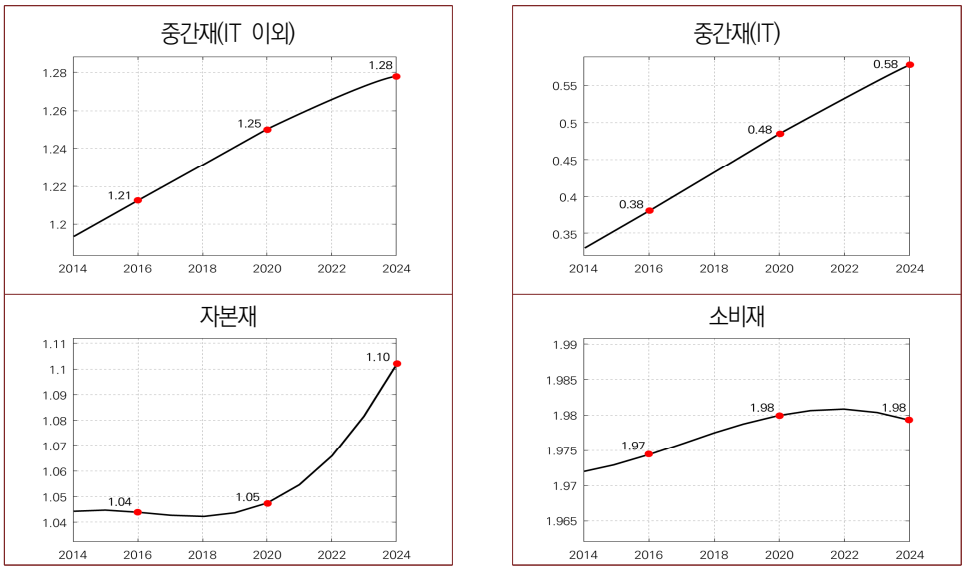
- 생산탄력성을 2016년과 비교할 때 중간재(IT 이외)가 1.21에서 1.28로, 중간재(IT)는 0.38에서 0.58로 상당폭 상승하고 자본재도 최근 들어 급격히 상승하면서 2020년 1.05에서 4년 만인 2024년에 1.10까지 도달

3) 산업연구원(2025. 4), "한국 대미 수출의 구조적 분석",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81호 참고.

- 우리 자본재와 중간재에 대한 미국 제조업의 생산탄력성 상승은 미국 제조업 생산과 한국의 중간재·자본재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

- 다만, 소비재는 2020년까지 소폭 상승한 뒤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동 기간 자동차 수출의 급증은 미국의 소득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시간변동 생산(소비재는 소득)탄력성 추정치



주: 분기 탄력성의 연평균.

□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한국의 대미국 직접투자 확대로 미국의 한국산 수입 의존도 확대

○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를 본격화한 2015년경부터 주요 중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한국으로 이전되면서 미국의 한국산 수입이 큰 폭 증가하고 중국산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

* 미국의 대중국 수입 추이(USITC, 억 달러): (2015) 5,040 → (2019) 4,725 → (2024) 4,626

○ 우리의 대미국 그린필드 투자 금액은 2014년 4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24년 누적 1,3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대

- 미국 진출 한국 기업 누적 수도 2014년 1만 1,101개사에서 2023년 1만 5,876개사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1기 정부(2017년)의 보호무역 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등 보조금 중심의 투자 유인 정책에 따라 기업들의 미국 현지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

○ 최근 우리 기업의 대미국 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대미국 투자 확대 → 한국산 산업재 조달 →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 증가 → 연계성 강화」의 흐름이 형성

-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및 자본재를 상당 부분 한국 내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의 미국 내 투자는 한국의 수출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

-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운영에 필요한 제품의 59%를 여전히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진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임.

  * 해외 진출 기업들의 한국 매입 비중(2023년, 한국수출입은행): 미국 59%, 중국 24.5%, 전체 42.2%

- 이는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로 인해, 진출 기업들이 국내 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됨.

□ 미국 진출 기업들의 현지 매입 확대에 따라, 대미국 투자와 미국 산업 간 연계가 심화되는 양상

○ 최근 미국 현지 진출 기업들의 필요 중간재에 대한 미국 내 현지 조달이 증가하는 추세

- 한국으로부터의 매입 비중(2023년 59%)은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지(미국 내) 매입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2020년 28.3% → 2023년 32.1%)

- 현지 매입 비중 확대는 미국의 제조업 우대 정책, 공급망 안정화, 관세 회피 전략 등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결과

-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가 미국 산업과의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

4) 분기 자료를 활용하여 Park and Hahn(1999)의 시간변동 공적분 모형 추정. $\log(Y_t) = \alpha + \beta_t \log(X_t) + \gamma P_t + \varepsilon_t$ 에서 Y_t는 대미국 수출, X_t는 미국의 생산지수 혹은 GDP, P_t는 환율, t는 시점(분기)에 해당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부정적 거시경제 여건, 정책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요국 IT 및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는 긍정적 요인

○ (세계 수요 여건) 2025년 하반기 세계 수요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회복 기조가 예상 대비 지연될 전망, 디지털 수요는 견조하고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기능성 소재·부품 수요도 다소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미 통상정책의 파급 영향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도 상당할 전망

- 글로벌 ICT 수요는 생성형 AI의 산업 적용 확산,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초슬림 스마트폰, 폴더블폰 등 다양한 신제품 출시, 윈도 10 지원 종료에 따른 PC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 단, 미국 통상정책에 스마트폰·PC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상존

-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금리 인하, 중국의 전기차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미국 자동차 시장 수요는 트럼프 정부의 높은 자동차 관세정책 영향으로 전반적인 차량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

- 전기차 캐즘 영향으로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했던 글로벌 이차전지 수요는 2025년 들어서면서 미국, EU 등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회복 중으로 수요 개선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미 IRA 수정법안 발효 여부(5.22일 하원 통과) 등 정책

리스크 파급효과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전망

- 하반기 글로벌 해운 시황은 파나마 운하 정상화에도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물동량 성장세 둔화와 미국의 중국 해양산업에 대한 제재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해운사의 발주 여력 약화가 예상, 이에 선박 수주 부담은 높아질 전망

- 소재 시장은 세계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수요 증가가 제한될 전망이나 공급과잉 상황의 소폭 개선(석유화학), 환경 규제와 더불어 글로벌 디지털 전환 지속에 따른 고기능성 제품(5G용 아라미드, 수소·전기차용 탄소섬유 등) 비중은 확대될 전망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주요 시장 수출 여건은 주요국 IT 및 인프라 투자, 재정지출 확대 등의 우호적 여건과 경기회복 지연, 관세 및 경쟁 심화 등의 부정적 여건이 혼재할 전망

-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 부과(자동차, 철강) 및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른 수요 위축(기계, 화학, 섬유) 등이 수출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견조한 IT 및 바이오의약품 수요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 지속 등의 긍정적 여건 예상

〈표 2-1〉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국가	비중[1)]	상반기	하반기	국가	비중	상반기	하반기	국가	비중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미국	46.0	☁	☂	EU	15.6	🌧	☁	중동	6.5	☁	☁
일반기계	미국	29.4	☂	☂	중국	13.3	🌧	🌧	EU	11.5	☂	☂
철강	아세안·인도	22.9	☼	☼	북미	20.6	☁	🌧	EU, 러시아	13.7	☁	☁
정유	아시아 (중국 제외)	76.4	☁	☁	미국	10.3	☁	🌧	중국	7.1	☁	☁
석유화학	중국	40.0	☁	☁	아세안	15	☁	☁	기타	45	☼	☁
섬유	베트남	20.6	🌧	🌧	중국	13.9	☂	🌧	미국	13.0	🌧	🌧
정보통신기기	중국	30.6	☼☼	☼☼	미국	23.3	☼☼☼	☼☼	EU	15.6	☁	☁
가전	미국	48.5	☂☂	☂	EU	9.2	☂☂	🌧	중국	6.5	☼☼	☼
반도체	중국	32.8	🌧	☼	홍콩	18.4	☂☂	☁	대만	15.2	☼☼☼	☼☼☼
디스플레이	베트남	59.7	🌧	☁	중국	26.6	☂	🌧	멕시코	5.7	☂☂	☂
이차전지	미국	44.9	☁	☁	EU	16.1	☂	🌧	중국	5.3	☁	☁
바이오헬스	미국	16.7	☼☼	☼☼	EU	14.6	☼☼	☼☼	중국	6.8	☁	☁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4년 기준).
2)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유럽 시장에서는 교역 및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로 수요 위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재정지출 확대, 구매수요 누적(자동차), 일부 규제 개선(자동차, 바이오헬스), AI서버 투자 확대(정보통신기기) 등은 긍정적 요인

- 중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일반기계, 철강)에 따른 부정적 수출 여건이 이어질 전망이나 전기차 시장의 높은 성장세(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및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카메라모듈 등) 및 이구환신 보조금(자동차, 가전) 등은 우리 제품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

- 인도는 국내 기업의 현지 공장 신·증설 투자 확대(기계), 인프라 투자 지속(철강, 석유화학), 공급망 재편(디스플레이) 영향으로 수출 증가가 기대, 베트남도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한국기업의 베트남 생산 확대(가전) 영향으로 긍정적 수요가 예상되나,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산업 위축, 보호무역조치의 강화 등의 수출 리스크도 존재

□ 국내 공급능력은 첨단·유망 분야 중심으로 소폭 확대가 예상되고 디지털·그린 전환 대응 투자도 계속될 전망, 수출 및 생산 비용 증가 대응 목적의 해외 생산 확대와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도 진행될 전망

○ (해외 생산 전망) 2025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정책 본격화 및 각국의 대응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 불확실한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현지 수요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국내 업체들의 해외 생산은 증가 예상

- 자동차는 신설된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25% 관세 부과로 신규 공장의 가동률이 빠르게 높아질 전망,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생산의 확대 추세는 지속될 전망

  · 하반기 현대차가 GM으로부터 인수한 인도 공장 가동에 따라 대인도 생산 역시 큰 폭 증가가 예상되나 일부 지역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생산라인 조정과 국내 공장 가동률 유지를 위한 현지 생산 물량 조정 등으로 감소할 전망

- 조선은 조선기자재의 높은 가격과 사외협력사 비용 증가, 반덤핑 잠정 관세 영향 후판 가격 인상 영향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선체 블록 조달 확대가 예상

・현대베트남조선은 2024년 상반기 8척, 하반기 7척을 건조했는데, 2025년에는 상반기 8척, 하반기 8척이 예상되고 아프라막스급 유조선 건조도 증가하면서 CGT기준으로는 하반기에 매우 높은 생산량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일반기계 해외 생산은 북미 지역의 가스연소기기와 인도 지역의 건설기계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이나 중국 현지공장 생산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로 위축이 예상

- 철강산업의 해외 생산은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과 북미, 인도 등에서의 현지 조달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폭 증가할 전망

・현대자동차 인도 푸네공장(HMI)용 차체 소재 공급을 위해 현대제철은 2024년 7월부터 푸네 SSC 건설을 진행 중이며, 2025년 3분기에 상업생산을 시작할 예정

- 석유화학은 국내 기업의 경영성과 악화로 인한 아세안 시장 내 생산시설 구조개편 착수로 해외 생산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나 당초 계획보다 매각이 지연되면서 축소 폭은 제한적일 전망

- 섬유산업은 미국발 관세정책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재조정을 위한 전략적 변화가 예상, 하반기에는 베트남 및 과테말라에서의 생산이 확대될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스마트폰과 PC의 최대 생산지인 중국과 베트남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예정)되면서 생산량이 축소될 전망이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의 생산량은 높아질 전망

- 가전산업은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해외 생산 확대 기조가 202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멕시코, 브라질, 미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할 전망

・중국은 미국과 무역분쟁으로 전망이 불확실하며, 한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지역에서의 생산이 늘면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

- 반도체는 한국에서 HBM 등 첨단 반도체 제조가 확대되면서 메모리반도체 중심의 중국 생산이 확대될 전망, 한편 파운드리 주문 감소 영향 미국 현지 생산은 축소될 전망

- 이차전지는 2025년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상당수 공장 가동이 시작되고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해외 생산 확대 추세가 이어질 전망

-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에 따라 북미 생산이 확대될 전망이나 고율의 대미 관세 영향으로 중국에서의 의료기기 및 부자재의 대미 수출이 경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생산은 축소 예상

〈표 2-2〉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해외 생산기지(생산 전망)	2025년 상반기 추정	2025년 하반기 전망	2025년 전망
자동차	중국(☁), 미국(☼☼), 브라질/멕시코(☼), 러시아/체코/슬로바키아(🌧), 튀르키예(🌧), 인도(☼☼)	☼☼	☼	☼
조선	중국(☁), 베트남(☼☼☼)	☁	☼	☼
일반기계	미국(☁), 인도(☼), 중국(☂)	☁	☁	☁
철강	유럽(🌧), 아세안(🌧), 북중미(☁), 인도(☁), 중국(🌧)	☁	☁	☁
석유화학	중국(🌧), 아세안(싱가포르 포함)(🌧), 미국(☁)	🌧	🌧	🌧
섬유	베트남(☁),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미국(🌧)	🌧	☁	☁
정보통신기기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	☁	☼
가전	동남아(☁), 동유럽(☼), 중남미(☁), 중국(🌧), 미국(☼)	🌧	☼	☁
반도체	중국(☼☼), 미국(☂)	☁	☼	☁
디스플레이	중국(☁)	☁	☁	☁
이차전지	미국(☼☼), 유럽(☁), 중국(☁)	☁	☼	☁
바이오헬스	중국(☂), 미국(☼☼), 동남아(☁)	☼	☼	☼

주: (전년 대비) 증감률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국내 공급능력 및 투자) 대외환경 불확실성 및 업황 둔화에 따라 국내 기업의 투자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전기차, 첨단섬유,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유망 제품의 공급능력은 확대되고 AI·DX 전환, 중장기 그린경쟁력 제고 목적으로 조선, 철강, 정유, 반도체 분야의 관련 투자는 지속될 전망

- 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및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으

나 주요국의 환경정책 완화, 보호무역 정책 강화 등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가 다소 지연되는 추세

・기아는 광명 2공장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용 생산설비로 증축 개조하였으며 신규 출시되는 2개 차종의 BEV를 생산 중

- 조선은 LNG운반선 건조량 증가 및 효율화를 위한 생산설비 투자와 더불어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 추진 지속 예상

・외국인 및 비숙련 인력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는 2025년에도 여전한 중요 이슈

- 일반기계 설비투자는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제조 프로젝트 추진에 힘입어 첨단기계 및 탄소중립 · 에너지 효율화 제조장비 투자를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철강은 국내 공급과잉, 내수 부진에 따른 판매 부진 영향으로 국내 상·하공정 설비의 공급능력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친환경 공정전환은 점차 본격화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 400만 톤 규모의 '전기로-고로 복합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시험생산 및 내년 중 상업생산을 목표

- 정유는 신규 정제설비 증설보다는 정제설비 가동률 조정 및 공정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비투자는 석유화학 부문으로의 사업다각화(COTC 설비)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연·원료(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바이오 항공유) 생산설비 중심으로 확대

- 석유화학은 국내 업스트림 생산설비 가동률이 평년 수준을 하회하고 있어,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대보다는 기존 설비의 효율화에 집중할 전망

- 섬유산업은 원사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화섬업체 중심으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첨단 섬유소재의 수요 확대에 대응해 2025년에도 슈퍼섬유(아라미드, 탄소섬유) 관련 대규모 설비증설 투자를 진행할 계획

- 정보통신기기는 세계 수요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SSD, 카메라 모듈 등 주요 부분품의 생산설비 고도화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 관세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국내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설비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원가경쟁력(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을 전망

- 가전의 국내 생산이 프리미엄 제품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원가경쟁력을 갖춘 해외 생산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국내 생산능력은 소폭 감소세를 유지할 전망

- 반도체는 HBM, DDR5 등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신규설비 증설과 기존 제품의 미세화 전환을 위한 설비 교체를 진행할 계획

- 디스플레이 공급능력은 애플 IT 제품용으로 구축 중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8.6세대 RGB-OLED 라인의 올해 말 가동이 예상됨에 따라 IT전용 라인 중심으로 확장될 전망

- 이차전지 국내 공급능력 확장은 최첨단 기술 및 설비를 통해 신제품 생산에 특화된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 구축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

- 바이오헬스의 국내 설비투자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공장 신·증설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5년 중 18만L 규모의 5공장 완공하며 총생산 능력 78.4만L 달성, 대형 바이오의약품 제조사뿐만 아니라 바이넥스, 펩트론, SK팜테코 등 중견기업들의 생산시설 투자 확대도 예상

〈표 2-3〉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전기차 전용 생산설비 본격 가동	☼
	• 중견 완성차업체 전동화 전략 강화로 제품 및 생산설비 전환	☼
	•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국내 완성차업체 해외 생산 물량 증가	☂
조선	• 특정 선종 건조 증가에 대응한 설비투자 확대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	☼
	• 인력 부족에 따른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 기술 및 설비 확대	☼
	• 외국인, 비숙련 인력에 따른 숙련 형성 시간 필요와 안전 강화 노력에 따른 영향	☂
철강	• 기업 수익성	☂
	• 유망 신제품 생산 및 친환경 공정전환 위한 신증설	☼
정유	• 상반기 정제마진 약세 지속 및 악화	☂
	• 하반기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	☼
	• 전년동기 대비 내수 및 수출물량 감소	☂

(계속)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석유화학	· 공급역량 변화(해외 생산시설 조정)	☂
	· 생산시설 가동률(소폭 상승)	☼
	· 주요 제품 스프레드(소폭 확대)	☼
섬유	· 첨단소재 설비투자 확대	☼
	· 생산 효율화(생산시스템 개선)	☼
	· 섬유 경기 불황에 따른 감산 및 폐업 등 공급능력 감소	☂
	· 국내 생산설비 해외 이전	☂
정보통신기기	· 데이터센터(AI 서버) 투자 확대로 SSD 생산 능력 확대	☼
	· 스마트폰, PC 등 완제품과 주요 부품의 해외 생산	☂
가전	· 생산 효율화(스마트공장 구축)	-
	· 프리미엄 제품의 생산 비중 확대	-
	· 해외 생산 확대	☂
반도체	·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
	·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조성	☼
	· 반도체 주요 수요시장 둔화로 인한 감산	☂
디스플레이	· 8.6세대 RGB-OLED 가동	☼
이차전지	· 이차전지 기업의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건설	☼
	· 국내 내수용 및 수출용 전기차 생산 대응	☂
	· 이차전지 기업의 실적 부진에 따른 투자 여력 상실	☂☂
	·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및 주요국 정책 변화	☂
바이오헬스	· 전통 제약사도 신약개발에 비해 리스크가 적은 CDMO 신사업 진출	☼☼
	· 신규 모달리티 R&D 투자 확대	☼
	· 국내 생산설비 해외 이전	☂

주: (전년 대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13대 주력산업의 하반기 주요 이슈: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은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주요국 규제 변화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관세정책) 하반기 본격화될 수 있는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은 우리 수출 전반의 큰 위협요인일 전망, 직접 수출 및 제3국 경유 수출의 감소 등 부정적인 직·간접적 영향 발생이 우려되나 수출 경쟁력을 통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발생도 예상

- 자동차, 철강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보다 직접적으로 산업의 수출 및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전망

・자동차는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영향으로 완성차 및 동반 진출한 대형 부품 업체의 현지 가동 확대가 예상되고 부품 산업의 경우 완성차 수출 감소에 따른 부품 수요 감소 및 단가 하락 압력이 높아질 전망

・철강은 대미 수출 쿼터제 폐지 및 25% 관세 부과로 미국 범용 철강재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대미 수출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나 제품경쟁력을 보유한 고부가 강관 및 자동차용 판재류의 경우 영향이 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대다수 산업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및 수요 둔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 대한국 중간재 수요 감소 등의 부정적인 간접효과 발생을 우려

・석유화학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며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가 소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나, 아시아 석유화학시장 내 중국발 물량 증가로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될 우려

・섬유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등 해외 생산을 통한 대미 우회 수출물량이 더욱 많은 수출구조를 지니고 있어 전 세계에 대한 상호관세 본격화 시 수출의류 생산기지향 국산 섬유소재 수출 부진으로 이어져 직접 수출보다 더 큰 부정적 영향 예상

・가전은 상호관세 부과 시 미국 또는 관세가 낮은 국가에서의 해외 생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국내 생산과 수출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

・바이오헬스는 위탁생산 방식으로 수출한 바이오시밀러 등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원칙적으로 파트너(발주)사가 부담하는 구조로 직접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납품가격 인하 압력이 작용하면 마진율 인하는 불가피할 전망

- 반면,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의 발생은 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분 상쇄할 전망

・정보통신기기의 스마트폰과 PC는 미국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으로 대미국 수출의 직접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 국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20% 관세가 적용되어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경쟁제품 대비 소폭의 반사이익 예상

・디스플레이는 애플의 인도에서의 생산 확대를 통한 중국 관세 대응 전략이 검토되고 있어 실현될 시 우리의 대인도 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이차전지는 해외 소부장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미국 현지 생산 단가 상승이 우려되나 미국 정부가 중국에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 상승 등의 반사이익 기대

- 조선,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은 확고한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

・조선은 현재 풍부한 수주잔량을 보유하고 있어 해상 물동량 감소에 따른 단기적 수주 위축이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조선산업 견제 및 한·미 협력 확대에 따른 기회요인 발생도 기대

・반도체는 대미국 직접수출 비중이 낮고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국 제품의 대체가 어려워 판매가격 전가가 용이할 전망, 이에 미 관세정책이 우리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표 2-4〉 2025년 하반기 업종별 주요 이슈: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 요인		영향 정도	내용 설명
자동차	수출(직접)	XX	・미국의 자동차 25% 고관세 부과 영향 현지 생산 증가, 미국 수요 감소 ・미국 시장 위축으로 유럽, 신흥시장 등 대체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자동차산업 특성상 미국 수출 부진은 생산에도 부정적
	수출(간접)	X	
	생산	X	
조선	수출(직접)	□	・수주산업 특성상 관세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 제한적 ・풍부한 수주잔량 보유로 해상 물동량 감소에 따른 단기적 수주 위축 영향 제한적 ・(한·미 협력 확대) 미국 특수선 및 상선 시장 진출, 미국의 중국 조선산업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등 기대되나, 단기적으로 수출에 영향이 크진 않을 전망
	수출(간접)	□	
	생산	□	
일반 기계	수출(직접)	□	・미국 내 일반기계 가격 상승과 건설부문 투자 위축,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현지 수요가 둔화 예상 ・미·중 간 90일간의 관세 인하 합의에 따라 중국 내 생산 및 유지보수 수요가 증가로 대중국 수출의 소폭 개선 전망
	수출(간접)	X	
	생산	X	
철강	수출(직접)	X	・미국 시장에서의 범용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약화 전망, 관세로 인한 대미 직접수출 감소 가능성 ・국내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수요산업의 대미국 수출 부담 확대 및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한 현지 생산 확대로 국내 철강생산 부정적 영향
	수출(간접)	X	
	생산	X	
정유	수출(직접)	□	・석유제품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미 수출 영향은 미미 ・미국 내 생산 및 수출 확대로 인한 수출경쟁 심화 ・최근 미국 내 노후 정제설비 폐쇄 지속으로 생산량 확대는 제한적
	수출(간접)	X	
	생산	X	

(계속)

영향 요인		영향 정도	내용 설명
석유화학	수출(직접)	□	·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로 국산 석유화학제품 스프레드 소폭 개선 · 중국산 대체 수요로 미국향 수출규모 증가 기대 · 아시아 석유화학 시장 내 중국발 물량 증가로 국산 제품 수출에 부정적 영향 · 중국산 범용제품의 국내 유입규모 확대
	수출(간접)	X	
	생산	X	
섬유	수출(직접)	□	· 미국 시장 위축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등 해외 생산 물량의 대미 간접 수출 타격 · 미국의 대중 상대적 고율(30%) 관세에 의한 수출 기회 불구,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섬유 수요 위축
	수출(간접)	XX	
	생산	X	
정보통신기기	수출(직접)	□	· 스마트폰·PC는 미국 관세 대상 제외 품목으로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미미 ·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 수요는 위축 전망 · 중국 상호관세(30%) 부과로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미국·중국 경쟁제품 대비 소폭 반사이익이 예상 · 미국 상호관세 발효 및 품목 관세에 스마트폰 등이 포함될 경우 수출 및 생산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
	수출(간접)	X	
	생산	□	
가전	수출	XX	· 상호관세 등 미국의 관세정책은 미국을 포함한 해외 생산 증가를 촉진 · 해외 생산 증가와 미국향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은 수출 감소 요인
	생산	XX	
반도체	수출(직접)	□	· 반도체는 대미 수출 비중이 크지 않고 한국 제품의 대체품이 거의 없어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 · 다만, 관세 영향으로 반도체의 주요 수요산업인 IT 기기 소비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반도체 경기에도 부정적 영향
	수출(간접)	□	
	생산	□	
디스플레이	수출(직접)	□	· 전자 부품에 해당함에 따라 대미 직접 수출은 AS용에 한정되어 규모가 매우 작으며 이에 직접적 영향력은 제한적 · 주요 수요품인 스마트폰, TV의 주요 생산국의 관세 영향으로 생산 부진의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른 대중국, 대베트남 등 주요국 수출 축소 예상 · 스마트폰 생산거점 다변화로 인하여 인도가 대미 스마트폰 생산거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수출 증대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 수출국의 감소량보다는 하회할 전망
	수출(간접)	X	
	생산	X	
이차전지	수출	X	· 미국에서 보편+상호관세 부과 시 수입품 가격 상승, 현지 생산비 증가로 미국 시장 실적 악화 우려 · 중국에 차별적 고율 관세 부과 시 일부 반사이익 기대
	생산	X	
바이오헬스	수출	□	· 단기적으로는 관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수출이, 중장기적으로는 약가 인하 대상 품목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합성의약품 및 제네릭의약품 수출이 축소될 우려 · 현지에서 생산·판매하는 국내 제약사는 가격에 수입 관세 부담이 가중되어 부정적 영향, 국내에서 위탁생산만 참여하는 제조사들은 수입 관세가 파트너사에 부과되어 제한적 영향
	생산	X	

주: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중립 □, 부정적 X, 매우 부정적 XX

○ (중국의 영향력 확대) 중국의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는 기간산업 및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한국의 대다수 산업에 큰 위협요인으로 자리매김할 전망

- 중국의 자급률 상승 및 과잉생산은 국내 전통 주력산업의 대중 수출의존도 감소, 국내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나타날 전망

  · (철강) 최근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 과잉 상황이 지속되며 중국 주요 철강기업들은 대세계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중으로 이는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를 야기하여 국내 내수 및 생산 회복에 큰 위협요인

• (석유화학) 중국의 자급률 상승 영향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수입수요 감소와 더불어 기초유분 제품 수입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

• (일반기계) 중국의 기술 자립화 및 산업 고도화 정책 추진 영향 일반기계의 대중국 수출은 2021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1년 20.6%에서 2024년에는 13.3%로 하락이 지속될 전망

- 중국의 기술력 향상으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에서도 중국과의 경합도 증가 예상, 이에 직접 경쟁 또는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확보 부담이 높아질 전망

• (자동차)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가격우위를 바탕으로 한 유럽, 동남아 등의 진출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대체 수출시장 발굴이 요구되는 우리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 확대도 예상되나 브랜드 및 품질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국내 승용차시장 특성상 중국 로컬업체 전기차 판매는 다소 제한적일 전망

• (조선) 경쟁력을 보유한 주요 중국 조선사가 고부가가치선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중이며 다수의 조선사가 범용선박 시장을 낮은 가격으로 주도함에 따라 시황 악화 시 중국발 공급과잉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

• (가전) 중국 기업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프리미엄 제품에서도 한국과 경쟁구도를 형성, 한국은 AI가전 등 제품 고급화·차별화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익 악화에 대응한 해외 생산 확대는 국내 생산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

• (반도체) 중국 반도체 기업이 메모리반도체 양산에 성공하고 저가에 공급함에 따라 반도체 시장 전반의 가격 하방 압력이 이어질 전망

• (이차전지) 중국 기업은 통상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산 LFP 판매량 증가를 통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추세, 이는 한국 이차전지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대두될 전망

- 반면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이 국내 산업 성장과 보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정보통신기기) 중국 스마트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로 인한 한·중 경쟁 심화는 부정적 요인이나, 중국에서 국내 핵심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이 확대될 전망

• (바이오헬스)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원료의약품 지배력은 매우 높아 국내 제약사 입지가 약화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 혁신신약 출시 확대로 완제의약품 경쟁력도 뒤처지고 있으나 중국 바이오기업과 공동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표 2-5〉 2025년 하반기 업종별 주요 이슈: 중국의 영향력 확대

영향 요인		영향 정도	내용 설명
자동차	수출	X	• 중국 업체 유럽 및 신흥시장 진출 확대로 우리 업체와 경쟁 심화 •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내 시장 진입으로 중국산 차량 내수 점유율 확대 우려
	내수	□	
조선	수출	X	• 중국의 수주 점유율 확대, 신규 설비투자 등으로 인해 당장의 수출 영향 제한적이나, • 수주경쟁 심화 및 향후 중국발 공급과잉 우려
	내수	X	
일반기계	수출	X	•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기술력 향상으로 일반기계 분야에서 한·중 간 품질 및 기술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며, 한국의 상대적 경쟁우위가 약화 • 중국의 기술자립도 향상 및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인해 대중국 수출 감소세 지속
	내수	X	
철강	수출	X	• 중국의 국내외 설비용량 확대에 따른 세계 공급과잉 심화로 대세계 수출시장 경쟁 심화, 수출에 부정적 영향 작용 • 중국산 저가 수입재 유입 확대로 내수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내수	X	
섬유	수출	XX	• 중국산 과잉물량과의 경쟁 심화 • 수입 증가로 인한 경쟁 심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촉발 등 생산 감소
	생산	X	
석유화학	수출	X	• 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수입수요 감소 • 국내 시장 내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 증가
	내수	X	
정보통신기기	수출	□	• 중국 스마트폰 경쟁력 제고로 신흥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중 경쟁 심화 • 반면 중국 스마트폰 수요 확대는 한국산 핵심부품 수출·생산 증가 요인 • 수출 주력품목인 SSD는 중국 경쟁력이 낮아 수출·생산 영향은 미미
	내수	□	
가전	수출	XX	•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도 한국과 경쟁 구도를 형성 • 수익성 악화 요인, 해외 생산 증가를 촉진해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 영향 • 우수한 가성비를 갖춘 중국 브랜드의 한국 진출은 내수에도 부정적 요인
	내수	X	
반도체	수출	X	• 중국 기업의 레거시 반도체 양산 및 자국 시장에서 점유률 확대 중 • 일부 품목의 대중국 수출 감소할 수 있으나, 프리미엄 제품, 수출용에서는 직접 영향 제한적
	내수	□	
디스플레이	수출	X	• 2024년 기준 중국의 세계 점유율 50% 달성, 한·중의 격차 확대 중 • 중국 내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선호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신흥국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의 약진으로 수출 둔화
	생산	X	
이차전지	수출	XX	• 최근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LFP 등 중저가용 이차전지 수요 증가로 중국 기업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한국 기업의 점유율 하락 추세
	생산	XX	
바이오헬스	수출	X	•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 원료의약품 지배력은 매우 높아 국내 제약사 입지 약화, 최근 중국 혁신신약 출시 확대로 한국의 완제의약품 경쟁력도 뒤처지는 상황 • 중국 바이오기업과 공동개발 중인 국내 제약사는 긍정적 영향이나 향후 미국의 중국 바이오기업 견제가 강화될 경우 협력 축소 검토
	생산	○	

주: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중립 □, 부정적 X, 매우 부정적 XX

○ (주요 이슈: 산업별) 이 외에도 주요국 전기차 수요 변화(자동차), 비관세 수입장벽 강화(일반기계), AI 확산(반도체, 가전), 인도시장의 성장(디스플레이), 친환경 정책 변화(이차전지) 등이 2025년 하반기 국내 13대 주력산업이 마주하게 될 주요 이슈일 것으로 예상

〈표 2-6〉 2025년 하반기 업종별 기타 이슈

영향 요인			영향 정도	내용 설명
자동차	전기차 수요 둔화	수출	□	· BEV 수요 둔화 예상되나 우리 업체가 경쟁력 지닌 HEV로 이전되면서 수출 및 생산 영향 중립적
		생산	□	
일반 기계	비관세 수입장벽 강화	수출	X	· 인도 정부의 수입 장비에 대한 인증 강화 조치로 공작기계의 대인도 수출물량 감소, 통관 지연 및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영향 예상
철강	보호무역주의 강화	수출	X	· 인도의 수입제한조치 확대, 향후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의 자동차 강판 원산지 규정 강화(2027.7) 등은 수출 확대에 제약 요인 · 국내 철강기업의 중국, 베트남산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확대는 저가 수입재 대응에 긍정적으로 작용
		내수	○	
섬유	공급망 재편	수출	○	· 미국 바이어의 섬유의류제품 조달처 탈중국 및 다변화 ·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한 중국 기업이 생산거점을 베트남, 인도 등 제3국 이전 가속화 · 글로벌 시장 및 중국 내수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 심화 불구, K-패션 및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 편입 기회
가전	AI·스마트홈 수요 확대	수출	○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국이 강점을 지닌 프리미엄 AI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과 생산에 긍정적 요인 · 스마트홈 플랫폼, 가전 구독서비스 등 서비스·유통 혁신도 긍정적 요인
		내수	○	
		생산	○	
반도체	AI 확산	수출	◎	· AI 서비스와 제품 개발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며,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
디스 플레이	인도시장의 성장	수출	◎	· 인도 스마트폰시장의 성장과 대중국 관세로 인한 생산거점 변화로 대인도 수출 가능성 부상 · 인도의 중산층 확대에 따른 내수시장 성장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
이차 전지	IRA 수정법안 발의	수출	XX	· 전기차 구매보조금 2027년 이후 폐지, 상업용·리스·중고 전기차 세액공제 2026년 이후 폐지 등이 수정법안의 주요 내용 · 성장성 및 인센티브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 시장 위축 불가피
		생산	XX	

주: 매우 긍정적 ◎, 긍정적 ○, 중립 □, 부정적 X, 매우 부정적 XX.

2.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부문별 전망

□ 수출: 상반기 부진한 실적, 하반기 관세리스크 높아지며 연간 수출은 소폭 감소 전환 예상

○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IT,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 수출의 양호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관세와 이에 따른 대외환경 불확실성 증가, 해외 생산 확대 등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동기비 2.3% 감소할 전망, 역기저효과 등으로 상반기 수출도 1.9% 감소함에 따라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2.1% 감소 예상

○ (기계산업군) 2024년에 이어 조선산업의 수출 성장은 지속되나 하반기 미국의 고관세 정책 및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자동차와 기계 수출의 부진이 전년보다 확대될 전망, 이에 산업군 전체의 연간 수출은 전년(0.6%)의 소폭 증가에서 감소(-5.0%) 전환 예상

- 자동차 수출은 하반기에 미국 고관세 정책 영향 본격화로 현지 생산이 수출을 대체하고 미국 시장 수요 위축이 부품 수출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큰 폭의 대미 수출 감소 예상, 이에 더해 가격경쟁력 높은 중국 업체와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하반기 11.4% 감소,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8.0% 감소 전망

  · (2025.상) 상반기 수출은 고관세 부과 전 선수출 물량 증가와 아시아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하는 긍정적 요인에도 2024년 상반기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주요국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4.9% 감소 추정

- 조선 수출은 해외 선사향(向) 고가 LNG운반선 대량 인도로 높은 증가세(10.2%) 유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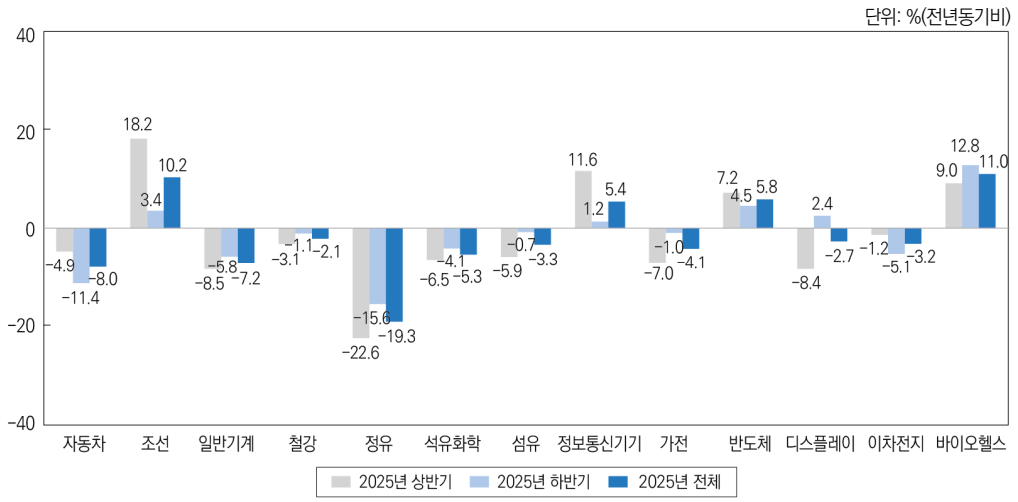
  · 고가에 수주한 LNG운반선을 비롯한 수출선 물량이 증가하고 인력 확보와 숙련도 향상에 따른 생산 현장 안정화, 조선업 호황으로 조선기자재의 수출도 양호할 것으로 기대

  · (2025.상) 상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18.2% 큰 폭으로 증가한 139억 달러로 추정되며 지연되었던 인도 정상화 및 조기 인도 영향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출 성장률 기록 예상

- 일반기계 수출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대외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수출 하방 요인으로 상반기 수출 부진이 하반기에도 이어지며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7.2% 감소한 475억 700만 달러 수준에 머무를 전망

• (2025.상) 상반기에는 중동 지역 플랜트 투자 및 인도 건설기계 수요 증대에 따른 기계류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출국인 미국·중국·유럽 수출이 크게 부진하여 전년 동기비 8.5% 감소 추정

〈그림 2-1〉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소재산업군) 저유가에 따른 단가 하락, 관세 및 글로벌 수요 둔화 영향으로 산업군 내 모든 산업의 수출이 연중 내내 부진할 전망, 산업군 전체 연간 수출의 감소폭도 전년(-1.2%) 대비 크게 확대될(-9.4%) 전망

- 철강은 관세 및 미국의 자동차 수요 부진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물량의 감소(-4.0%)가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감산 추진에 따른 글로벌 철강 가격의 상승, 신흥국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 등의 긍정 요인으로 금액 기준 수출은 소폭 감소(-1.1%)가 예상,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1% 감소하여 3년 연속 역성장 전망

• (2025.상) 아세안 등 신흥국의 철강 수요 확대, 내수 부진에 따른 수출 확대 기조가 이어지며 물량은 전년도 하반기에 이어 증가(2.0%)할 전망이나 수출단가 약세로 금액기준 수출액은 감소(-3.1%) 추정

- 정유는 저유가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확대가 하반기 정제마진 개선 및 수출 물량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상반기 부진 및 단가 하락 영향으로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19.3% 감소 전망

  ・(2025.상) 상반기 수출은 수출물량 감소와 더불어 지속적 유가 하락 및 정제마진 급락으로 전년동기비 22.6%의 큰 폭 감소 추정

- 석유화학은 하반기 나프타 가격 하향 안정화로 가격경쟁력이 다소 회복되고 국내 증산 및 EU/일본의 설비 폐쇄로 완만한 수출규모의 증가가 예상, 그러나 공급과잉 및 수요위축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이 하반기 수출액 감소를 견인하여 하반기 및 연간 수출은 각각 전년 대비 4.1%, 5.3% 감소할 전망

  ・(2025.상) 상반기 수출은 중국 ICT 산업 업황 개선 지연에 따른 국산 화학제품 수요 증가가 제한되고, 인도향 수출 둔화와 더불어 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비 6.5% 감소 추정

- 섬유 하반기 수출은 중국의 내수 진작 영향 국산 중·고가 제품의 수출 여건 개선, 미국의 대중 고율관세(30%)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등으로 상반기 대비 증가할 전망, 단,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대응을 위한 해외 생산 확대와 상반기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3.3% 감소할 전망

○ (IT신산업군) 2024년 29.4%의 큰 폭 증가를 기록한 IT신산업군의 수출은 AI 적용 확산 등의 긍정적인 글로벌 IT 수요 상황 속에서 고부가 반도체 제품 비중이 높아지고 바이오시밀러, ESS 등 유망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2025년에도 4.7%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단, 관세 리스크, 중국의 급성장 및 해외 생산의 확대는 수출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AI 서버 투자 확대, PC 교체수요(윈도10 지원 종료, AI PC)에 따른 기업용·소비자용 SSD 수요 증가와 더불어 스마트폰 시장 성장에 따라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5.4% 증가할 전망

  ・(2025.상) 상반기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증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AI 서비스 급증에 따른 데이터센터·서버 투자 확대,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스마트폰 생산지로의 스마트폰부품 수출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11.6% 증가 추정

- 가전 수출은 하반기 글로벌 가전 수요의 회복이 예측되나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소비 부진 우려와 해외 생산 확대 가속화로 인해 하반기 1.0% 감소,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4.1% 감소 예상

  ・(2025.상) 상반기 수출은 선진국 수요 감소와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생활가전의 국내 생산 감소 및 해외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7.0% 감소 추정

- 반도체 수출은 우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은 HBM 시장의 빠른 성장, DDR5를 비롯한 고부가 제품의 매출 비중 확대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수출의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이에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5.8%의 증가가 예상되고 규모로서는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1,500억 달러)할 전망

  ・(2025.상) 상반기 수출은 세계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제조기업의 자구책으로 인한 단가 안정화 및 고부가 제품 수출 증가로 전년동기비 7.2% 증가한 약 705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사상 최초로 700억 달러를 넘으며 역대 최대 상반기 수출액 기록 예상

- 디스플레이는 대형 패널 시장의 성장, 패널 고부가화 진전에 따라 하반기 수출 회복이 전망되나 상반기 부진 및 차년도 신제품 등장 가능성에 따른 수요 이연으로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2.7% 감소할 전망

  ・(2025.상) 상반기 디스플레이 수출은 1분기 아이폰 16e 발매로 인한 증가에도 전반적인 수요 부진과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2분기 수출의 큰 폭 감소 효과로 인해 전년동기비 8.4%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이차전지 수출은 2025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한국 이차전지 기업의 미국 공장 생산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할 전망이나 기저효과, ESS 수출 호조 지속, 미·EU 등지의 EV 배터리 부문 수요 개선 등의 영향으로 감소율 자체는 전년(-16.6%) 대비 큰 폭 축소될 전망

  ・(2025.상) 상반기 이차전지 수출은 전년동기비 1.2% 감소 예상, 전기차용 이차전지 수요 위축으로 2023년부터 나타난 역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감소폭은 전년동기(-21.4%) 대비 큰 폭 축소 예상

- 바이오헬스는 미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세 리스크에도 미국과 유럽향(向) 바이오시밀러, 중국향 임플란트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유지되고 미국·중남미·동남아 등 세계 전역으로 톡신 제제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수출이 확대되면서 하반기(12.8%) 및 연간(11.0%) 수출의 각각 두 자릿수 성장 기대

  ・(2025.상) 상반기 수출은 고환율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존 발주물량 조기 인도, 원료의약품 선출하, 바이오시밀러 신규 출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비 9% 증가할 것으로 추정

〈표 2-7〉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국내 업체 브랜드 이미지 제고 ・HEV, BEV 등 신차 주요 수출시장 투입	・미국의 자동차 고관세 부과 ・중국 업체 글로벌 판매 전략 강화 ・국내 업체 해외 생산 증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와 미국 시장 수요 위축 등으로 감소
조선	・고가의 수출용 LNG운반선 인도 증가 ・인력 확보 및 숙련도 향상으로 생산현장의 안정화 ・조선기자재 수출 증가	・조선기자재 산업의 생산능력 확대 제한이나,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	・안정적인 인력 관리하에서 높은 선가에서 수주한 고가의 LNG운반선 대량 인도, 조선기자재 수출로 증가세 지속
일반기계	・해외플랜트 및 EPC 수주실적의 지속적인 증가세(2025년 1분기 누계 기준 전년동기비 8.9% 증가)에 따라 관련 기자재(터빈, 펌프, 밸브 등)수출의 성장세 지속 전망 ・주요 수요기업들의 해외 현지 공장의 신설 및 증설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공작기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로 한국산 기계류의 대미 수출 여건 악화 우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세 둔화(제조업 PMI 50 하회)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	・해외 플랜트 수요 및 현지 생산공장 설비투자 확대와 같은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 수출 환경의 하방 리스크 우세로 수출 감소세 지속 전망
철강	・내수 부진에 따른 기업들의 수출확대 기조 ・인도, 아세안 지역 인프라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지속 ・중국 정부의 감산 추진	・중국 건설경기 부진 지속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설비능력 확대에 따른 대세계 수출경쟁 심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주요국 경기 부진 및 수요 감소 ・대미 25%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약화	・신흥국의 지속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주요국의 경기 부진과 공급과잉 영향으로 물량 기준 전년 대비 감소 전망
정유	・유가 하향안정화에 따른 수요 확대 ・나프타 및 항공유 중심의 수요 확대 ・비OECD 중심의 수요 증가 ・하반기 정제마진 개선 ・중국 내 티팟 및 OECD의 정제설비 폐쇄 및 전환	・국제유가 하락 ・상반기 정제마진 급락 ・미국의 관세정책 강화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수요 감소 ・석유제품 공급 대비 수요 확대폭 둔화	・하반기 정제마진 회복에도 불구 상반기 영향 및 하반기 국제유가 하락으로 전체적으로는 큰 폭 감소

(계속)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석유화학	· 주요 수출국 경기 제한적 회복 · 나프타 가격 하향 안정화로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회복 · 국내 증산, EU/일 설비 폐쇄로 수출 규모 확대	· 국제유가 하락에 연동된 수출단가 하락 · 미·중 무역분쟁 및 지정학적(인도) 불확실성 증가	· 시장 수요 회복세 둔화 · 공급과잉 부담 · 완만한 수출량 증가, 수출액 감소
섬유	· 미국의 대중 고율관세(30%) 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반사 이익 · 첨단소재 생산 증설에 따른 수출 확대 · 미·중 분쟁에 따른 첨단소재 반사이익 기대 · 한류 확산에 따른 K-패션 수요 확대	·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섬유 수요 둔화 · 미국 내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섬유 수요 위축, 대미 직수출 및 동남아 등 생산기지향 수출 감소 · 중국 이커머스의 급성장 및 대미 수출이 막힌 제품의 세계시장 덤핑 증가 · 지정학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수출 감소 · 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 해외 생산 확대	· 미국 관세정책발 무역분쟁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및 섬유 수요 둔화, 수출단가 하락, 경쟁심화로 하락세 지속
정보통신기기	· AI 서버 투자 확대로 기업용 SSD 수요 증가 · PC 교체수요(윈도10 지원 종료, AI PC)로 소비자용 SSD 수요 증가 · 스마트폰 수요 및 부품 수요 증가	· 스마트폰 및 주요 부품(SSD, 카메라 모듈 등)의 시장 경쟁 심화 · 해외생산 확대 ·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성성 증대	· 세계 정보통신기기 수요 증가로 수출 증가가 전망되나, 미국 통상정책(관세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등 수요 둔화 요인이 상존
가전	· 신흥국 수요 증가 · 선진국 수요 감소세 완화 · 미국 주택거래 회복 및 금리 하락 · AI 가전 등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	· 미국의 관세정책(불확실성 높음)에 따른 수요위축 등 부정적 영향 · 해외 생산 증가 ·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 심화	· 미국 관세정책과 해외생산 증가로 수출은 하반기에도 감소 지속, 소비심리 개선 및 기저효과로 수출 감소폭은 완화
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단가 회복 · AI 산업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 · HBM, DDR5 등 고부가 제품 판매 증가 · 반도체 수출처 다변화	· 글로벌 경기 불안정 · 중국 반도체 시장 축소	· 글로벌 경기가 불안정함에 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단가가 회복되면서 수출 증가 · 특히, AI 확산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HBM등 고부가 제품의 수출이 증가
디스플레이	· IT용 기기 OLED 침투율 상승 · 프리미엄 패널 수요 상승 · 지난해 스마트폰 수요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	· 주요 시장 불확실성 확대 · 2026년 애플 폴더블폰 출시 전망	· IT용 기기를 비롯한 대형 OLED 시장 규모 확대와 수출 패널 가격 상승으로 확대
이차전지	·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세 둔화 · 북미 전력망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ESS 수출 확대 · 미국, EU 등 주요 시장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개선	·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의 미국 공장 가동 본격화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미 시장 수요 위축	· 해외 공장 생산 물량 증가에 따른 수출 대체 효과 확대로 감소세는 이어지지만, 주요국 EV 수요 개선, ESS용 배터리 수출 호조 등으로 감소폭 자체는 축소될 전망
바이오헬스	· 위탁생산계약 수주실적 증가 · 미국·EU의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 및 활성화 추진 · 신약·백신·톡신·임플란트 수출 증가 · 의료위생용품 수요 증가	· 미 의약품 관세 리스크 불해소 · 의료기기 관세 부과	· 위탁생산계약 수주 및 바이오시밀러 등 주력 품목 수출 증가

□ 내수: 하반기 내수는 소비심리 개선 영향으로 하락폭 둔화가 예상되나 건설투자 부진과 국내외 성장 부진이 회복을 제약할 전망

○ (기계산업군) 내수시장 공략 강화로 하반기에도 자동차(2.1%) 내수는 증가할 전망이나 부진한 건설 및 제조업 경기 영향으로 일반기계(-1.7%) 하반기 내수는 감소 전환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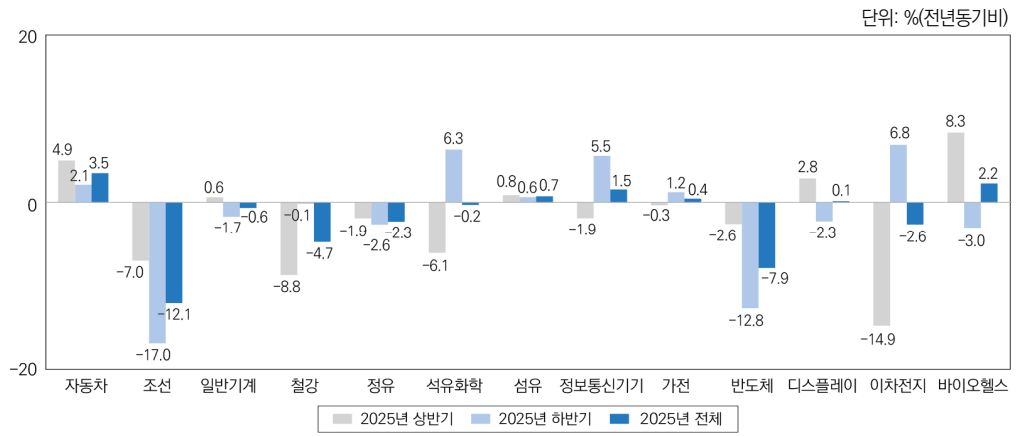
- 자동차 내수는 수출 판매 부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완성차업체의 내수시장 전략 강화, 다양한 차종의 신규모델 투입 효과로 하반기에도 2.1%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이에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70만 대를 기록할 전망

  • (2025.상) 상반기 내수는 전년 내수판매 부진에 따른 역기저와 수입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비 4.9% 증가한 84만 4,000대 기록 예상

- 조선 내수는 LNG운반선의 증가에도 컨테이너선, LPG운반선 인수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12.1% 감소(연간) 전망

- 일반기계 내수는 수요산업의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설비투자 수요 증가가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으나,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 및 제조업 전반의 경기 둔화로 인해 하반기 1.7% 감소,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6% 감소할 전망

〈그림 2-2〉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주: 1)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2) 조선산업의 내수는 국적 선사가 국내 또는 해외 조선사에 발주하여 인수받는 물량(CGT)으로 국내 해운사의 선박 발주량이 많지 않고 일정하지 않으므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

○ (소재산업군) 석유화학(-0.2%)의 하반기 내수 반등(+6.3%)이 예상되나, 철강(-4.7%)은 하반기(-0.1%)에도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섬유(0.7%)는 횡보세 예상

- 철강 내수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수요산업의 부진 및 해외 생산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지난해 침체된 수준이 유지될 전망, 연간 내수는 지난해 대비 4.7% 감소한 4,560만 톤 규모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

  · 상반기에는 건설용 봉형강류 및 판재류 수요 감소 지속과 자동차, 기계, 가전 등 주요 수요산업의 수출 부진 영향으로 내수 감소폭(-8.8%)이 전년동기 대비 더욱 심화될 전망

- 정유 하반기 내수는 석유화학용 수요 확대 및 운송용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유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2.6% 감소할 전망,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3% 감소 예상

- 석유화학 하반기(+6.3%) 내수는 반도체 업황 호조 영향 화학제품 중간재 수요 증가, 신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상저하고(上低下高) 모습을 보일 전망이나, 연간(-0.2%) 내수는 평년 수준(1,000만 톤)을 하회한 930만 톤 규모를 기록할 전망

  · (2025.상) 상반기 내수는 건설 및 제조업 업황 부진에 따라 전년동기비 6.1% 감소 예상

- 섬유산업 내수는 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내수진작책 등 소비여건 개선으로 낮은 증가세(+0.7%)를 유지할 전망이나 내수 성장은 국내 생산보다는 저가 중국산 수입 증가가 견인할 전망

○ (IT신산업군) 국내 IT 신제품 출시, 전기차 판매 개선 효과로 인해 하반기 정보통신기기(5.5%)와 이차전지(6.8%)의 내수 반등이 나타날 전망, 바이오헬스(2.2%)의 하반기(-3.0%) 내수는 기저효과로 감소하나 보건정책 지원 확대 영향으로 연간 내수는 지속 증가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의 2025년 내수는 국산·외산 신규 AI 스마트폰 및 슬림폰 출시효과, PC 교체수요 등으로 하반기(+5.5%)와 연간(+1.5%) 실적의 증가 전환 예상

  · (2025.상) 상반기 내수는 신제품 출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동통신사 서버 해킹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신규 가입 중단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9% 감소 추정

- 가전 내수는 하반기 민간소비 회복 기대감과 2023~2024년 내수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증가(+1.2%) 전환할 전망,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4% 증가 예상

- 반도체 내수는 SSD 등 컴퓨터 부품 수출 확대로 인한 내수 증가 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이 조절되면서 출하가 생산량을 추월하고 이에 따른 재고 감소의 영향으로 하반기 12.8%, 연간으로는 7.9% 감소할 전망

  ・국내 IT 기기 제조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에 따라 생산되는 반도체의 90% 이상은 수출되고 내수를 견인하는 반도체는 국내 생산이 어려운 첨단 시스템반도체가 대부분

- 디스플레이 내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 감소에도 패널 고부가화로 인한 소재 부품 수요 고도화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29조 1,000억 원(+0.1%) 전망

- 이차전지 내수는 올해 감소세를 이어가겠으나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 감소율보다 크게 완화된 2.6% 감소에 그칠 전망

  ・(2025.상) 상반기에는 업황 부진 및 해외 생산 비중 증가 등이 국내 이차전지 내수 위축을 견인하며 전년동기비 14.9% 감소 예상

- 바이오헬스 하반기(-3.0%) 내수는 전년 호실적 영향 소폭의 감소가 예상되나 국내 신약 및 비만치료제 처방 확대, 난임 및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보건정책 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25년 연간 내수는 전년 대비 2.2% 증가하며 57조 원 규모 기록 예상

  ・(2025.상) 상반기 내수는 독감 유행, 당뇨·비만치료제 처방 본격화, 난임 지원 정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8.3% 성장할 것으로 추정

〈표 2-8〉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다양한 차급의 BEV와 성능 향상된 HEV 신모델 출시로 다양한 수요 대응 가능 ・수출 부진에 따른 내수시장 공략 강화	・차량 가격 상승 ・경기 침체에 따른 낮은 구매 여력	・구매 여력이 낮은 상황에서 차량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 공략 강화와 다양한 차급의 BEV 및 HEV 출시로 증가 예상
조선	・LNG운반선, 벌크선 등 인수 증가	・컨테이너선, LPG운반선 인수물량 감소 ・인력 또는 숙련 부족으로 생산능력 확대 제한	・LNG운반선이 증가하지만, 2024년 많이 인도된 컨테이너선과 LPG운반선 등의 감소로 전체 물량은 감소
일반 기계	・수요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제조업 경기 회복세 미약	・수요산업의 점진적 경기 회복에 따른 기계류 투자 수요 확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조업 경기 둔화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전망

(계속)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철강	· 금리 인하 영향으로 인한 설비투자 개선	·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 건설투자 부진 지속 ·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수요산업의 수출여건 부진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	· 금리 인하에 따른 소폭의 설비투자 회복이 기대되나 주요 수요산업인 건설, 자동차, 가전 등의 경기 부진으로 전년에 이어 감소 전망
정유	· 국제유가 하향안정화에 따른 항공유 및 휘발유 중심 운송용 수요 확대 · 하반기 국내 석유화학제품 생산 확대	· 정부 규제강화로 인한 경유 수요 감소 · 유류세 환원 및 전기차 보급 확대 · 정제마진 변동성 대응을 위한 낮은 재고 수준 유지	· 하반기 휘발유, 항공유 및 나프타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영향 및 경유 수요 부진으로 전체적으로는 감소
석유화학	· 반도체 중심 전방산업 수요 증가 · 신정부 경기부양책으로 민간소비 소폭 증가	· 전방산업 업황(건설, 조선, 이차전지 등) 부진 · 소비심리 위축,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	· 하반기 내수 증가에도 불구, 내수 회복세 둔화(평년 수준 대비 하회)
섬유	· 금리 인하 및 물가 하락으로 소비 개선 · 신정부의 내수 진작을 통한 소비 개선 ·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입 확대 ·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 수요 확대 · 중국 과잉 물량 수입 및 C-커머스 국내 진출 가속화	·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 · 가계부채 체증 및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에 따른 소비 여력 감소 · 국내 섬유 생산활동 부진에 따른 섬유소재 내수 부진 · 건설투자 부진에 따른 건축자재용 섬유 수요 부진	· 소비 여건 개선 및 중국 및 해외 생산제품 수입 확대,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섬유 내수 소폭 증가
정보통신기기	· 신규 스마트폰(AI폰, 슬림형폰 등) 출시 · PC 교체수요(윈도10 지원 종료, AI PC) · 기업들의 AI 활용 등 디지털 전환 투자	· 가계 대출 부담과 제품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 이동통신사 해킹 사태로 수요 위축 ·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포화	· 스마트폰 신제품 및 PC 교체 수요는 긍정적 요인이나, 구매력 저하와 이동통신사 보안 문제 등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는 내수 확대의 제약 요인
가전	· 신정부 출범 및 정책지원 강화 · 2023~2024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 AI 가전 등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 · 가전 구독서비스 확대	· 부진한 상반기 경제성장률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우려 ·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 신정부 출범에 따른 내수 회복 기대감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하반기 내수는 증가 전환
반도체	· AI, 자율 주행 자동차 등 신기술 개발에 따른 연구 수요와 제품판매 확대 · 정보통신기기 수출 증가	· 국내 정세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 생산량 증가분보다 많은 출하(재고 소진)	· 신기술 개발 및 정보통신기기 수출 증가 등 증가 요인 존재하나, 소비심리 위축, 재고 소진에 따라 감소 전망
디스플레이	· 프리미엄 패널 생산 확대로 소재 부품 수요 확대	· IT 제품 시장 둔화로 소재 부품 수요 위축 ·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 감소	· 패널 고부가화로 인한 소재 부품 수요 확대에도 최종재 수요 축소로 보합
이차전지	· 전기차 신모델 출시 증가에 따른 국내 전기차 판매량 증가세	· 최근 기업의 실적 부진 여파로 국내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배터리 생산 능력 개선 여력 상실	· 이차전지 업황 부진으로 몇 년째 설비투자가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전년보다 큰 폭으로 완화된 -2.6% 기록 전망
바이오헬스	· 비만치료제 처방 연령층 확대 · 계절성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유행 · 난임 지원 정책 확대	· 고물가, 실질 구매력 둔화로 내수부진 · 의료공백 장기화로 수술 및 처방 감소	· 최근 부상하는 의약품 및 보건정책 지원확대 영향으로 내수시장 소폭 증가

□ 생산: 국내외 수요 부진 및 해외 생산 확대 영향으로 자동차, 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생산 부진세 지속 예상

○ (기계산업군) 수출과 내수 동반 부진에 따라 하반기 자동차(-4.4%) 및 일반기계(-3.5%) 생산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2년 연속 연간 생산은 감소할 전망, 조선(5.0%) 생산도 하반기(-5.8%) 감소가 예상되나 생산 정상화에 따라 연간으로는 생산 증가세 지속 예상

- 2025년 자동차 생산은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감소와 해외 전기차 전용 생산설비 가동 본격화에 따른 수출 물량 대체로 하반기 4.4% 감소, 연간으로는 4.3% 감소하며 2년 연속 생산 규모의 위축이 예상

  · 국내 공장 중심의 전기차 생산에서 해외 생산설비를 통한 전기차 공급으로의 전략 수정, 글로벌 불확실성 여파로 인한 중견업체의 생산계획 지연 등도 생산에 부정적 영향

- 조선 생산은 2024년의 충분한 인력 확보, 신규 인력의 숙련도 향상, 풍부한 수주잔량을 처리하기 위한 설비투자 영향으로 상반기 16.9% 증가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컨테이너선 생산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5.8% 감소, 연간으로는 5.0% 증가 전망

- 일반기계 생산은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내수 또한 감소로 전환되면서 상반기 2.5% 감소에 이어 하반기에도 3.5% 감소할 전망, 연간으로는 3.0% 감소 기록 예상

○ (소재산업군) 수출 부진, 내수 회복의 지연에 따라 하반기에도 철강(-1.3%), 정유(-2.2%), 섬유(-1.4%) 등 대다수 산업생산의 감소가 이어질 전망, 석유화학(-0.4%)은 하반기(3.5%) 소폭 개선 기대

- 철강은 건설, 자동차 등 주요 수요산업 부진 및 수출 감소 영향으로 연중 생산이 위축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연간 생산규모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6,518만 톤을 기록할 전망

  · (2025.상) 현대제철은 건설용 판매 부진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위해 올해 4월 인천 철근 공장에 대해 전면 셧다운을 실시하였으며, 5월에도 감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정유는 하반기 정제마진 개선으로 국내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에 따른 생산량 확대가 예상되지만 미국의 관세 전쟁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수적 설비운영 기조가 유지되며 전년동기비 2.2% 감소, 연간으로는 3.1% 감소 기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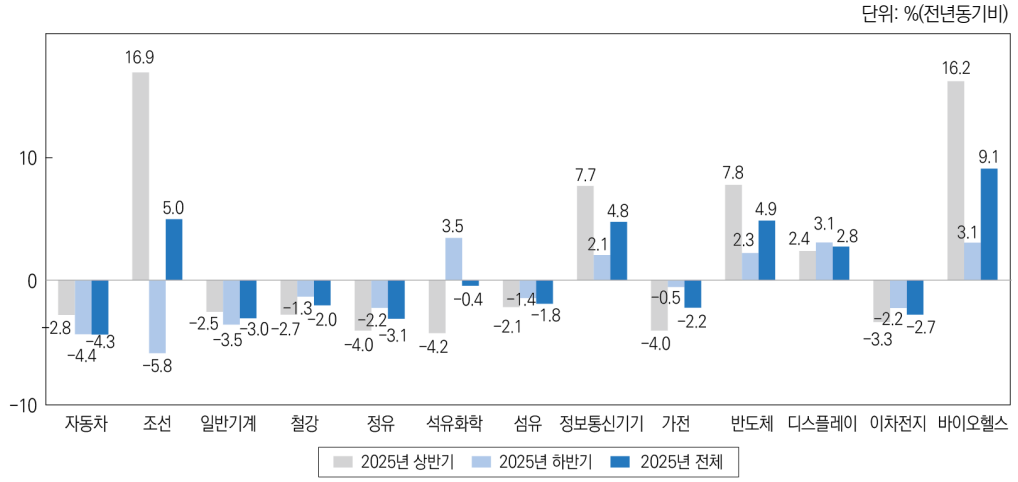
• (2025.상) 국내 정유사의 정제설비 가동률은 정제마진 부진으로 지난해 85.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80% 초반대로 하향 조정

- 석유화학 하반기 생산은 국제유가 하락폭이 전기 대비 확대되며 제품 스프레드 개선과 생산시설 가동률 상승을 견인하고 중국발 공급과잉이 다소 완화되며 전년동기비 3.5% 증가 예상, 연간으로는 0.4% 감소하며 전년 수준의 생산 기록 예상

• (2025.상) 국제유가 하락과 제품 스프레드 소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전년동기비 4.2% 감소, 일시적으로 국내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조업중단점에 근접했고, 수익성 악화로 인해 일부 생산시설은 시설 보수 기간을 연장하는 모습

- 섬유 생산은 미국의 대중 상대적 고율관세에 의한 반사이익, 첨단소재 생산설비 증설 및 본격 가동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 구조조정 지속에 따른 생산 물량 조절, 해외 생산 확대 및 수입 확대 등으로 하반기 1.4% 감소,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8% 감소 기록 예상

〈그림 2-3〉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IT신산업군) 하반기 생산은 상반기 대비 증가폭이 둔화되나 수출 증가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2.1%), 반도체(2.3%), 바이오헬스(3.1%)의 생산 증가가 지속될 전망이나 해외 생산 확대 영향으로 가전(-0.5%)과 이차전지(-2.2%)는 하반기에도 생산이 지속 감소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 생산은 상반기 SSD와 스마트폰부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7.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하반기에도 AI 확산에 따른 국내 정보통신기기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2.1% 증가할 전망, 연간으로는 4.8% 증가 기록 예상

- 가전은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해외 생산 기조 강화,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입 확대로 인한 내수시장 점유율 하락 등이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상·하반기 생산이 모두 부진할 전망, 연간 생산은 전년 대비 2.2% 감소 기록 예상

- 반도체 하반기 생산은 수출의 연중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HBM 등 고부가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해 가동률이 상향되고 생산 효율성 높아지며 전년동기비 2.3% 증가할 전망, 이에 연간 생산은 전년 대비 4.9% 증가 기록 예상

- 디스플레이 생산은 IT용 패널을 비롯한 수요처 다변화 효과로 하반기 3.1% 증가하고 연간으로는 2.8% 증가할 전망

- 이차전지 생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현지 생산 확대가 수출용 이차전지 국내 생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하반기 2.2% 감소, 연간으로는 2.7% 감소 기록 예상, 감소폭은 지난해(-28.6%) 대비 대폭 축소될 전망

- 바이오헬스 생산은 미 의약품 수입관세 리스크가 존재함에도 전통제약사 및 바이오텍 수출 주력품목의 생산 확대와 위탁생산 사업에 신규진출한 국내 중견·중소 제약사의 설비투자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 예상

  ・(2025.상) 상반기 생산은 해외 제약사와의 위탁생산 거래 실적 급증에 따른 가동률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6.2% 증가 예상

〈표 2-9〉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전기차 전용 공장 증축 ・중견업체 신차효과 및 실적 개선	・미국 내 전기차 전용 공장 신규 가동 ・미국 고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수출 감소 전환	・해외공장을 통한 전기차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출을 대체하면서 생산이 감소할 전망
조선	・LNG운반선 인도 증가 ・인력 확보 및 숙련도 향상으로 생산현장의 안정화	・컨테이너선 인도 감소 ・조선기자재 산업의 생산능력 확대 제한이나,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	・납기가 긴 LNG운반선을 대량 생산하면서 물량은 유지되는 수준 ・인도 조정된 물량의 조기 인도가 가능하다면, 더 많은 생산도 가능할 전망

(계속)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일반 기계	· 수요산업 점진적 회복 국면 진입 기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 수출 감소 · 대내외 기계류 투자심리 위축(저성장,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등)	·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감소 전망
철강	· 인도 등 신흥국향 수출 확대 · 후판, 열연강판 등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조사개시로 수입재 유입 감소	· 건설, 자동차, 가전 등 내수 위축 지속 ·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가동률 하향 조정 및 설비가동 중단 · 세계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수입재 유입 지속	· 신흥국향 수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 자동차, 가전 등 내수 부진 및 가동률조정 영향으로 생산은 하락세 지속 전망
정유	· 유가 하향 안정화에 따른 수요 확대 · 하반기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 회복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 · 하반기 석유화학용 석유제품 중심의 수요 확대	· 상반기 정제마진 악화 및 국내 정제설비 가동률 하향 조정 · 글로벌 수출 경쟁 심화 · 정제마진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수적 설비 운영	· 하반기 정제마진 개선에 따른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에도 불구 수요 확대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생산량 감소
석유 화학	· 제품 스프레드 확대(유가 하락) · 신증설 생산시설 가동률 소폭 상승	· 해외 생산시설 폐쇄(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 하반기 생산 증가 · 완만한 수출량 증가, 내수 회복세 둔화로 횡보
섬유	· 민간소비 개선에 따른 내수 증가 · 디지털 전환, 친환경 트렌드 대응 고부가 제품 생산 및 투자 확대 · 냉감기능성 소재, 스판덱스 등 고기능성 섬유소재 및 의류 수요 증가 · 화섬기업의 고기능성 소재 증설분의 본격 가동	· 수출 및 내수 등 국산 제품 수요 부진에 따른 가동률 조정 · 범용 원사 국내 생산 감소 지속 · 범용 원사 전방산업인 직물, 염색가공 등의 연쇄적 생산 및 수출 부진 · 중국 등 해외 중저가 섬유소재 및 의류 수입 확대 및 경쟁 심화 · 수요 위축에 따른 재고 증가 · 해외 생산 지속 확대 및 역수입 증가	· 내수 개선 불구 국내 생산 기반 약화, 해외 생산 확대 및 수입 증대로 국내 생산 감소
정보 통신 기기	· SSD 및 스마트폰부품 수출 증가	· 스마트폰 완제품 해외 생산 증가 · 주요 부품의 해외 현지 조달 및 생산 증가	· 해외 생산 증가하나 주요 부품의 수출 증가에 대응한 생산 증가 ·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한 국내 생산 비중 확대 가능성이 상존
가전	· 내수의 증가 전환 · 2023~2024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 국내 프리미엄 제품 생산 비중 증가	· 수출 부진 지속 · 미국 관세정책, 글로벌 경쟁 심화로 해외 생산이 더욱 확대 · 중국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입 확대	· 내수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 해외 생산 확대 유인 증가, 중국 기업의 국내시장 진입 확대 등에 따라 생산은 하반기에도 감소세를 지속
반도체	· 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 · 주요 시장이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등 첨단 제조 공정 발달	· 없음	· 고부가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가동률을 높이고, 생산 효율성이 증대
디스 플레이	· IT용 패널 시장 확대 · LCD 시장 독점력 확대로 인한 OLED 적용 확대	· 수요제품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 압력	· IT용 패널 등 수요제품 다변화로 소폭 증가 전망
이차 전지	· 국내 전기차 판매 회복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국내 배터리 생산 증가	· 해외 현지 생산 증가로 수출용 이차전지 국내 생산 감소	· 해외 생산이 늘면서 2025년도에도 국내 생산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
바이오 헬스	· 다국적 제약사 위탁생산계약 수주 증가 · 국내 제약사 설비투자 확대	· 미 의약품 수입 관세 및 약가 인하 정책 추진 본격화 · 일부 원료의약품 조달 경색	· 국내 위탁생산시설 가동률 상승과 주력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

□ 수입: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은 IT 제품의 수입 증가에도 기계·소재산업군의 내수 위축과 저가 수입 확대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비 0.5% 감소할 전망, 연간 수입은 전년 대비 0.7% 감소 예상

○ (기계산업군) 저가 전기차 수입 확대 영향으로 자동차 연간 수입은 소폭 감소하고 제조업 경기의 미약한 개선에 따라 일반기계 수입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기자재 국산화 영향으로 조선의 연간 수입은 증가 예상

- 2025년 자동차 수입은 테슬라·BYD 등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들의 저가형 신모델 출시 및 중견 완성차 업체의 부품 수입 증가로 물량은 전년 대비 2.8% 증가할 전망이나 단가 하락에 따라 금액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0.5% 감소한 205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 (2025.상) 상반기 수입은 가격경쟁력 높은 중국 BYD의 내수시장 진입 영향으로 물량 기준 전년동기비 11.2% 증가할 전망이나 금액 기준으로는 -4.4% 기록 예상

- 2025년 조선 수입은 해외로부터 편의치적선 유입이 지속되고 기자재 수입도 증가하지만, 하반기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노력으로 9.6% 감소하면서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6.7% 증가할 전망

  • (2025.상) 상반기 수입은 해외로부터 선박, 선체 블록, 해양플랜트 모듈, 조선기자재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비 29.7% 증가할 전망

- 일반기계 수입은 전년 수입 감소로 인한 기저효과와 수요산업 설비투자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증가요인이 존재하나, 제조업 경기회복세 미약으로 보합세(0.4%) 예상

○ (소재산업군) 내수 위축 및 수입규제에 따라 철강 수입은 감소하고 단가 하락으로 정유 수입도 큰 폭 감소 예상, 내수 개선 영향 저가 수입재 확산으로 석유화학과 섬유 수입은 소폭의 증가세 지속 예상

- 철강 수입은 하반기에도 내수가 부진하고 일본 및 중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조사, 중국의 정부주도 감산 가능성에 따라 감소할 전망이며 이에 연간 수입액은 8.7% 감소 기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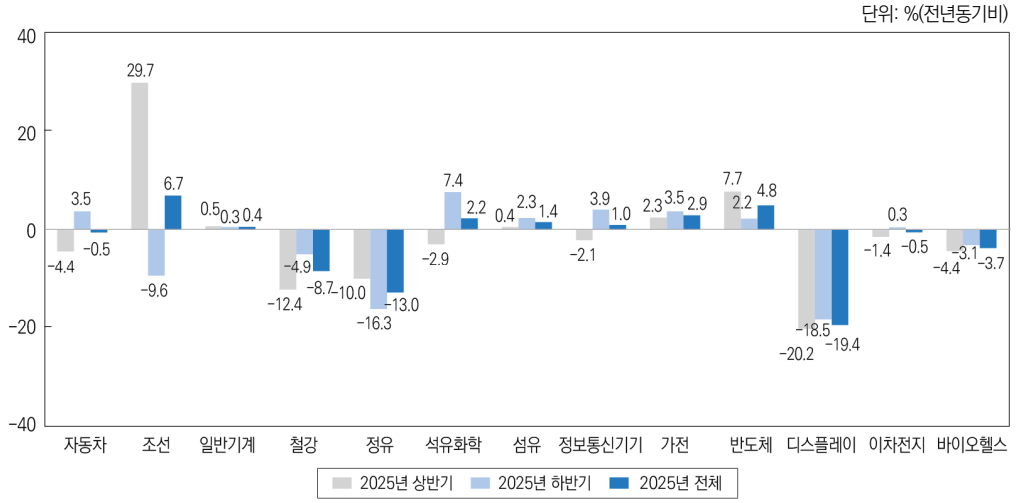
• (2025.상) 상반기 수입은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규모 축소, 중국, 베트남, 일본산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조사개시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2.4% 감소 예상

- 정유는 전방산업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하반기 수요 확대로 수입 물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에 그칠 전망이나 국제유가 하락 및 나프타 가격 강세 완화로 인한 수입 단가의 큰 폭 하락에 따라 하반기 수입 감소폭이 확대되며 연간으로는 13.0% 감소할 전망

- 석유화학 수입은 수입단가 하락으로 상반기 2.9%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 내수 및 수출 상황이 개선되고, 중국산 범용제품의 수입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수입액이 전년동기비 7.4% 증가할 전망,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2% 증가 예상

- 섬유 수입은 하반기 내수 규모의 정체 속에서도 대미 수출이 제한되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물량과 중국 직구 플랫폼을 통한 소포 물량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베트남 등 해외 생산제품의 역수입 지속에 따라 하반기 2.3% 증가, 연간으로는 1.4% 증가할 전망

〈그림 2-4〉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IT신산업군) 하반기 소비심리 개선 영향 IT·가전 수입 증가와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한 반도체 수입의 지속 예상, 국내 내수 개선 영향으로 이차전지 수입 감소폭은 크게 둔화될 전망

- 정보통신기기 수입은 하반기 소비심리 개선 및 스마트폰·PC 신제품에 대한 교체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반기 3.9% 증가하고 연간으로도 전년 대비 1.0% 증가세로 전환될 전망

- 가전 수입은 중국 진공청소기 등의 국내 진입 확대,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역수입 증가 지속으로 하반기에 전년동기비 3.5% 증가할 전망, 연간 기준으로는 2.9% 증가 예상

  · 가전 구독서비스와 스마트홈 플랫폼 확대는 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반도체는 AI 등 첨단 기술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사용하는 반도체 수입이 계속되며 하반기 2.2% 증가하고 연간 수입은 전년 대비 4.8% 증가할 전망

- 디스플레이 수입은 LCD 가격 하락 및 재고 조정 물량 축소에 따라 상반기(-20.2%)에 이어 하반기에도 18.5%의 큰 폭 감소 전망, 연간 수입은 19.4% 감소할 전망

- 이차전지는 2024년 큰 폭 감소(-41.4%)에 따른 기저효과, 전기차 신모델의 활발한 출시 및 국내 전기차 내수 개선 영향으로 한국 이차전지 기업의 중국 생산거점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며 연간 수입은 0.5% 감소할 전망

- 바이오헬스 수입은 비만치료제 처방의 본격화가 의약품 수입을 견인할 전망이나 고환율 기조 지속에 따른 수입 지연, 일부 원료·완제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공급 중단 사례 발생 영향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3.7%)를 기록할 전망

〈표 2-10〉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 저가형 BEV 신모델 출시 · AS 및 OEM 부품 수요 증가	· 국내 완성차 고급브랜드 라인업 확대 · 시장 위축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 고급차 시장 확대와 AS 부품 수요 증가 등의 긍정적 요인 우세하나 수입단가 하락으로 소폭 감소
조선	· 수입기자재가 많은 LNG운반선의 고수준 생산 지속	· 국내 해운사의 선박 수입 지속되나 소폭 감소 · 해외 생산 블록 및 모듈 감소, 기자재 국산화 및 국산 기자재 탑재 노력을 통한 수입 감소	·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박 도입 및 해외 블록·모듈 감소로 하반기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증가
일반 기계	· 수요산업 점진적 회복세로 관련 투자 수요 점차 확대	· 제조업 전반의 내수 경기 회복 흐름 약화	· 제조업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정체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

(계속)

	증가 요인	감소 요인	종합평가
일반 기계	· 디지털 · 그린 전환 대응을 위한 첨단 제조 장비, 친환경 산업장비 및 기계류 투자 수요 확대		
철강	·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및 중국 수요 부진에 따른 중국 내 공급과잉 심화로 밀어내기 수출 확대 가능성 존재	· 중국, 베트남, 일본산 주요 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조사개시 · 건설,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수요산업의 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규모 축소 · 중국 정부의 감산 추진 가능성	· 내수 회복 부진과 주요 수입품목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및 조사개시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폭 확대 전망
정유	· 하반기 전방산업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량 확대	· 유가 하락 및 나프타 가격 강세 완화	· 수입 물량 및 수입 단가 동반 하락으로 감소
석유 화학	· 제한적 내수 회복 · 중국산 범용제품 국내 유입 증가	· 수입 단가 하락 · 전방산업 업황(건설, 조선, 이차전지 등) 부진	· 수입 단가 하락에도 불구, 수입규모 확대 지속
섬유	·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 개선 · 범용 PF사 생산 중단에 따른 원사 및 생지 수입 증가 · 해외 생산 제품의 역수입 증가 · 중국 제품의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에 따른 소비 여력 제한적	· 중저가 수입의류 소비 확대 및 국내 생산 중단에 따른 범용 사직물 수입 수요 확대로 증가
정보 통신 기기	· 외산 신제품 출시 및 수요 증가 · 해외 생산 제품의 역수입 증가	· 가계 부채 부담, 제품가격 상승, 정치적 불안감 등에 따른 소비자 구매심리 저하 · 국내 제품의 경쟁력 제고	· 신제품 수요에 힘입어 하반기에 수입 증가 전망
가전	· 내수의 증가 전환 · 중국 브랜드의 국내시장 진입 확대 ·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역수입 증가	· 국내 브랜드 경쟁력 유지(구독서비스 및 스마트홈 플랫폼 기반)	·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출 확대, 역수입 증가로 환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반도체	· 해외 생산기지에서 생산한 메모리반도체 후공정 처리 증가 · 신산업 발달로 인한 시스템반도체 수요 증가	· 없음	· 신산업 발달로 인해 시스템반도체 위주로 수입이 증가
디스 플레이	· LCD 생산 축소로 인한 수입 대체 · 수요제품 면적 확대로 인한 가격 상승	· IT 제품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패널 가격 하락 · 수요 제품 생산 전략 변화로 물동량 축소	· LCD 패널 가격 하락 및 불확실성 확대로 감소
이차 전지	·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율 하락 · 전기차 내수 회복에 따른 국내 생산 대응을 위한 이차전지 수입 증가	· 미국 행정부의 전기차 관세 부과 및 미 현지 생산 증가로 수출용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	· 기저효과 및 전기차 내수 회복 등의 영향으로 수입 감소율은 전년보다 크게 완화된 -0.5%에 그칠 전망
바이오 헬스	· 만성질환·비만치료제 처방 증가 · 항암제, 면역질환 치료제 선방	· 고환율 지속 · 일부 원료·완제의약품 조달 경색 심화, 처방 지연	· 일부 의약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 유지

3. 종합 및 시사점

□ 2025년 13대 주력산업 전망 종합

○ 2025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 및 자국 중심 정책 추진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IT 수요 개선이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과 수출 확대를 견인할 전망, 바이오헬스와 조선산업도 하반기 일시적 둔화가 나타나겠지만 2025년 전체적으로 양호한 실적 달성은 무난할 전망

- 국내외 수요 부진, 수출 여건의 악화 및 해외 생산 확대 여파로 자동차, 기계, 철강, 정유, 가전, 이차전지 산업의 침체 국면 지속이 예상되고 석유화학은 하반기 업황 개선이 미약세에 그치며 업황 회복 시점은 2026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

〈표 2-11〉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전망 기상도

		수출		내수		생산	
		하반기	연간	하반기	연간	하반기	연간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	☁
	조선	☁	☼☼	☂☂	☂☂	☂	☼
	일반기계	☂	☂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	☁
	정유	☂☂	☂☂	☁	☁	☁	☁
	석유화학	☁	☂	☼	☁	☁	☁
	섬유	☁	☁	☁	☁	☁	☁
IT 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	☁
	가전	☁	☁	☁	☁	☁	☁
	반도체	☁	☼	☂☂	☂	☁	☁
	디스플레이	☁	☁	☁	☁	☁	☁
	이차전지	☂	☁	☼	☁	☁	☁
	바이오헬스	☼☼	☼☼	☁	☁	☁	☼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내수와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4) 조선산업의 내수는 국적 선사가 국내 또는 해외 조선사에 발주하여 인수받는 물량(CGT)으로 국내 해운사의 선박 발주량이 많지 않고 일정하지 않으므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

○ **〈자동차〉** 수출 감소가 생산 감소로 이어지면서 침체 국면 예상

- 하반기 미국 고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어 현지 생산이 수출을 대체하고 미국 시장 수요 위축으로 부품 수출까지 영향을 주면서 큰 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예상
- 정부의 내수 진작책으로 내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수출 감소폭을 상쇄하지 못하면서 생산 감소로 이어져 2년 만에 연간 400만 대를 하회할 전망

○ **〈조선〉** 2025년 하반기 조선산업의 성장세는 둔화, 연간으로는 양호한 실적 기록 예상

- 2025년 조선산업은 생산(건조)량은 증가하고 높은 수준의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과 수출이 지속될 전망, 해운시황은 약세로 전환되나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LNG 운반선 외에도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수주 감소는 소폭에 그칠 전망

○ **〈일반기계〉** 수출과 내수 모두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일 전망

- 2025년 일반기계산업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인한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속에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국내 건설경기 및 주요 수요산업의 회복 지연으로 내수 역시 위축되며 전반적인 부진 흐름이 지속될 전망

○ **〈철강〉** 2024년 침체 국면 진입, 2025년에도 연중 역성장세 지속 예상

- 2025년 철강산업은 건설 등 수요산업 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과 하반기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수출 감소로 생산이 지속 감소하며 위기감이 고조될 전망

○ **〈정유〉** 하반기 정제마진 개선에 따른 정유 산업의 회복 국면 진입 예상

-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시 저유가로 인한 글로벌 석유제품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정제마진 개선으로 국내 생산량 및 수출 회복 기대

○ **〈석유화학〉** 업황 회복 시점은 2026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

- 2025년 석유화학산업 생산, 내수, 수출은 하반기 업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문제 등 불확실성 요소들이 석유화학제품 수요를 위축시켜 공급과잉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국내 석유화학 업황 부진은 2025년까지 지속된 후,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섬유〉** 업황 부진 지속 전망

- 2025년 섬유산업은 범용 제품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국내 생산 및 수출 둔화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 생산 기반의 지속 약화가 예상

○ **〈정보통신기기〉** 하반기 정보통신기기 산업은 미국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나, 연간 기준으로는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

- 통상정책 리스크는 세계 시장 수요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나, 생성형 AI의 활용 확산이 국내 정보통신기기산업의 생산·수출 확대를 견인할 전망

○ **〈가전〉** 글로벌 수요 회복이 불확실한 가운데, 해외 생산 확대로 수출은 소폭 감소 전망

- 2025년 가전산업은 선진국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정책과 해외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수출은 감소하고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출 가속화로 수입은 증가할 전망

○ **〈반도체〉** 반도체산업은 기존 주요 수요산업의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AI 반도체 수요 증가와 제조기업의 공급 조정 등에 의해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AI 관련 투자 증가로 글로벌 IT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기업들은 기존 제품에 대한 공급량을 조절하며 가격 하락을 방어하고 있어 반도체 경기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

○ **〈디스플레이〉** 연간 수출은 부진하나 하반기 디스플레이산업의 회복 국면 진입 예상

- 2025년 하반기 디스플레이산업은 지난해 스마트폰 수요 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IT 제품의 OLED 채택 확대로 수출과 생산에서 회복세 진입 전망

○ **〈이차전지〉** 크게 부진했던 2024년에 비해 2025년 하반기 이차전지 업황은 소폭 개선될 전망

- 세계 시장 수요 기반이 개선되고 있지만 해외 현지 생산 확대 영향으로 수출과 생산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성장세로의 전환은 어려울 전망

○ **〈바이오헬스〉** 하반기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세가 유지되며 양호한 실적 기록 예상

- 2025년 바이오헬스산업은 바이오시밀러, 임플란트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내수가 다소 회복되면서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표 2-12〉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93,818 (21.2)	48,312 (2.2)	45,004 (-3.3)	93,316 (-0.5)	45,938 (-4.9)	39,883 (-11.4)	85,820 (-8.0)
조선	21,792 (19.9)	11,736 (27.8)	13,900 (10.2)	25,636 (17.6)	13,873 (18.2)	14,376 (3.4)	28,249 (10.2)
일반기계	53,432 (4.6)	26,072 (-2.1)	25,100 (-6.3)	51,172 (-4.2)	23,866 (-8.5)	23,641 (-5.8)	47,507 (-7.2)
철강	35,192 (-8.5)	16,616 (-10.2)	16,666 (-0.1)	33,282 (-5.4)	16,094 (-3.1)	16,474 (-1.1)	32,568 (-2.1)
정유	51,999 (-17.3)	26,441 (7.6)	23,885 (-12.9)	50,326 (-3.2)	20,473 (-22.6)	20,155 (-15.6)	40,628 (-19.3)
석유화학	45,703 (-15.9)	24,419 (5.2)	23,566 (4.8)	47,985 (5.0)	22,843 (-6.5)	22,609 (-4.1)	45,452 (-5.3)
섬유	10,915 (-11.3)	5,329 (-5.0)	5,134 (-3.2)	10,463 (-4.1)	5,015 (-5.9)	5,100 (-0.7)	10,115 (-3.3)
정보통신기기	24,323 (-30.2)	12,757 (12.0)	18,753 (45.0)	31,510 (29.5)	14,240 (11.6)	18,987 (1.2)	33,227 (5.4)
가전	7,944 (-1.0)	4,143 (3.5)	3,831 (-2.8)	7,974 (0.4)	3,853 (-7.0)	3,793 (-1.0)	7,646 (-4.1)
반도체	98,634 (-23.7)	65,741 (52.2)	76,179 (37.4)	141,920 (43.9)	70,478 (7.2)	79,624 (4.5)	150,102 (5.8)
디스플레이	18,587 (-12.1)	8,891 (16.2)	9,856 (-9.9)	18,747 (0.9)	8,143 (-8.4)	10,093 (2.4)	18,236 (-2.7)
이차전지	9,831 (-1.5)	3,959 (-21.4)	4,244 (-11.6)	8,202 (-16.6)	3,911 (-1.2)	4,028 (-5.1)	7,939 (-3.2)
바이오헬스	13,661 (26.9)	7,614 (9.3)	7,865 (17.5)	15,479 (13.3)	8,300 (9.0)	8,875 (12.8)	17,175 (11.0)
13대 합계	485,831 (-9.5) 〈76.8〉	262,030 (12.3) 〈78.3〉	273,983 (8.5) 〈78.6〉	536,012 (10.3) 〈78.4〉	257,027 (-1.9) 〈77.8〉	267,638 (-2.3) 〈78.6〉	524,664 (-2.1) 〈78.2〉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출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3〉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물량, 원화 기준)

단위: %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2,766 (20.3)	1,467 (3.2)	1,316 (-2.2)	2,783 (0.6)	1,358 (-7.5)	1,180 (-10.3)	2,538 (-8.8)
조선 (만 CGT)	766 (17.8)	408 (3.6)	450 (21.0)	858 (12.0)	513 (25.7)	445 (-1.1)	958 (11.7)
일반기계 (십억 원)	69,525 (19.1)	35,202 (7.3)	33,975 (-7.4)	69,178 (-0.5)	34,467 (-2.1)	33,169 (-2.4)	67,636 (-2.2)
철강 (천 톤)	27,341 (6.5)	13,579 (0.5)	14,771 (6.8)	28,350 (3.7)	13,856 (2.0)	14,183 (-4.0)	28,039 (-1.1)
정유 (십만 배럴)	4,944 (-0.5)	2,577 (6.4)	2,564 (1.6)	5,140 (4.0)	2,378 (-7.7)	2,578 (0.5)	4,956 (-3.6)
석유화학 (천 톤)	36,770 (-0.3)	19,451 (8.1)	19,976 (6.4)	39,427 (7.2)	18,524 (-4.8)	20,155 (0.9)	38,679 (-1.9)
섬유 (십억 원)	14,330 (-12.7)	7,195 (-1.0)	7,064 (0.0)	14,260 (-0.5)	7,243 (0.7)	7,155 (1.3)	14,398 (1.0)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31,941 (-34.1)	17,224 (16.8)	25,374 (47.6)	42,598 (33.4)	19,106 (10.9)	24,863 (-2.0)	43,969 (3.2)
가전 (십억 원)	10,374 (0.5)	5,594 (7.9)	5,280 (1.8)	10,874 (4.8)	5,565 (-0.5)	5,321 (0.8)	10,886 (0.1)
반도체 (십억 원)	128,947 (-25.1)	88,763 (58.6)	103,116 (41.3)	191,879 (48.8)	101,784 (14.7)	111,712 (8.3)	213,497 (11.3)
디스플레이 (십억 원)	24,310 (-10.9)	12,005 (21.1)	13,341 (-7.3)	25,346 (4.3)	11,760 (-2.0)	14,160 (6.1)	25,920 (2.3)
이차전지 (십억 원)	12,837 (-4.3)	5,345 (-18.0)	5,745 (-9.1)	11,090 (-13.6)	5,649 (5.7)	5,651 (-1.6)	11,300 (1.9)
바이오헬스 (십억 원)	17,841 (-26.1)	10,382 (14.1)	10,724 (22.6)	21,106 (18.3)	11,816 (13.8)	12,634 (17.8)	24,450 (15.8)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4〉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1,745 (2.9)	804 (-10.3)	842 (-0.8)	1,646 (-5.7)	844 (4.9)	859 (2.1)	1,703 (3.5)
조선 (만 CGT)	170 (21.4)	157 (121.1)	165 (66.7)	322 (89.4)	146 (-7.0)	137 (-17.0)	283 (-12.1)
일반기계 (십억 원)	125,486 (-2.1)	61,247 (-6.2)	64,037 (6.3)	125,284 (-0.2)	61,614 (0.6)	62,960 (-1.7)	124,573 (-0.6)
철강 (천 톤)	52,435 (2.2)	25,165 (-8.7)	22,621 (-9.0)	47,786 (-8.9)	22,953 (-8.8)	22,606 (-0.1)	45,559 (-4.7)
정유 (십만 배럴)	11,081 (-0.5)	5,762 (5.3)	5,796 (3.3)	11,558 (4.3)	5,650 (-1.9)	5,643 (-2.6)	11,293 (-2.3)
석유화학 (천 톤)	10,225 (-6.7)	4,838 (-7.6)	4,466 (-10.5)	9,304 (-9.0)	4,542 (-6.1)	4,745 (6.3)	9,287 (-0.2)
섬유 (십억 원)	63,743 (4.2)	33,585 (2.4)	31,569 (2.0)	65,154 (2.2)	33,840 (0.8)	31,745 (0.6)	65,585 (0.7)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51,003 (-1.0)	25,023 (-8.3)	20,627 (-13.0)	45,650 (-10.5)	24,558 (-1.9)	21,765 (5.5)	46,323 (1.5)
가전 (십억 원)	32,305 (-4.0)	15,534 (-1.2)	16,251 (-2.0)	31,785 (-1.6)	15,485 (-0.3)	16,440 (1.2)	31,925 (0.4)
반도체 (십억 원)	61,701 (-11.3)	26,354 (-15.7)	28,504 (-6.4)	54,858 (-11.1)	25,663 (-2.6)	24,852 (-12.8)	50,516 (-7.9)
디스플레이 (십억 원)	25,766 (-15.8)	13,433 (10.7)	15,654 (14.9)	29,087 (12.9)	13,813 (2.8)	15,298 (-2.3)	29,111 (0.1)
이차전지 (십억 원)	9,924 (48.1)	1,701 (-74.6)	2,228 (-40.1)	3,929 (-60.4)	1,447 (-14.9)	2,379 (6.8)	3,826 (-2.6)
바이오헬스 (십억 원)	53,529 (17.5)	26,170 (1.2)	30,043 (8.6)	56,212 (5.0)	28,336 (8.3)	29,138 (-3.0)	57,474 (2.2)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5〉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4,244 (13.0)	2,145 (-2.4)	1,983 (-3.1)	4,128 (-2.7)	2,085 (-2.8)	1,896 (-4.4)	3,981 (-4.3)
조선 (만 CGT)	924 (18.2)	550 (19.0)	601 (30.1)	1,151 (24.6)	643 (16.9)	566 (-5.8)	1,209 (5.0)
일반기계 (십억 원)	155,045 (3.1)	75,732 (-3.7)	76,987 (0.7)	152,719 (-1.5)	73,812 (-2.5)	74,270 (-3.5)	148,082 (-3.0)
철강 (천 톤)	69,880 (2.9)	33,549 (-6.3)	32,938 (-3.3)	66,486 (-4.9)	32,654 (-2.7)	32,523 (-1.3)	65,177 (-2.0)
정유 (십만 배럴)	12,305 (-1.1)	6,358 (4.1)	6,403 (3.4)	12,761 (3.7)	6,103 (-4.0)	6,261 (-2.2)	12,364 (-3.1)
석유화학 (천 톤)	21,639 (-2.2)	10,871 (2.0)	10,219 (-7.0)	21,091 (-2.5)	10,419 (-4.2)	10,578 (3.5)	20,997 (-0.4)
섬유 (십억 원)	53,267 (4.9)	28,750 (1.0)	24,390 (-1.7)	53,140 (-0.2)	28,157 (-2.1)	24,050 (-1.4)	52,207 (-1.8)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6,308 (-15.6)	24,591 (3.7)	27,132 (20.1)	51,723 (11.7)	26,493 (7.7)	27,694 (2.1)	54,187 (4.8)
가전 (십억 원)	32,078 (-2.7)	15,473 (-0.5)	15,803 (-4.4)	31,276 (-2.5)	14,862 (-4.0)	15,725 (-0.5)	30,587 (-2.2)
반도체 (십억 원)	109,220 (-22.7)	70,088 (48.0)	79,011 (27.7)	149,099 (36.5)	75,559 (7.8)	80,839 (2.3)	156,398 (4.9)
디스플레이 (십억 원)	45,395 (-14.4)	22,656 (13.8)	26,658 (4.6)	49,314 (8.6)	23,200 (2.4)	27,485 (3.1)	50,685 (2.8)
이차전지 (십억 원)	11,237 (-5.3)	3,822 (-30.1)	4,206 (-11.5)	8,028 (-28.6)	3,696 (-3.3)	4,113 (-2.2)	7,809 (-2.7)
바이오헬스 (십억 원)	43,476 (9.7)	22,423 (7.5)	26,592 (17.6)	49,015 (12.7)	26,051 (16.2)	27,429 (3.1)	53,480 (9.1)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표 2-16〉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22,772 (2.9)	10,315 (-18.5)	10,313 (1.9)	20,628 (-9.4)	9,862 (-4.4)	10,673 (3.5)	20,534 (-0.5)
조선	2,498 (-21.1)	1,667 (39.5)	2,340 (79.6)	4,007 (60.4)	2,162 (29.7)	2,115 (-9.6)	4,277 (6.7)
일반기계	30,766 (-2.8)	15,344 (-3.0)	15,533 (3.9)	30,877 (0.4)	15,420 (0.5)	15,580 (0.3)	30,999 (0.4)
철강	22,554 (-9.6)	10,854 (-11.5)	10,264 (-0.3)	21,118 (-6.4)	9,509 (-12.4)	9,762 (-4.9)	19,271 (-8.7)
정유	23,161 (-13.3)	12,799 (14.7)	12,259 (2.2)	25,058 (8.2)	11,524 (-10.0)	10,265 (-16.3)	21,789 (-13.0)
석유화학	12,144 (-15.2)	6,312 (-1.6)	6,074 (6.0)	12,386 (2.0)	6,129 (-2.9)	6,524 (7.4)	12,653 (2.2)
섬유	18,876 (-5.2)	8,910 (-0.6)	10,351 (4.4)	19,261 (2.0)	8,950 (0.4)	10,585 (2.3)	19,535 (1.4)
정보통신기기	27,899 (-14.1)	13,077 (-7.6)	13,940 (1.4)	27,017 (-3.2)	12,798 (-2.1)	14,486 (3.9)	27,284 (1.0)
가전	8,119 (-5.0)	4,188 (1.5)	4156 (4.1)	8,344 (2.8)	4,284 (2.3)	4,302 (3.5)	8,586 (2.9)
반도체	62,342 (-16.6)	33,350 (8.4)	38,866 (23.1)	72,216 (15.8)	35,929 (7.7)	39,719 (2.2)	75,648 (4.8)
디스플레이	3,582 (-4.9)	2,060 (24.8)	1,726 (-10.6)	3,785 (5.7)	1,643 (-20.2)	1,407 (-18.5)	3,050 (-19.4)
이차전지	8,830 (45.0)	2,388 (-50.4)	2,783 (-30.6)	5,170 (-41.4)	2,355 (-1.4)	2,791 (0.3)	5,146 (-0.5)
바이오헬스	21,359 (-8.2)	10,362 (-4.0)	10,396 (-1.6)	20,758 (-2.8)	9,905 (-4.4)	10,075 (-3.1)	19,980 (-3.7)
13대 합계	264,902 (-9.2) 〈41.2〉	131,626 (-2.3) 〈42.2〉	139,001 (6.8) 〈43.5〉	270,625 (2.2) 〈42.8〉	130,470 (-0.9) 〈42.4〉	138,284 (-0.5) 〈44.6〉	268,752 (-0.7) 〈43.5〉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입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7〉 2025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물량, 원화 기준)

단위: %

	2023	2024			2025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자동차 (천 대)	288 (-4.6)	130 (-3.0)	151 (-1.5)	281 (-2.2)	145 (11.2)	144 (-4.5)	289 (2.8)
조선 (만 CGT)	12 (50.0)	15 (400.0)	14 (55.6)	29 (141.7)	16 (6.7)	16 (14.3)	32 (10.3)
일반기계 (십억 원)	39,967 (10.4)	20,717 (6.3)	21,025 (2.6)	41,743 (4.4)	22,269 (7.5)	21,858 (4.0)	44,127 (5.7)
철강 (천 톤)	9,896 (9.3)	5,195 (-1.4)	4,454 (-3.8)	9,650 (-2.5)	4,155 (-20.0)	4,265 (-4.2)	8,420 (-12.7)
정유 (십만 배럴)	3,721 (1.4)	1,981 (11.2)	1,957 (0.9)	3,938 (5.8)	1,925 (-2.8)	1,960 (0.2)	3,885 (-0.3)
석유화학 (천 톤)	9,078 (1.0)	4,770 (2.6)	4,647 (4.9)	9,417 (3.7)	5,014 (5.1)	5,166 (11.2)	10,180 (8.1)
섬유 (십억 원)	24,807 (-7.4)	12,030 (3.6)	14,243 (7.9)	26,273 (5.9)	12,926 (7.4)	14,851 (4.3)	27,776 (5.7)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36,637 (-18.9)	17,656 (-3.7)	18,868 (3.1)	36,525 (-0.3)	17,171 (-2.8)	18,934 (0.3)	36,105 (-1.2)
가전 (십억 원)	10,602 (-3.7)	5,654 (5.7)	5,729 (9.1)	11,383 (7.4)	6,187 (9.4)	6,035 (5.4)	12,222 (7.4)
반도체 (십억 원)	81,427 (-19.0)	45,029 (13.0)	52,609 (26.5)	97,638 (19.9)	51,889 (15.2)	55,726 (5.9)	107,614 (10.2)
디스플레이 (십억 원)	4,681 (-3.3)	2,781 (30.1)	2,336 (-8.1)	5,116 (9.3)	2,373 (-14.6)	1,974 (-15.5)	4,346 (-15.0)
이차전지 (십억 원)	11,524 (39.7)	3,224 (-48.3)	3,767 (-28.7)	6,991 (-39.3)	3,400 (5.5)	3,916 (4.0)	7,317 (4.7)
바이오헬스 (십억 원)	27,895 (-7.2)	14,129 (0.2)	14,175 (2.7)	28,303 (1.5)	14,101 (-0.2)	14,343 (1.2)	28,444 (0.5)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연구진

거시경제 전망

총괄 및 국내 경제	홍성욱 선임연구위원
세계 경제	민성환 선임연구위원
유가 및 환율	이소라 부연구위원
	강성우 연구원
소비	원혜진 연구원
투자	김태훈 부연구위원
수출	이원복 부연구위원
	한정민 전문연구원

13대 주력산업 전망

총괄	이재윤 연구위원
자동차	김경유 선임연구위원
조선	이은창 연구위원
일반기계	박상수 연구위원
철강	이고은 전문연구원
정유	최동원 부연구위원
석유화학	조용원 연구위원
섬유	이임자 연구위원
정보통신기기	김종기 선임연구위원
가전	심우중 전문연구원
반도체	김양팽 전문연구원
디스플레이	남상욱 부연구위원
이차전지	황경인 부연구위원
바이오헬스	정지은 부연구위원

KIET 경제·산업 전망 2025-01(1)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발 행 일 2025년 5월 27일
발 행 인 권남훈
발 행 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문 의 044-287-3146
인 쇄 처 거목정보산업(주)

ISSN 2983-0338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역재를 금합니다.